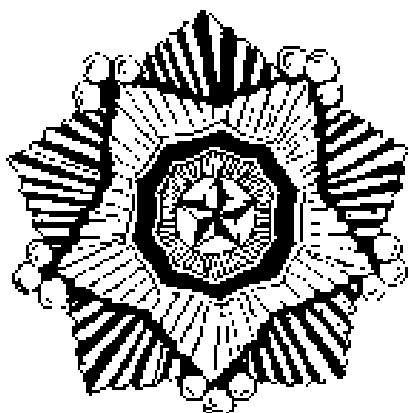




7

주체90(200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0(2001)년 제7호

(루계 제 645 호)

♦♦♦♦♦♦♦♦♦♦ 차 례 ♦♦♦♦♦♦♦♦♦♦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 들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4
영생의 빛발	7
파란 머리수건	9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리	19
그 처녀 맑은 눈동자.....	19
태양과 인간	20
풍운조화를 일으킨 렬차	23
나는 키 큰 렬단장	25
시대의 높이에서 형상된 민족자주사상	26
장군님은 아실거야.....	30
령장의 자욱 뜨거운 땅에서	31
전사자리	31
위인의 숭고한 동지애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	32
명언해설	35
병사는 노래한다	36
나는 평양의 아들.....	38
총대문학	39

정월보름달	41
초석	42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43
회오	44
야전차는 가고 있다	52
첫봄	53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	53
시대의 발걸음	54
가족휴양소에서	67
서정의 힘은 진실성에 있다	68
만아들의 목소리	71
관문점	71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와 여성형상.....	72
정	76
시를 통해 본 성삼문의 절개와 의리	77
주체 89(2000)년 《조선문학지상축전》 당선결과	80
주체 89(2000)년 노벨문학상을 둘러 싸고	80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 들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오늘 우리 혁명은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인 희망찬 새 세기 21세기의 진군길에 들어섰다.

위대한 포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광명한 미래에로 나아가는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대오의 철석 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하여 혁명승리의 이 만능의 보검으로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 나갈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혁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혁명적동지애의 미풍을 높이 발양시키고 동지애에 기초한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지애는 당과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천하지대본이다.

수령과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동지의 세계에는 사심과 사리가 없고 강요와 추종, 가식과 아첨이 없으며 더우기 배신과 변절이란 있을수 없다. 오직 내가 곧 그대이고 그대는 곧 나라는 믿음이 있고 사랑과 충성만이 있을뿐이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로 뭉친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는 곧 동지애의 응결체이다. 이러한 혁명적동지애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을 힘 있게 추동하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동지애의 혁명철학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거창한 선군혁명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문학의 대화원을 새롭게, 빛나게 장식하는것으로 우리 작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과 의리로 보답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이 제시한 동지애에 관한 혁명철학의 진수를 똑바로 알고 종자와 인간문제의 탐구로부터 주인공을 비롯한 긍정인물들의 성격형상과 인간관계설정, 이야기줄거리조직, 감정조직의 기승전결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항구적인 형상원천으로 되는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훌륭히 그려 내기 위한데 모를

박고 작품 한편한편을 명작으로 창작해 내야 한다.

동지애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창조되고 완성된 새로운 혁명철학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동지애에 혁명적의의를 부여하고 동지애로 혁명을 이끄시여 혁명적동지애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 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투쟁에서 동지가 더없이 귀중하며 동지애에 운명개척의 힘이 있고 인간해방과 완성의 비결이 있으며 혁명승리의 원동력이 있다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동지애에 관한 탁월한 사상.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주체의 동지관에는 그이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념, 고매한 인덕이 깃들어 있고 혁명에 모든것을 바쳐 오신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동지애에 관한 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여 동지애로 시작되고 승리하는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있어서 동지애는 모든 혁명활동의 시발점으로 근본초석으로 되고 있다.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있고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단결만 있으면 천만대적도 물리칠수 있으며 겹쌓인 시련도 이겨 낼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조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창조된 동지애가 있음으로 하여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조선혁명의 력사는 곧 동지애의 력사로 승승장구하여 왔다.

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일관된 애민애족의 사상인 주체사상의 창시.

참다운 혁명동지들로 무어 진 첫 공산주의혁명조직인 《E. C》의 결성.

우리 혁명이 개척되고 전진하여 온 전 과정은 《E. C》에서 시작된 동지적관계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동지적사랑이 꽃 피어나는 과정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동지들을 묶어 세우시고 그에 토대하여 혁명무력부터 창건하시였으며 그의 확고한 령도적지위를 보장하고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백두밀림에서 생사를 같이 한 혁명동지들에 의거하시여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당을 창건하

시고 군대를 건설하시었으며 군대와 인민을 조직 동원하시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제국주의원흉 미제를 피수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침공을 물리치시고 이 땅위에 강유력한 사회주의보루를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군속에서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단련되고 세련되었으며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였다.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뭉친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새로운 높은 단계.

최근 년간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붕괴,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이 격화된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믿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쳐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지략.

《고난의 행군》의 어려운 나날에 발휘된 혁명적 군인정신의 위대한 길을 따라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강계정신, 성강의 봉화가 타올랐고 우리 혁명은 동지애의 자랑찬 력사를 빛내여 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사이에서 맺어진 동지애는 주체혁명위업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이 없이 계승해 나가게 한 근본담보로 되였다.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도 함께 작성하시시고 거창한 창조와 건설도 함께 령도하시였으며 제국주의와의 대결전도 함께 승리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장 친근한 혁명동지로, 우리 당과 혁명의 령도자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시였으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로 여기시며 수령님을 높이 모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서거하신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선대수령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계승완성해 나가는 혁명적동지애의 최고귀감을 창조하시였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동지적의리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해주었으며 당과 수령을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줄 아는 훌륭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였다.

이렇듯 지난 20세기를 빛나게 장식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한길로 전진하여 온 주체혁명위업의 자랑찬 승리의 전 로정은 동지애의 력사로 수 놓아져 있다.

그러므로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형상함에 있어서 동지애는 유일무이한 형상원천으로 되며 우리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를 반영한 작품의 종자와 문제제기, 인간

관계설정과 이야기줄거리조직 등 형상과정의 모든 요소를 조건 짓고 발전시켜 나가는 근본담보로 된다.

따라서 우리 작가들은 주체문학건설의 기본의 기본으로 되는 수령형상창조에 있어서나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그려 냄에 있어서 동지애의 세계를 펼치는데 기본을 두고 작품을 창작해 내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동지애의 세계를 펼쳐 보이는데 기본을 두고 모든 작품의 사상적핵인 종자를 참신하고 독특한것으로 탐구하는것이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성과작들인 서사시 《영원한 우리 수령 김일성동지》, 《영원하라 동지애의 력사여》, 《조국이여 청년들을 자랑하라》, 장편소설 《열망》, 가사 《승리의 길》 등은 우리 시대의 사회정치적생명체인 수령, 당, 인민대중사이에 맺어진 일심단결의 천하지대본인 동지애의 세계를 기본으로 한 독특하고 참신한 종자를 선정하여 작품을 창작한데 그 성과의 비결이 있다.

가사 《승리의 길》만 보더라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고난의 천리를 가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우리 인민들의 굳센 신념과 충성과 의리의 세계를 종자로 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된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우리가 개척하고 승리로 전진시켜 나가는 혁명의 길은 간고하며 혁명을 하자면 사나운 격랑도 폭풍도 뚫고 나가야 한다. 사상적으로 건설하고 신념이 투철하며 고결한 도덕의리를 지닌 사람들만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개척해 나갈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가적품모는 동지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며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과정에 지니게 된다. 동지애는 사상을 공고히 하고 서로 고무하고 격려하며 결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혁명가적기질과 품모를 끊임없이 갖추어 나가게 한다.

주체형의 인간-공정적주인공들은 한 없는 동지의 사랑속에서 혁명을 알고 수령의 위대성과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게 되며 혁명적지조와 절개를 지킬줄 아는 불굴의 투사로, 영웅으로 성장하게 되는것이다.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인 비전향장기수들의 류례없는 옥중고초를 상기해 보라. 이들의 생활경로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속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가슴 뜨겁게 느끼게 되었고 그 소중한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티없이 맑고 순결한 충성심으로 자기의 혁명적절개와 지조를 곳곳이 지켜낼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수령과 전사사이에서 맺어진 깨끗하고 열화와 같은 동지적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혁명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 낼 신념과 의지를 지니게 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이처럼 이들의 가슴속에 꽃 피난 동지애의 발현과정, 믿음에 의리로 보답할 줄 아는 그 과정을 세계관형성과정의 성격발전력사로 진실하게 그려 내야 한다. 동지애의 세계를 그려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 선군령도에 충성 다하는 시대의 전형을 특색 있게 형상하는것이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만들며 자주의 새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정치이다. 오늘날의 동지애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를 앞장에서 받드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의 동지애의 밑바탕에 흐르는 정신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려는 신념이고 충성이며 단결이다. 우리가 동지애를 간직하고 싸워나가는것도 혁명의 수뇌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고 우리모두가 마음과 지혜와 힘을 합치는것도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더 잘 받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수령결사옹위를 첫째가는 좌우명으로 삼고 매일 매 시각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 나가는 선군시대의 전형-주체형의 인간을 더 잘 그리기 위하여 애 써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주체혁명 위업완성의 주력군이며 기동인 인민군대가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의 체현자들을 그리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혁명적군인정신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결사옹위 정신이 높이 발양된 자폭정신, 총폭탄정신이며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관철해 내고야 마는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모든 성원들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사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강성대국건설로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 가 온 사회에 차고 넘치는 공산주의미풍,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일하고 생활하는 우리 시대 주인공들의 성격을 깊이 탐구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우리의 동지애는 나이 나 직위, 혁명초소에 관계없이 수령의 부름에 모든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고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는데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당과 수령을 받드는데서 다 같은 혁명전사로, 혁명동지로 그리는것이다. 그래야 지도일군과 군중과의 관계를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끼는 동지관계로 형상할수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혼연일체의 관계를 동지애를 바탕으로 잘 그려 낼수 있

다.

우리 작가들은 동지애를 우리 시대의 유일무이한 형상원천으로 삼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동지애를 심장으로 체득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특이한 동지애를 지니신 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시며 위대한 인덕정치의 정치가이시다. 동지애는 **김정일**동지의 천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동지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동지부자가 되는것을 무상의 행복으로 여기시며 동지들의 신뢰와 사랑을 최대의 힘과 지혜로 삼고 계신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애에 관한 사상에는 사랑과 믿음으로 새 세계를 창조하려는 위대한 이상이 있고 천만강적을 타승하고 백승을 이룩하는 만능의 보검이 있다.

동지애를 숭고한 리념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이끄시는 위대한 정치가, 뜨거운 정과 열로 천만대중을 가장 숭고한 인간세계에로 향도하시는 정의인, 열의인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애는 먼저 믿음을 주고 따듯이 손 잡아 이끌어 주는 절대적인 믿음이며 동지들을 위함이라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열혈의 사랑이며 한번 믿음을 주면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절대불변의 의리이다.

우리모두는 위대한 장군님 따라 혁명의 길을 걸어 오는 과정에 장군님의 동지애에 매혹되어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혁명동지가 된 혁명전사들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애에서 우리는 어떻게 동지를 믿고 혁명을 하며 얼마나 진실하고 뜨겁게 동지를 사랑하고 인생을 빛내여 나가야 하는가를 절감하게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동지애에 의하여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끄는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되고 우리 군대가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위력을 떨치며 우리 식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중심의 불패의 사회주의로 빛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동지관을 따라 배워 동지애의 숭고한 세계가 온 사회에 차넘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문학작품을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게 창작해 내야 한다.

오늘 우리의 동지애는 21세기의 새 역사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거세찬 진군속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작가들은 동지애를 더 잘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안목과 기발한 착상, 진취적인 창작기풍으로 문학운동을 진공적으로 벌려 새 세기 주체문화의 대화원을 더욱 빛내여 나가기 위한 명작들을 더 많이 써내야 할것이다.

영생의 빛발

강옥녀

노을 1

노을입니다
노을이라도
우리 수령님 인민을 위해 맞으시던
아침노을입니다

저 노을을 맞으셨습니다
미끄러운 논밭에서
뜨락또르운전수 도와 발동을 걸어 주시며
이슬에 옷습 적시시며
양수장자리도 잡아 주시며

저 노을을 맞으셨습니다
비린내 풍기는 배에 오르시여
물고기잡이도 알아 보시고
아침봉사 나온 판매원을 만나시여선
찬거리 가지수도 헤아려 보시며

아 이른 아침 새날의 창문을 남 먼저 여시고
행복을 안아 오실 큰 호흡을 하시고

인민이라는 그 이름 다정히 부르시며
현지지도의 길 떠나시던 어버이수령님

우리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그 로고를
기쁨과 행복으로 아시고
로동자들보다 먼저 구내길을 걸으셨습니다
건설자들보다 먼저
즐편한 간석지의 길도 내시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 나는것이
이젠 습관이 되었다고 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선 새벽 일찍 일을 보시고
인민은 고요히 새벽잠을 자고...

아 수령님과 아침노을
어버이수령님 안고 계신 인민의 얼굴입니다
우리 수령님
인민을 찾아 떠나시던 사랑의 미소입니다

노을 2

아침에 맞으시던 그 노을속에
못 다하신 일이 있습니까
노을이라도 어버이수령님
끝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며 계시던
저녁노을입니다

저 노을속에 계셨습니다
해 점도록 가시기를 잊고
용해공들과 이야기 나누시며
발 벗고 강 건너던 아이들이 가슴에 걸리시여
오시던 길 다시 되돌아 가시며

저 노을속에 계셨습니다
발가스레 물 드는 책상우에서
살림집설계도면 하나하나 보아 주시고
인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렐차의 시간표까지 짜주시며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힘이 난다고
저 노을을 맞으시며
굽이굽이 험한 령을 넘으셨습니다

왔던 걸음에 끝까지 가보자고
산자락아래 호젓한 마을도 찾으셨습니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 오실 때마다
집무실에서 일을 보실 때마다
인민이란 그 이름 크게 써놓으시고
하루총화를 지으신 우리 수령님

우리 인민의 착실한 복무자가 되시여
이 땅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집무실의 불을 끄신
어버이수령님

소박한 농민의 이야기에
하루의 피곤을 푸시고
인민의 웃음소리에
한평생 로고를 푸신분이시기에

아 수령님과 저녁노을
수령님 가꿔 주신 인민의 웃음입니다
우리 수령님 퍼내고 퍼내시여
인민에게 보내시던 사랑의 축복입니다

노을 3

아직 못 다준 사랑이 있습니까
아직 못 가보신 곳이 있습니까
붉은 노을속에 계시는
아버이 우리 수령님

노을을 즐겨 맞으시며
노을과 친숙해 지셨던 우리 수령님
노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저 하늘에 노을이 고와서만이 아님을
우리 알았습니다
노을속에서 우리를 위한 일 하시니
그것이 기쁘셔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기쁜 일 있어도 우리 찾으시고
물어 볼 일 있어도 우리 찾으시고
늘 우리 인민과 함께 계신 수령님

그렇게도 우리가 좋았습니까
꽃강냉이이삭으로 점심을 드실 때도
우리와 함께 먹어야 맛이 난다고
우리곁에 허물없이 앉으시고
따로 마련한 숙소도 사양하시며
수수한 농가집에서 묵어 가시고

노을입니다
노을이라도
아버이수령님 그리워 하는
인민의 마음속에 피어 나는 노을입니다

아침마다 수령님초상화 우리러 인사 드리고
학교에 가고 일터에 가던 그날처럼
이 마음속에 안고 가는 노을입니다
먼 길 떠나신 아버지수령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처럼
이 마음속에 안고 사는 노을입니다

쇠물 뽑는 용해장에 가면
소문없이 찾아 오신 그 영상 우리러
용해공들은 노을 피는 새벽을 안고 있습니다
천 짜는 방직공들은
아버이수령님곁에 빙 둘러 앉아 이야기 듣던
그 저녁노을을 안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학부형이 되시어

그렇게도 우리가 좋았습니까
생신날도 우리와 함께 쇄시고
우리 얼굴 두고두고 보시겠다며
사진도 찍어 주시고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을 짝 채우고 사시며
생의 마지막까지 인민 위해 바치신분이시기에
인민에 대한 사상과 사랑을 내놓고
다른 집필을 하신적 없으셨거니

인민의 머리우엔
주체의 붉은 노을만 있어 주셨습니다
인민의 앞길엔
영원한 삶의 넓은 길만 열어 주셨습니다

노을속에 우리를 안고 계시며
인민을 떠나선 못 사시던
수령님 그 진정 너무도 잘 알아서
김정일동지 펼쳐 주신 노을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금수산기념궁전에 펼쳐 주신 붉은 노을
우리 수령님 땀래야 땀수 없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사랑의 세계입니다

노을 4

아이들의 손 잡고 학교에 오시던 그 영상
학생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수수한 들길에서 농장원들과 사진 찍으신 영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새벽노을 맞으시며 걷고 걸으시며
우리에게 줄 너무도 큰 행복과 기쁨을
노을속에 안고 오시던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노을 피는 아침에도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노을 지는 저녁에도
못 견디게 그립습니다

수령님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 진
붉은 노을
우리의 **김정일**동지 너무도 잘 아서
금수산기념궁전에 펼쳐 주셨습니다
영원히 모시고픈 우리 인민의 그 마음
영생의 빛발로 펼쳐 주셨습니다

파란 머리수건

김영희

쇠지골로 가는 오솔길은 꼬부랑소나무가 들성 들성 박힌 산등성이우로 하얀 땀기오리처럼 뻗어 있었다.

비료포대에 지리눌리워 가냘픈 몸이 《ㄱ》자가 된 림동휘는 부지런히 엇바뀌는 권리화끝을 내려다 보며 걷다가 짹짹한 입술을 감쌀며 앞을 쏘아보았다. 알뜰게도 하얀 오솔길은 마치 예술체 조선수가 잡아 휘두르는 땀기인양 산너머 푸른 가을하늘로 훨훨 날아 가는것 같기도 하고 꼬불 꼬불 탈리면서 발밑에 감겨 드는것 같기도 하였다. 그 땀기오리가 다리를 칭칭 휘감았는지 걸음을 뻘수가 없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숨 돌리거나 먼 건기가 수월해 질듯 했으나 여기서 탕개를 풀었다가는 아예 일어 설것 같지 못했다. 이제 저 산등성이만 넘어 서면 샘터가 있다. 보글보글 솟아 오르는 그 샘물을 눈앞에 떠올리며 그는 걸음을 재우쳤다.

좁은 잔등에 망작처럼 올라 앉아 있는 이 비료 때문에 어둑새벽에 군에 갔던 그였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나절이나 사정도 하고 앉아 버티기도 하였건만 목이 발은 자재과장은 요지부동이었다.

《동무, 가을철에 이삭비료를 내라는건 무슨 빠꾸기 같은 소리요?》

《저의 시험포전에선 강냉이 두벌농사를 합니다. 두벌강냉이가 한창 알이 드는 때인데 이삭비료를 못 주면 난 또 한해를 잃게 돼요.》

《시험포전? 우리 군에 그런게 있다는건 듣다 첫 소린데...》

아무리 신경이질해야 생고무에 주먹질하는 격이었다. 경영위원장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 갔으나 문에는 《회의》라고 쓴 패쪽이 걸려 있을뿐이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거쿨진 체대에 목이 성큼한 장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럼... 동무가 농업과학원 강냉이연구소 부소장이었소?》

《예.》

림동휘는 머리수건을 벗어 쥐며 고개를 떨구었다. 머리우에서 무거운 한숨소리가 들려 왔다.

《일을 하러 왔으면 학자가 아니라 진짜 농사군이 되어 보는게 옳지 않습니까?》

림동휘는 눈물이 쏟아 질것 같아 머리를 들었다. 방안에는 그 혼자였다. 창밖에서 경영위원장의 차가 부르릉거렸다. 아뿔싸, 달려 나갔을 때에는 승용차의 동음이 멀어 지고 있었다.

림동휘는 가을별이 따갑게 내려 쬔는 경영위원

회마당에 넋없이 서 있었다.

지나가던 통토무래한 녀인이 살며시 부축하며 상냥스레 묻는다.

《어데 아파요?》

그의 체취가 이 생면부지의 녀인에게 애뜻한 정을 느끼게 하였다. 림동휘는 친정어머니를 만난듯 무작정 그에게 매달렸다. 그는 쇠지골린집에 있는 당현농장 관리위원장이었다. 그의 농장에 들러 간신히 이삭비료 한포대를 얻을수 있었다.

산등성이에 올라 서니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른다.

림동휘는 걸음보다 마음이 앞서 썰매를 타는 아이들처럼 아래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 갔다. 샘물을 량껏 마시고나서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허거른 미소를 지으며 물기를 닦으려고 머리수건을 찾았다. 머리를 매만져 보니 수건이 없다. 어디에 떨렸을가 싶어 샘가를 둘러 보고 등성이너머에까지 가보았으나 수건은 없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관리위원장네 집에 들렸을 때는 분명 수건을 쓰고 있었다.

농장창고를 뒤져 구석에 요행 남아 있던 이삭비료를 찾아 주고난 그 녀자는 동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었다. 싸리울바자를 정갈하게 둘러치고 앞마당에 꽃고추며 배추, 갖이 푸르싱싱 자라는 터밭이 있는 아담한 집이었다.

《변변찮아두 좀 들어요. 우린 그저 이렇게 산다우.》

급히 챙긴 상을 토방우에 가져다 놓으며 관리위원장이 하는 말이였다.

강낭밥에 물 한사발, 찢 된장보시기와 김치대 접뿐이었지만 그에게는 성찬이었다. 풋배추김치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웠던지 그는 군침을 꿀꺽 삼키었다.

《찬이 없어 어쩌나.》하고 그 녀자는 난처해 하더니 갑작 일어 나 터밭에서 풋고추를 한줌 따왔다. 그는 밥을 물에 말아 풋고추에 된장을 찍어 맛나게 먹으면서 동휘더러 많이 들라고 연신 권하였다.

김치를 몇순갈 연거퍼 떠먹고난 림동휘는 기갈 든 사람처럼 대접채로 들고 쥘하고 시원한 그것을 꿀꺽꿀꺽 마셨다. 불쑥 이름할수 없는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 눈물이 관리위원장을 놀라게 한것 같았다.

《아니 왜? 사례들렸수?》

《그저... 갑자기 어머니생각이 나서...》

대학시절 방학이 되어 고향에 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맛갈스런 풋저리김치를 담그어 주곤 했었다.

《어머닌 어데 계시게?》

《전후에 돌아 가셨어요.》

《그렇구만.》

그 머리수건이랑 벗고 천천히 많이 들어요. 평양서 살다 왔으면 불편한게 오죽 많겠수. 촌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산다우.》

그러나 그 녀자의 목소리엔 제 고장과 이 생활을 사랑하는 사람의 흡족함이 어려 있었다. 그 녀자의 따뜻한 눈길은 동휘의 찻찻한 면천머리수건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다. 림동휘는 수건을 벗어 슬며시 상밀에 놓았다. 너무도 물이 날아 바탕색을 알아 보기 힘든 수건이었다. 꽃문양이 돋혔던 자리는 무슨 얼룩점이 찍힌것 같았다.

그 녀자는 목에 걸었던 자기의 나이론 꽃수건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걸 써요. 아직 젊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니면 숙보여요. 촌사람들이 더 하다우. 떨어 저 내려 왔다고 주접 들거 있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던 그에게 있어 이보다 더 가슴치는 말이 어데 있었으랴. 그는 추위에 떨다가 따끈한 아랫목에 앉은 사람처럼 온몸이 노근해 왔다. 일어 붙었던 마음의 문이 저도 모르게 열려 지는듯 싶었다.

《이 수건은 어머니가 남긴 유물이예요.》

전 여덟남매의 맏딸이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잔날 없다고 아버지 없는 우리 형제들 키우느라 어머니고생이 말이 아니였어요. 그래두 저만은 대학공부까지 시켰답니다.》

동휘의 눈빛은 흐려 지고 목소리는 떨렸다.

《3학년때 여름방학에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 이미 돌아 가신 뒤였어요. 제 공부에 방해된다고 알리지 못하게 하신거예요.》

동휘는 머리수건으로 눈굽을 찍었다. 구겨진 머리수건을 손다듬이질하며 그는 가까스로 울음을 참아 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의봉을 여니 나에게 남긴 보따리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엔 내가 시집갈 때 주자고 한것인지 아니면 사회에 첫 출근할 때 입히자고 준비해 둔것인지 치마저고리 한벌감과 하르르한 머리수건이 한때 있었어요. 녀동생이 시집갈 때 옷감이랑 머리수건이랑 줘보내고 나는 그걸 썼던 면보자기를 가졌어요.》

《그러니 어머니의 마지막온기가 스민 머리수건이구만.》

그랬다. 그것은 어머니의 넋이 스배여 있고 어머니의 진하디진한 사랑이 오리오리에 어려 있는 소중한 귀물이었다. 해서인지 그 머리수건을 쓰

면 칼바람이 불어도 추운줄 몰랐고 땀벌이 내려 쬘여도 따가운줄 몰랐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운명의 회오리바람도 이겨 낼수 있는 의지를 주었다. 머리수건이라기보다 육체의 한 부분과도 갈아진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찌 일곱 동생을 공부시키고 시집, 장가를 보내야 했던 그 어려운 부담을 감당해 낼수 있었으랴.

《정말 용수다. 술한 동생 키우고 살리느라 고생이 오죽했겠수. 찬 없어두 물에 말아 많이 들어요. 나도 동생들이 많아서 죽도 변변히 얻어 먹지 못했다우.》

그 녀자의 푸수한 인정에 동휘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가슴이 그들먹하였다. 살뜰한 언니 같기도 하고 다심한 어머니 같기도 한 그에게 마음을 쏟아 놓고 보니 답답하던 가슴이 비온뒤 푸른 들판처럼 청신해 진듯 싶었다. 마음의 고통을 가볍게 하는 치료법은 믿음이 가는 사람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 놓는것밖에 없다고 한 말은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 언니네 협동농장에 배치되었더라면 좋았겠는데...》

《구현농장이 어드래서?》

《관리위원장이...》

《오 장క్క다리, 결보긴 가뭇때 무우밀둥 갈애두 속은 단사람이야.》

《글쎄 왜 그런지 마주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며 머리를 가웃하고 생각을 굴리던 그 녀자가 스스럼없이 물었다.

《그런데 평양서 어인 일루 예까지 내려 왔소?》

림동휘는 급소를 찔리운듯 낮빛이 해쓱해 졌다. 그러나 구면지기처럼 느껴 지는 이 수수하고 진실한 녀자앞에서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은 몇해전 9.9절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었다. 막내동생 결혼식때문에 일터를 떠났던 바로 그날에 아버지수령님께서 연구소 시험포전을 찾아 주실 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림동휘네는 수확고가 높은 강냉이 1대잡종 육종사업을 여러해째 계속해오고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현지에서 실패를 료해하신 수령님께서는 강냉이농사를 추켜 세우자면 이제 얼마나 더 결려야 될수 있을것 같은가고 물으시었다. 누구도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때 동행하였던 농업위원회 책임일군이 우리 나라와 기후조건이 엇비슷한 유럽의 어느 나라에 수확고가 높은 강냉이종자가 있다고 하는데 새 종자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사다 심는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 올리였다.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농사를 좌우하는 심중한 문제인것만큼 농업위원회 책임일군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종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사오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막내동생결혼식을 마치고 돌아 오니 연구소 당

비서가 그를 불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표단이 갈 때에 강냉이를 잘 아는 학자를 꼭 데리고 가도록 하라고 하시었소.

당조직에서는 동무를 추천하였소. 수령님께서도 당조직이 믿을만한 동무이라고 하니 믿고 보내자고 하시면서 동무를 만나지 못하고 가시는 것을 몹시 아쉬워 하시었소.》

《믿고 보내자.》 그 말씀은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날으면서도 유럽의 낮 선 도시에 가셔도 그의 귀전에서 노래처럼 끝없이 울리었다....

《예구나, 지난해 농사를 망친 그 망할 놈의 종잘 사온게 임자였수?!》

화로불같이 따스한 온기가 차넘치던 그 여자관리위원장의 동그란 눈이 금시에 싸늘해 졌다. 림동휘는 갑자기 오한이 나는듯 몸을 떨었다.

《아유! 그 망할 놈의 종자덕에 지난해 폐농을 하고 봄내 여름내 얼마나 고생을 했는줄 아시유? 사람이 뽕나무잎을 다 뜯어 먹었어요.

농업위원회에 반동이 있다구 농민들이 욱옥거렸수다.》

그러니 그 《반동》이 림동휘 자기란 말인가? 관리위원장도 어처구니 없는듯 한줌만 하게 줄아든것 같은 그를 멍청히 바라보았다.

《구현관리위원장을 탓할게 없수다. 그 사람이 농장원들을 먹여 살리느라 텔레비존이랑 재봉기랑 다 내다 팔았시다.》

송곳이 비발치듯 날아 와 온몸을 사정없이 찌르는것 같았다.

《예구, 한개 농장을 먹여 살리기도 그리 힘든데 온 나라를 먹여 살리시는 수령님 고생이야 오죽 하실가.》

그 녀자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눈곱을 훔쳤다.

《지난 가을에 수령님을 모시고 저 영천(이웃군) 군에서 진행되었던 농업일군협의회에 나도 갔댔소. 분조장들이랑 실농군을 데려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군당회의실에 갔더니 전과는 달리 벌에서 일하던 농민들이 가득 모였더군요.

수령님께서 회의장에 나오시더니 <내 오늘 올해 농사가 잘 안된 원인을 알자고 동무들을 불렀소. 직접 농사를 지은 동무들이 어디 말 좀 해보오.》 하시드구만.

선뜻 일어 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디다 못해 앞줄에 앉았던 그곳 군당책임비서가 일어 서더군요. 그런데 수령님께서 <동무가 농민이요?> 하고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분조장이 말해보오.》 하시니까 한 남자가 일어 섭니다.

<우린 그 종자를 심었는데 정당 500kg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재래종을 심을 때는 그래두 두세 t 은 냈었는데...>

또 다른 농민이 일어 나서 자기네는 무수확이나 같다, 장마를 겪고 나니 강냉이뿌리가 다 썩

어 문드러졌다고 합니다.

연필 뒤등으로 앞상을 푹푹 두드리시던 수령님께서 연필을 콕 움켜 쥐시며 <좋다 좋다 해서 나왔더니...> 하고는 더 말씀을 못하시더군요. 그러시고는 천천히 창문가로 가셔서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시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와 하시는지 우리 가슴이 갈가리 찢겨 나가는것 같습디다.》

림동휘는 퇴마루가 썩 갈라 지며 천길나락으로 허공 떨어 저 내리는것 같았다. 관리위원장의 목소리가 먼 곳에서 아슬푸레하게 들려 왔다.

《어쩌다 그런 종잘 사았수?

수령님께 좋은 종자라고 허위보고한게 사실이요?》

림동휘는 어떻게 그 집대문을 나섰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도 비료포대만은 잊지 않은것이 요행스러웠다....

샘가에 퍼터앉은채 흰 모래를 뿔어 올리며 보글보글 솟아 오르는 샘물을 넋없이 바라보며 림동휘는 자신에게 물었다.

(내가 무얼 잃었더라. 어머니의 온기가 스민 머리카락이...)

그는 중얼거리며 허탈이 든 사람처럼 일렁거리는 샘물을 멍하니 내려다 보았다. 갈숨한 얼굴에 유난스레 큰 눈이 켜한 녀자가 시름겹게 올려다 보고 있었다.

저게 누굴가. 저 녀자가 림동휘인가. 거울을 본지도 오래다. 거울을 보고 또 보며 어마, 내가 저렇게 고운가 하고 놀라던 그런 때가 있었지. 한창시절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시한번 쳐다보던 단아한 용모였다. 그보다도 비상한 기억력과 해박한 지식, 쉽지 않은 총명에 선망의 눈길을 모으던 때가 더 흐뭇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가나 의아쩍어 하는 눈길, 껄름직한 물건을 바라볼 때와 같은 섬찝하고 야릇한 눈길이 그의 온몸을 훑는다. 그것은 혹독한 비난보다도 매질보다도 더 건디기 어려운것이였다. 그 저주로운 종자가 그의 운명을 이다지도 비틀어 놓았던 말인가. 아, 경영위원장의 그 눈길... 마음 좋은 관리위원장녀인의 그 민망한 목소리... 누구를 탓하라. 누구를...

산등성이우 밤나무그늘에서 산과실 따러 왔던 사람들이 쉬고 있는지 두런거리는 말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왔다.

《저 아래초막에서 누가 산다오?》

《꿀벌령감의 초막이겠지.》

《알기두 잘 안다. 평양서 내려 온 학자인지 뭔지 하는 사람이 산대요.》

《뭇때메 락하산을 탔대?》

《군당에 있는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아 글썽 우리 수령님한테 거짓부리를 했단누만.》

《원 세상에... 어벌쪽지두...》

림동휘는 강타를 맞은 권투선수처럼 정신이 아

찢하여 비척거렸다.

(아니야, 난 아니야.)

그는 귀를 틀어 막고 목이 터지게 소리치고 싶었으나 가위 눌린 사람처럼 목소리가 나지 않았다.

유럽의 숨 막히던 여름이 되새겨 졌다. 두나이 강기슭에 자리 잡은 그 오랜 도시의 여름은 건조하고 선들거렸으나 그에게는 폭우가 쏟아 지기 직전처럼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심신이 타서 재가 되던 그 낮과 밤들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현지에 가서 료해해 보니 그 종자는 신통치 못하였다. 그것은 년평균강수량이 400~500mm 도 못되는 건조한 그 나라 조건에서는 소출이 꽤 많았으나 장마철이 길고 무더기비가 퍼붓는 우리 나라의 고온다습조건에서는 견딜성이 약하였다. 림동휘는 교잡상대로 그 종자를 써본 일이 있어 파악이 있었다. 그는 시험자료를 분석해 보이면서 그 종자가 우리 나라에 맞지 않는다는것을 설명하였다. 그 종자를 육종한 사람은 유럽에서 명성이 프르르한 세계적인 육종학자였다. 조선의 젊은 녀성학자의 반대에 백발의 로학자는 선생이 고집이 센 학생을 대하듯 아량을 보였다.

《당신의 시험재배가 다른 요인으로 실패했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과 기후가 비슷한 나라에서도 나의 <손자>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교수선생의 <손자>는 물론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서는 견디지 못합니다. 비슷하다는것과 같다는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랜 농업국의 로학자는 자기의 권위에 감히 도전하는 몸매 호리호리한 동양의 녀성학자를 호기심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대표단성원들은 당돌하고 고집스런 그를 분명히 민망스러워 하는듯 하였다. 지프려 진 그들의 눈빛은 《녀자가 코대가 너무 세구만. 뭘 안다구 그래.》 하는듯 싶었다.

론쟁은 계속되었으나 끝이 나지 않았다. 《동무 대표단사업을 방조하러 왔나 방해하러 왔나.》 하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도 피로왔으나 물려 설수 없었다.

체류일정이 끝나갈무렵 대표단 단장이 그를 개별적으로 불렀다.

《어떻게 하겠소? 빈손으로 돌아 가자요?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동무가 책임질수 있소?》

림동휘는 낭떠러지우에 선 자신을 보았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을뿐 대답을 못했다. 한결 주눅이 든 그에게 단장은 하소연하듯 말하였다.

《동무네가 진작 좋은 종자를 만들어 냈더라면 왜 우리가 이런 비락질을 다니겠소. 이 나라에서 학자들까지 보내서 도와 주겠다고 하는데 우선

종자를 사가지고 가서 일부 지역에 심어 보는것이 어떻소. 그래도 재래종보다야 낫겠지. 그렇지 않소?》

(재래종보다 나올수도 있어.) 하고 그는 자기를 위안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것이 한갓 자기기만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았던가 몰랐던가.

림동휘는 물려 서지 말아야 할 계선에서 그만 타협을 했었다. 그 후과가 그렇게도 엄청난것일 줄이야 상상이나 했으랴.

그의 문제를 취급하는 당총회에서 동지들이 수령님께서 우리 과학자를 믿으시고 동무를 따라 보냈는데 어쩌면 그럴수 있느냐고, 수령님의 믿음을 저버린 인간이 어떻게 이 푸른 하늘아래 머리를 들고 설수 있느냐고 총알 같은 비판을 퍼부을 때 림동휘는 항변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응당한 비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억울하고 원통한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명치끝에 걸린 추리알처럼 종시 내려 가지 않았다.

겹찢힌 진눈까비가 푸득푸득 떨어 지는 밤에 그는 종자배낭 하나를 메고 연구소를 떠났었다. 그가 배낭을 풀어 놓은 곳이 산간지대에서도 땅이 가장 척박한 여기 8군의 최지골이었다. 농장에서는 그에게 어느 집 옷방 한칸을 내주고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일하라고 하였으나 고집스레 인적 없는 이 최지골안에 옮겨 와 제 손으로 초막을 짓고 자그마한 시험포전을 일구었다. 산골사람들은 타고 난 소박성과 텅텅한 인정으로 외지에 온 그의 생활을 돌봐 주었으나 림동휘는 미심쩍게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견디어 낼수 없었다. 그는 지나치게 도고하고 푸쩍 없는 자기의 성격을 저주했으나 타고 난 성미를 어쩔수 없었다. 그에게는 찾아 오는 사람두 없고 찾아 갈 사람도 없는 호젓한 이 골안에 혼자 있는것이 오히려 맘 편했다. 그는 자기 《령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샘물에 정을 붙이였다. 샘터를 품들여 손질하고 물밑에 하얀 조약돌을 주어다 깔았다. 물길도 쪼고 빨래돌도 가져다 놓았다. 그는 각근한 이웃을 찾아가는 심정으로 하루일을 마친후면 샘터에 와서 땀에 젖은 몸을 씻고 빨래도 하였다. 흰 모래분수를 뿜어 올리며 씩씩이 보글보글 솟아 오르는 샘을 넋없이 바라보며 마음속 말을 나누기도 하였다. 그것은 저세상 가신 어머니와의 대화였다. 어머니사랑도 맑고 깨끗한 샘물처럼 꾸준하고 다함이 없었었다.

지금도 샘물은 예처럼 솟아 올라 샘확을 빙빙 돌다가는 샘길로 조잘대며 흘러 내리고 있었다. 빨래돌 밑둥을 찰썩찰썩 치며 흐르는 물소리는 그에게 어머니의 살뜰한 입맞춤소리처럼 느껴 졌었다. 허나 그것은 지금 밤나무그늘밑에서 수군대는 녀인들과 합세하여 《원, 그제 사람이 할짓인가.》 하고 입을 모아 비난하고 킬킬 혀 차는 소리처럼 들려 왔다. 어머니의 눈동자마냥 그윽

하고 정이 찰찰 고인것만 같던 썸물조차 미심쩍게 아연하게 흘깃거리며 바라보던 그 모든 눈동자들이 합쳐 저 싸늘한 하나의 동자를 이룬것 같이 생각되었다.

아아, 인간이란 당과 수령의 믿음을 떼여 버리면 이리도 보잘나위 없는 존재인가. 그 믿음을 저버리면 결국 모든것을 잃는구나. 권위도 명성도 사회와 집단의 사랑과 신뢰도...

귀전에서 돌돌 썸물소리가 들려 왔다. 그것은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일어 나라. 믿음을 찾아야지. 동무들과 이웃들의 꿈으로 돌아 가야지.》

잃어 버린 믿음을 찾는 길, 사회와 집단의 사랑의 꿈으로 돌아 가는 길, 그것은 새 강녕이종자를 육종해 내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다. 림동휘는 안간힘을 쓰며 일어 섰다.

두벌강녕이의 마지막포기에 이삭비료를 묻어주고 난 림동휘는 호미를 떨어뜨리며 밭이랑에 엎어 졌다. 구수한 흙냄새, 땅의 서늘하고 부드러운 촉감, 새벽부터 뛰여 다닌 피로에다 극도의 흥분이 덧창을 쳐서 녹초가 된 그는 마치 폭신한 이불위에 누운듯 잠이 들었다.

...

《이봐요 동무, 동무!》

누군가 자꾸만 잡아 흔든다. 새크무레한 젖내가 났다. 어머니인가부다. 싫어, 난 잘래 하고 그는 어리광을 피운다. 땀뻘 손이 귀뺨을 찰작 갈기는바람에 림동휘는 눈을 떴다. 동실한 눈이 성이 나서 내려다 본다. 이게 누굴가?

《에그, 정신 차려요.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셨수.》

갑자기 귀가 멍해 졌다. 소방차가 왕왕 고동을 울리며 달려 오는듯 했다. 녀인은 무어라고 자꾸만 소리쳤으나 도대체 들을수 없다. 그 녀자는 화가 나서 동휘의 가쁜한 몸을 획 들어 일으켰다. 아니 당현관리위원장이 어떻게 여길...

림동휘는 정신이 펴져 들었다. 순간 그는 실한 강녕이대에 업힌 목직한 이삭을 만져 보시며 이랑사이로 걸어 오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보았다.

고동소리가 딱 멎고 고막이 터질것 같은 정적이 깃든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믿어 지지 않았다. 달려 가려고 했으나 고속도촬영화면에서처럼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아주 가까이에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 왔다.

《이 밭 주인입니까?》

《...》

《강녕이가 참 잘됐습니다. 이 고장 땅이 척박해서 조나 수수를 심어도 잘 안된다던데 이 밭 강녕이는 어떻게 이렇게 잘되었습니까?》

내 농사경험을 듣자고 주인을 기다리던참이요.》

수령님께서는 검푸른 잎을 흐느적이는 강녕이

와 그것을 가꾼 주인을 엿갈아 보시며 대답을 기다리셨으나 림동휘는 그저 망두석처럼 서 있었다.

산간역에 내려서도 산굽이를 에돌고 계곡을 지나 수십리를 들어 와야 하는 이 궁벽한 산골, 군급간부들조차 와본적이 없는 외진 골안에 수령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좀체로 믿어 지지 않았다. 아직 꿈에서 깨여 나지 못하였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수령님, 오늘 너무 많이 걸으셨는데 저 나무 그늘밑에라두 좀... 아직 가을벌이 따갑습니다.》

관리위원장이 죄송스레 올리는 말을 그는 꿈속에서처럼 들었다.

《그래 어디 좀 앉을가.

저기 초막이 있구만.》

림동휘가 제 정신을 차릴새도 없이 수령님께서는 초막쪽으로 앞서 걸으시였다.

(저 초라한 곳에 어떻게...)

그는 당황망조하여 헤둥거리며 뒤따랐으나 그이께서는 벌써 초막문을 여시고 허리를 굽히시였다.

키 낮은 초막에 들어 서신 수령님께서서는 어둠에 익숙해 지시려는듯 한동안 서성거리시였다. 관리위원장이 그이를 부축하여 건초를 다져 만든 침상우에 모시였다. 그이께서 침상우에 몸을 일으키자 초막안에 마른 풀냄새, 박하냄새, 쪽냄새가 그윽히 풍겼다.

어둡시그레한 구석에서 사기단지에 꽃아 놓은 들국화만이 이 초막의 초라함을 가리워 보려는듯 유난스레 파아란 빛을 뿜으며 생색을 내고 있었다.

피창으로 흘러 드는 광선속에 바닥에 되는대로 널려 저 있는 그릇가지들이 윤후하게 드러났다. 소금단지와 된장단지, 늪식기 두개, 간장종지... 세개의 돌맹이우에 그을은 늪남비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고 남비뚜정을 열어 보시였다. 아침에 갖혀 놓은 노란 강낭밥이 꼬들꼬들 말라 있었다. 이어 단지들도 하나하나 열어 보신다. 된장단지는 바닥이 나고 소금단지만 골숨히 차 있었다.

수령님의 깊은 숨소리에 이어 심려가 어린 석침한 음성이 울려 왔다.

《내 어제 당현리를 지나다가 밭에서 일하는 농민들과 담화를 하였소. 사는 형편이 얼마나 해서 이것저것 물었드니 논이 없어 흰쌀구경은 하기 힘들지만 강낭밥은 배 굶지 않고 먹는다고 하였소. 이곳 농민들이 흰쌀구경을 못한다는 말이 가슴에 걸려 밤새 잠이 오지 않았소.

그래서 내 오늘 다시 왔소. 어데 논 풀데가 없나해서 이 관리위원장이랑 함께 돌아 보았는데 이길 건너 구현리쪽에 이런 강녕이밭이 있지 않

겠소. 강냉이농사만 잘 지어도 흰쌀과 바꾸어 먹을수 있지 않소. 그래 이 길 건너쪽은 다 구현리 땅인가?》

《그렇습니다.》

관리위원장은 고개를 떨군채 웃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조심히 대답을 드렸다.

수령님께서는 두팔로 마른풀침상을 지그시 짚으신채 여자관리위원장을 보시다가 그제야 뚜렷해 진 초막안에 시선을 돌리시였다. 맞은편 당반우에는 책이 빼곡이 꽂혀 있었다.

《이렇게 초막에 앉으니 옛날 일이 생각나누만. 라자구등판에서 만났던 마가성을 가진 로인의 초막에도 저렇게 당반우에 전책이 많았소. <춘향전>이랑 <장화홍련전>이랑 <삼국지>도 있었소.

내가 그 로인에게 이제 조국이 해방되면 어떤 나라를 세웠으면 좋겠는가고 하였더니 조선사람은 대대로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것이 소원입지요. 그 원을 풀어 주는 나라에서 살아 보았으면 한이 없겠소이다 하는것이였소.

그전에는 흰쌀밥을 봉건왕조만 먹는다고 흰쌀밥이라고 하였소.

그래서 우린 해방후에 조국에 돌아 와 토지개혁부터 했지. 전후에는 관개공사부터 내밀었구. 그때 내가 양수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전동기때문에 대안전기공장에 갔던적이 있소.

작업장 한가운데 있는 화독우에 점심밥판들이 놓여 있길래 열어 보았더니 삶은 통강냉이가 골막하니 차 있는 가운데 된장 한술가락이 박혀 있었소.

나는 로동자들에게 이제 기양관개를 하면 흰쌀밥을 먹을수 있으니 전동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소. 그 동무들이 허리띠를 조이면서 전동기를 만들어 보내주었소. 그런데 난 아직도 그들에게 흰쌀밥을 풍족히 먹이지 못하고 있소.》

늘 환히 웃으시며 천하를 쥐락펴락해 오신 수령님의 가슴속에 이런 큰 아픔과 심려가 있다는 것을 예기치 않게 접하게 된 림동휘는 숨 쉬기조차 죄스러웠다. 그 아픔의 직접적책임이 자기들 육종학자들에게 있는것이 아닌가 하고 보면 자신의 고뇌란 밥투정질하는 아이의 응석에 불과한것이였다. 수령님께서 우리 산골사람들에게 흰쌀밥을 풍족히 먹이지 못하는것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었으면 이런 먼 산골 막바지까지 오셨을가...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고기와 알을 먹이고 해도 먹이가 문제야. 이런 산간지대에서 결정적으로 강냉이수확고를 높여야겠는데...》 하시면서 안경을 끼더니 당반앞으로 바투 허리를 굽히시였다. 거기에는 이 초막에 어울리지 않게 금빛장정을 한 로문, 일문, 영문의 원서들도 있었다.

그이께서는 찌미라찌브션집을 뿔아 드시고 책장을 넘기시다가 문득 림동휘쪽으로 시선을 돌리

시였다.

《누가 이런 책을 봅니까?》

구석진 어둠속에 녹아 버린듯 서 있던 림동휘는 흠칫 몸을 떨었다.

관리위원장이 민망스러운지 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게 내질렀다.

《네... 그건 제가...》

《음...》

당반의 책들이 의미심장하셨던지 더 가까이 다가 책이름들을 읽어 보시던 수령님께서 이윽해 서야 허리를 펴시였다. 들보에 매달린 강냉이이삭들을 피여 보시고 한이삭 벗겨 드시였다.

《이게 <속성1호>가 아니요?》

《속성1》호는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받들고 림동휘네가 만들어 낸 첫 강냉이1대잡종이였다. 그것은 옥색혁명수행에서 하나의 귀중한 열매였지만 강냉이키가 균일하지 못하고 우리 나라 기후조건에 순응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좀처럼 극복되지 않았다. 그때문에 연구집단은 몇해째 제자리걸음이였고 림동휘의 올해 시험재배도 신통치 못했다.

그런데 수령님께서 《속성1》호를 알아 보신것이였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고 물으실것이라고 생각하며 림동휘는 숨을 죽이였다. 다행스럽게도 그이께서는 아무말씀없이 이삭을 제자리에 걸어 놓으시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들보의 맨 아래에 걸려 있는 두툼한 육종일지를 벗겨 드셨을 때 그는 눈앞이 아득해 졌다. 겉가위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것이다.

수령님께서는 육종일지를 한장한장 번져 가시며 유심히 읽으시였다. 책장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갈피갈피를 번져 보시는것 같았다. 그랬다. 육종학자의 험치 않은 인생행로가 책장의 갈피갈피에 진한 땀으로 새겨 져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겨운 길인가를 리해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몇이나 있으랴. 저택정원에서 시험포전을 가꾸어 오신 수령님께서는 리해하신다. 림동휘는 그것을 그이의 사려 깊으신 눈빛에서, 이마에 깊이 패이는 주름살에서 느끼였다.

그는 왜서인지 목 놓아 울고 싶었다.

수령님께서 연구소시험포전에 여러번 오셨으나 림동휘에게는 이래저래 가까이 뵈을 기회가 차례지지 않았었다. 천만뜻밖에도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는 기회에 성공의 열매를 내놓아 기쁨을 드리기는 고사하고 얼굴을 들고 땀뿔이나설수도 없는것이 그에게는 무던히도 야속하고 원통하였다. 어째서 운명은 이런 사막스러운 때에, 이 서글픈 초막에 인생에 두번 다시 맞기 어려운 환희의 순간을 서둘러 안아 온것일가.

그때 수령님의 나직한 음성이 천둥소리처럼 그의 고막을 때렸다.

《동무가 림동휘입니까?》

림동휘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예, 제가 바로 그...》
 《음... 림동휘부소장이 이곳에 내려 와 있다고 하더니... 여기서 만나는구만.》
 반가움속에 아픔이 깔려 있는, 측은해 하는 음성이었다. 이름할수 없는 쓰라림이 림동휘의 고패치는 가슴을 훑어 내렸다.
 《제가 그만 수령님의 믿음을 배반하고...》
 《믿음을 배반했다?!》
 차분한 음성이었지만 림동휘는 후려 치는 채찍처럼 매운 맛을 느꼈다.
 《내 동무에게 묻고 싶었됐소.
 동무는 그래 그 종자가 우리 기후풍토에 맞지 않는다는걸 정말 몰랐됐소?》
 《알았습니다.》
 《알았다구?!》
 림동휘는 그이의 부드러운 안광이 불시에 서늘해 지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뚫어 지게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강철의 눈빛을 견디어 내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가. 림동휘는 자기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불 타버리고 량심이라는 형체 없는것만이 서서히 모양새를 갖추고 그이의 앞에 나서는듯 싶어 졌다. 림동휘는 그 량심의 심판을 기다렸다. 수령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결으로 끌어 당기시며 속삭이듯 물으시었다.
 《거기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림동휘는 입술을 파들파들 떨며 사태를 간명하게 설명하려고 애 썼다. 하지만 맥락이 닿지 않는 말마디들이 제멋대로 튀어 나왔다.
 《저...는 재래종보다는 좀 나을가 해서... 과학적담보는 없으면서도... 그래도 나을가 해서...》
 《여기 앉으라구.》하시면서 그이께서는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떨고 있는 그의 어깨를 도닥여 주시었다. 그이의 따스한 체온을 느끼며 림동휘는 진정되어 갔고 이야기도 순탄하게 흘렸다. 농업위원회 책임일군과의 이야기까지 하였을 때 그는 수령님의 숨결이 거세여 지는것을 느끼며 입을 다물었다.
 《왜 그 사실을 제때에 당에 보고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그 일군은 사실을 그대로 당에 보고하지 않았단 말인가. 그는 자기가 어떤 행위를 묵인하였는가를 깨달으며 얼굴이 해쓱해 졌다. 다만 그는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남에게 넘겨 씌우지 않으려고 하였을뿐이었다. 그는 자신없이 중얼거렸다.
 《저는 자신을 설명하는것을 용렬한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게 지식인의 인격이요? 자기 인격이 아니라 당정책을 지켜야지.
 관료주의와 독단이 어느 지경인가 말이요.》
 수령님께서는 숨 쉬기가 가쁘신듯 닫긴 목것을

터놓으셨다.
 《음...》
 수령님의 눈귀에서 강철불꽃이 평곳하였다. 그것은 어스스레한 구석을 적라라하게 밝히는 용접의 섬광 같기도 했고 비단보자기에 감싼 너절한것을 단번에 찢어 발기는 비수의 서리발 같기도 하였다. 그 불꽃에 자신도 초막도 활활 타서 재가 되는듯 싶었다.
 수령님께서 언제 초막을 나서시였는지 그는 알지 못하였다. 열려 진 초막문을 황황히 나서니 가을풀이 무성한 발둔덕에 서계시는 수령님의 모습이 안겨 들었다.
 백두의 눈바람에 그슬린 그이의 근엄한 얼굴을 림동휘는 처음으로 보았다. 그이의 이마전에 드리운 흰 머리오리들이 비수인양 가슴을 어이였다. 새벽이슬에 젖어있었는지 그분의 바지가랭이에는 등고선 같은 얼룩이 저 있었고 가막사리며 속새풀, 도꼬마리씨들이 붙어 있었다. 구두에는 흙먼지가 오르고 앞코숭이에는 진흙이 발려 있었다.
 《담배 없소?》
 곁에 근심스레 서 있던 부관이 난처한듯 우물거렸다.
 《수령님, 저 담배는...》
 《한대 주시오.》
 부관은 눈을 내리칸채 부동자세로 굳어 졌다. 뜻밖에도 관리위원장이 홍초담배를 꺼내들고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렸다. 손님용으로 늘 건사하고 다닌 모양이었다.
 수령님께서는 담배 한대를 붙여 무시고 연기를 깊숙이 들며 마셨다가 후 하고 내뿜으셨다.
 그이의 발치에서 풍성하지도 소담하지도 못한 들국화 한포기가 하소연하듯 바르르 떨고 있었다. 서쪽산마루에서 마지막빛을 아낌없이 뿌리던 저녁해마저 피로와 하시는 그이의 모습을 차마 뵈옵기 어려운듯 구름속으로 슬며시 숨어 들어 갔다. 어둑해 진 골안에는 그이께서 내뿜으시는 연기만이 구불구불 낮추 떠들며 수령님의 심뇌를 그려 가고 있었다.
 지금 그이께서는 주관주의와 독단을 부리고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농업위원회일군에 대해 생각하고 계실것이었다. 자신께서 관리위원장시절부터 손 잡아 키워 주고 높은 직무를 맡겨 준 사람인데 어쩌면 그 지경에 이르렀을가 하고 가슴아파 하고 계실것이었다.
 그이의 손끝에서 담배는 밀등까지 타들어 갔다. 수령님께서는 콩초를 땅에 묻으시고 또 한대를 꺼내드시었다.
 림동휘는 저도 모르게 달려 가 그이의 앞에 어부러지며 담배대를 쥐신 손을 꼭 잡았다.
 《제가... 제가 나쁜 녀자입니다.》
 수령님의 너무나 큰 심뇌앞에서 그는 자기의 고뇌란 얼마나 하잘것 없고 속된것이였는가를 낮

과 밤처럼 뚜렷이 본 것이었다. 대가정의 거창한 세간살이를 맡아 안으시고 품에 키운 술한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이시는 아버지, 너무나 큰 집, 너무나 큰 시름을 안고 계신 아버지께 자기만을 생각하며 투정질을 한 불효자식이었음을 그는 통감하였다.

아, 어째서 유럽의 그 밤 낭떠러지앞에 섰을 때 아버지수령님의 심뇌를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낭떠러지에 떨어 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권력에 맞서 끝까지 싸우지 못했던가.

《저 같은것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못난이들때문에… 아-》

림동휘는 가슴을 쳤다. 땅을 쳤다. 모지름을 쳤다.

《동휘동무, 그만하오.

그만큼 속을 썩었으면 됐소.》

수령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시고 하얀 손수건을 꺼내시여 흠범벅, 눈물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닦아 주시었다. 림동휘는 어린 애마냥 얼굴을 내맡긴채 그냥 흐느끼었다.

새까맣게 탄 얼굴, 눈가의 주름살에 숨배인 흠먼지, 빛이 바랜 머리카락, 그의 얼굴에 내려 덮인 머리칼을 쓸어 올려 주시는 수령님의 안색은 흐려 있었다.

《그새 고생이 많았구만.》

《아닙니다. 저는 더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자기 책임을 못하다보니 모두 파오를 범하게 했습니다.》

《됐소. 자기비판은 그만큼 했으면 됐소.

참 점심이나 들었소? 남비에 밥이 그대로 있지.》

부관이 수령님께서도 점심전이라고 말씀 올렸다.

《나도 출출하오.

부관<각하>, 뭐 좀 먹을게 없소?》

돌처럼 굳어 젖던 부관은 그제서야 화색을 띠며 들고 있던 가방에서 준비해 가지고 다니던것을 꺼내놓았다.

흰 종이우에 깨잎으로 싯 밥과 빵, 오이절임, 고추장과 풋고추 여러문개가 놓였다.

《수령님, 저의 집으로 가십시다.》

아직도 눈이 빨갛게 짓물려 있는 관리위원장의 청에 수령님께서는 웃으시며 손을 내저으시었다.

《씨암답을 잡자는게 아니요? 들판에서 먹는 맛 이 별미야. 가서 샘물이나 떠오라구.》

림동휘는 수령님께서 집어 주시는 빵을 한입 떼며 물었으나 넘길수가 없었다. 더갈라 지고 턱지가 앉은 그의 입술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 따듯이 물으시었다.

《육종사업이 힘들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소? 녀성이…》

림동휘는 장학금을 아껴 어머니에게 흰 고무신을 사가지고 갔던 방학때의 일을 말씀 드렸다.

《어머닌 기뻐 하실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이였습니다. <너 그 장학금이 어떻게 번 돈인지 아니? 모두 배를 고으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번것이야. 인사를 하려거든 그들에게 해라. 공불 더 잘해서 쌀이 뒤말썹 쏘아 지는 나무를 만들려무나.> 하시는것이였습니다.》

그의 눈귀에는 맑은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들이란 다 그런분들이지.》

수령님께서는 추연한 눈빛으로 불그레 물들어 가는 하늘 저끝을 바라보시었다. 좁쌀 한말을 지시고 찾아 가셨던 소사하의 아릿한 추억을 더듬으시는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돌아 가신 뒤 동생들을 맡아 키우면서 전 어머니구실을 한다는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습니다. 가을한 남새밭에서 시레기를 주어가 죽을 썬서 한사발씩 떠주면 어느결에 다 비우고 내 얼굴을 쳐다보는데 정말…

전 그때 어머니부락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종학을 선택했는데 아직도 어머니 소원을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음, 그랬구만.

그러니 우린 처지가 같은셈이요. 동무도 어머니가 안 계시고 나도 그렇고… 동무는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고 나는 인민에게 빚을 지고 있고, 안 그렇소?》

림동휘는 처음으로 방그레 웃었다.

수령님께서는 자꾸만 시계를 들여다 보는 부관을 흘끔 쳐다보시더니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동무는 왜 그리 울상이요. 정치위원회 결정을 위반한다고 총비서를 문제 세우자는게 아니요.

내 오늘 참 기분이 좋소. 이 골안에 왔다가 지기를 한사람 얻었던 말이요. 이게 얼마나 큰 후식인지 동무넌 다 몰라.》

수령님께서는 뒤집을 지신채 발머리를 천천히 걸으시었다. 저녁해살을 받은 강냉이포기들은 마치 레복에 금술을 두르고 열병식에 나온 병사들마냥 번쩍거리며 그이앞에 까딱 앉고 서 있었다. 열병식대오를 사열하시듯 그앞으로 천천히 걸으시던 수령님께서 림동휘에게로 돌아 서시었다.

《동휘동무, 내 진작 동무를 만나고 싶었댔소.

나는 동무가 어디신가 림동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리치길 바랬소. 그런데 이 강냉이밭이 나를 불렀단 말이요.》

천길폭포가 내려 쫓는듯 한 충격에 림동휘는 휘청거렸다. 관리위원장이 진작 부촉해 주지 못한것을 사죄하듯 그의 허리를 꼭 그러안아 주었다.

사람은 고통만을 이겨 내기 어려운것이 아니라 기쁨도 그것이 엄청난것일 때에는 이겨 내기 어렵다는것을 그는 알았다.

가을의 다양한 향기를 실은 선들바람이 그의 화끈거리는 두볼을 살뜰히 어루만지었다. 인적 드문 쇠지골의 뜻밖의 경사를 위해 화려한 단풍 옷을 펼쳐 입고 나선듯 싶은 쇠지산의 나무숲도 기쁨에 설레이며 춤을 추고 산새들은 축하의 음악을 연주하는상 싶었다. 샘터쪽 밤나무에서 툭툭 떨어 지는 밤송이들도 그 선들에 타악기의 리듬을 보태는상 싶었다.

림동휘는 적막하기 그지없었던 쇠지골안을 새로운 눈으로 둘러 보았다. 여기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시련을 겪기전에는 참다운 인간인지 아닌지 가늠하기 어렵다. 고난과 시련속에 세워 놓아야 인간의 진면모가 드러나고 금새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식의 성장을 두고 기뻐 하시는 아버지처럼 환히 웃으시고 계시었다.

《사람의 일생에는 많은 시련의 고비가 있기 마련이요, 우리도 별의별 고생을 다 겪어 보았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소. 천교령의 밀림에서 축한을 만났을 때도 그랬고 고난의 행군때에도 오늘 여기서 마지막결사전을 해야겠구나 하던 때가 몇번인지 몰랐소. 조국해방 전쟁때에도 그에 못지 않은 시련을 겪었지.

그러나 우리에게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때는 믿음을 주었던 사람의 배신을 보는 때였고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것을 알았을 때였소.》

수령님의 음성은 갈리시였다.

림동휘는 수령님 앞머리의 흰 서리를 아프게 바라보았다. 저 한오리한오리에는 얼마나 큰 아픔과 심려가 숨배였을가.

그러나 수령님께서서는 다시금 락관에 넘친 밝은 표정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무리 피로운 일이 많다 해도 우린 주저 앓을 권리가 없지 않소. 동무는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고 나는 인민에게 빚을 지고 있으니 말이요.

정초에 정치위원회에서 최근년간 농사가 잘 안되는 원인을 심각하게 분석하고 생산을 저해하는 병집인 관료주의, 주관주의에 투쟁의 불을 달았소.

올해부터 내가 직접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었소.

동무들이 사령관을 잘 도와 주시오.》

《알았습니다, 수령님.》

림동휘와 관리위원장은 합창하듯 대답 올리며 그이의 량팔에 아이들처럼 매달렸다.

《어떤 때가 제일 기쁘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가 우리에겐 제일 기쁜 때요.》

그이께서는 마냥 기꺼우신듯 껄껄 웃으시였다.

쇠지산우에서는 황홀하게 아름다운 저녁노을이 빨갭게 타고 있었다. 동휘는 그 고운 노을이 오래오래 붉게 타기를 바랐다. 그래서 이제 수령님

돌아 가실 흙토길우에 노을빛주단으로 깔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기쁨과 행복, 마음속 열광으로 몰라 보게 젊어지고 아름다와 진 림동휘의 모습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느닷없이 물으시였다.

《지금 몇살이더라. 58년도 종합대학 졸업생이니까 마흔이 넘었겠구만.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집은 어떻게 하오?》

림동휘가 고개를 떨구며 대답을 올리지 못하자 관리위원장이 대신하여 독신이라고 말씀 올렸다.

환히 빛나시던 그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져 갔다. 림동휘는 붉게 타던 노을이 슬며시 스러지는양을 고통스레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 나라에 동무를 사랑해 줄 남자가 한사람도 없었던 말이요.》

앞산 떡갈나무숲에 깃들었던 새들이 푸드득 날아 올랐다. 까투리를 부르느라 꺾꺾 울며 푸드득거리던 장기가 게면쩍은듯 잠잠해 졌다.

《일곱동생 살리느라고 언제 제 머리 없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고 관리위원장이 능쳐 보려 하였으나 수령님께서서는 종시 노여움을 푸시지 못하였다.

림동휘는 그이의 눈길에서 피해 보려고 해벌에 타고 들바람에 거칠어 진 얼굴을 외로 돌렸다. 흙물이 든 작업복바지가랭이와 흙매닥질한 편리화를 감추어 보려고 풀덤불속으로 슬그머니 비켜섰다. 그러나 황토먼지가 올라 할머니들처럼 휘뿌애진 머리칼을 아프게 바라보시는줄은 알지 못하였다.

풀안에는 샅시에 저녁어스름이 깃들었다.

《갑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벌써 언덕을 성큼성큼 오르고 계시였으나 림동휘는 인사도 드릴념을 못하고 뒤에 멍청히 서 있었다. 그이께 또다시 심려를 끼쳐 드렸다는 죄스러움에 기운이 몽땅 빠져 버린듯 했다.

《림동휘동무, 왜 그러구 서 있소. 함께 갑시다.》

큰 길가에 나가니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림동휘를 자신의 곁에 앉히신 수령님께서서는 육종사업에서 무엇이 걸려 애를 먹는가고 물으시였다. 림동휘는 혼자만 안고 속을 태우던 고충을 죄다 말씀 드렸다. 우리의 기후풍토에 맞는 종자를 만들자면 키가 작고 울되는 종자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키가 크고 늦되는 종자에 비해 수확이 떨어 지는것이 하나의 법칙으로 되어 있었다. 키가 작고 울되면서도 수확이 높은 종자를 육종하자면 새로운 법칙에 따르는 육종법을 발견해야겠는데 그것이 좀체로 해결되지 않았다.

《새로운 법칙에 따르는 육종법을 발견하지 못

하고 있다...

내 동무의 육종일지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이삭이 큰 하나의 개체를 대상으로 연구할것이 아니라 무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거요.》

림동휘는 기발한 착상이 떠오를 때처럼 가슴이 후두두 뛰었다.

《이것 보오. 큰것 하나보다 작은 여러개가 힘이 있소. 하나의 개체를 놓고 볼 때는 이삭이 작을수 있지만 키 크고 이삭이 큰 강냉이를 드물게 심는것보다 키가 작고 올되는 종자를 배게 심을 때 수강냉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수확이 훨씬 높아 질게 아니요.》

《아마나, 그렇게 단순한걸.》

환성을 올리는 그의 검고 그윽한 눈은 정채를 띠고 번쩍였다. 그는 마치 자기가 우주비행선을 타고 심원한 과학의 세계에 탐험을 가는것 같은 신비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혔다.

차가 멈춰 섰다. 뜻밖에도 당현협동농장 상점 앞이었다.

관리위원회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 와 수령님께 인사를 올리였다. 림동휘는 그들속에 끼인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을 알아 보았다. 아마도 수령님께서 당현협동농장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온듯 하였다.

그들을 데리고 상점에 들어 가셨던 수령님께서서는 몹시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였다.

《농촌상점에 녀자들 머리수건이 오지 않는다.

안되겠소. 농사철에 나와 보면 남자들은 가방을 끼고 회의나 다니고 땀별에서 허리를 꼬부리고 김을 매는게 녀자들이 아니요.》

어둠의 장막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영위원장동무는 쇠지골에 가봤소?》

《...》

경영위원장은 고개를 숙인채 미처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삼고초려>란 말을 아오?》

《...》

《그건 중국력사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인데 류비가 재사인 제갈량을 그의 초가에 세번이나 찾아 가서 모셔 왔다는데서 유래된 말ियो.

그런데 동무들은 제 고장에 스스로 찾아 온 인재도 몰라 본단 말ियो.

쇠지골 림동휘동무의 강냉이시험포전에 한번 가보오. 이 고장에서도 강냉이수확고를 넉군히 높일수 있소.

동무들도 참, 그가 어떤 인재인줄 아오? 우리나라 강냉이육종학에서는 권위자란 말ियो.》

림동휘는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농촌상점결에 있는 아름다리 들메나무옆으로 몸을 숨기였다. 저녁어스름이 다행스럽게 여겨 졌다.

《육종학자가 좋은 종자 한알을 만들자고 일생

을 바치는 경우가 많소. 나라가 인재 한사람을 키우는데는 그보다 더한 품이 드오. 그런데 동무들은 우리 당이 공들여 키워 낸 인재들을 대수롭지 않게 마구 다룬단 말ियो.

솔직히 말해서 경영위원장자리에는 누구나 앉을수 있지만 림동휘동무 같은 이런 인재들을 대신할 사람이 있겠소?! 그네들은 민족부흥의 재부중의 재부란 말ियो.

내가 이번에 농업부문 사업을 료해하면서 일군들의 관료주의, 주관주의사업작풍에서도 가장 가슴아프게 생각하는것이 과학자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재능을 존중하지 않는 그것이였소. 과학과 기술, 인간의 재능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높은 곳으로 도약할수 없소. 좋은 종자를 땅에 묻지 않고는 높은 수확을 기대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말ियो.

내 동무들에게 부탁하는데 농사군이 좋은 종자를 아끼듯이 인재들을 아끼시오. 그리고 저 림동휘동무를 잘 돌봐 주오. 그가 자신을 이겨 내도록 말ियो.》

《알았습니다, 수령님.

저희들이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래 주오. 그러면 내 한시를 놓겠소.》

림동휘는 쏟아 지는 눈물을 건잡을 길 없어 눈을 습벅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노을은 사라지고 검푸른 하늘에서는 하나둘 별들이 돋고 있었다.

이튿날 쇠지골로 수령님의 부관이 찾아 왔다.

부관은 수령님께서 보내시는 참고서적들과 머리수건 한매를 가지고 왔다.

가을하늘처럼 파아란 바탕에 흰 들국화가 가장자리에 수 놓아 저 있는것이였다.

림동휘는 그 머리수건이 흠뻑 마음에 들었다. 봄내 여름내 날 좀 보세요 하고 다투어 피여 나던 못꽃들이 다 스러진 마가울에 조국강산에 꽃이 없으면 어찌나 하고 찬서리 내리는 들판에 서 습없이 피여 나는 들국화를 더없이 사랑하는 그였다. 파란색은 청춘과 희망의 상징일것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녀성은 아름다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얼굴이 타지 않게 머리수건을 꼭 쓰고 일하라고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또 <이제 들국화를 사랑하는 남자가 나타날게요. 그땐 나에게 편질 하라구 하오.> 라고 당부하시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

림동휘는 머리수건을 그러안은채 오래도록 흐느끼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가을날이였다. 이곳 산간역흥에는 평양행 열차를 기다리는 녀인이 있었다.

림동휘였다. 그는 가슴에 파란 머리수건에 싰새 강냉이종자를 꼭 붙안고 있었다.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리

(캄보자) 누트 나랑

1912년 4월 15일은 새기네
조선의 새 력사, 인류의 새 력사를
만경대에 솟아 오른 위대한 태양
누리에 찬란한 빛을 뿌리네

온갖 꽃 만발하여 향기 풍기고
남녀로소 기쁨에 겨워
이날을 노래하나니
김일성 그이의 탄생일은 인류의 명절

김일성 그이는
밝은 빛 뿌려 검은 구름 밀어 내고
억압 받는 모든 사람들 해방시키셨네
인류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 주셨네

력사상 처음으로
인류는 높이 받들어 모셨네
조선에서 솟아 오르신 만민의 태양
위대한 **김일성** 주석을

김일성, 김일성
그이는 찬란한 태양의 빛발로
온 세계를 한품에 안아
천만사람의 삶을 꽃 피워 주신분

김일성, 김일성 그 이름
순간도 못 잊어 세상사람들
얼마나 바라고 바랐던가
그이 태양으로 영생하시기를

가사

만민의 간절한 그 소원
오늘 현실로 꽃 폈거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실현하시였어라

그이의 현명한 령도아래
위인의 력사 끝없이 흐르는
주체의 최고성지 하늘높이 솟았고
위대한 성인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여라

나에게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단호한 이 선언, 세계는 들었다
선대수령의 위업 변함없이 계승완성하시려나
김정일 그이의 철석의 의지를

세계를 다시 한번 격동시키는
주체년호와 태양절의 제정
세상사람들 빛나는 주체의 태양
그 위대함을 심장으로 절감했나니

김정일 그이는
사상과 향도
신념과 의지의 태양
만민을 매혹시키시는 절세의 위인이시여라

만민이 우러르는 주체의 태양
김정일 그이 모시여
태양의 위업은 영원하리
태양의 력사는 영원하리

그 처녀 맑은 눈동자

최충웅

내 고향 넓은 벌에 감자꽃 필 때
그 처녀 눈동자 더욱 고왔네
향기로운 꽃속에서 웃는 그 눈빛
제대병사 이 가슴 설레게 했네
아 그 처녀 맑은 눈동자

장군님 걸어 가신 발이랑우에
뜨거운 정성을 묻는 그 마음

별빛 같은 눈동자에 어리어 있어
불수록 정답고 아름다웠네
아 그 처녀 맑은 눈동자

언제나 감자꽃 보고 싶듯이
언제나 보고 싶은 그 처녀 눈빛
한생토록 그 눈빛 곁에 보면서
알찬 열매 함께 가꿀 가슴 불 탔네
아 그 처녀 맑은 눈동자

태양과 인간

홍현양

세대는 어떻게 이어 지는가?

진리의 빛발이 뜨거운 피가 되어 심장과 심장을 이어 주며 해와 년대를 넘어 투쟁의 기치를 넘겨주고 있다.

진리는 기치를 낚고 기치는 사람들을 투쟁으로 부르고 있다.

인류력사 수백만년을 헤아리는 세월의 갈피를 번져 보면 피와 눈물, 고통과 시련의 언덕을 넘고 헤치며 압제의 사슬을 부시고 자유의 푸른 하늘을 목 마르게 그려 본 꿈의 세계가 찍혀 저 있다.

자유는 무엇이길래 오늘도 인간이 제나름대로 찾고 있는 희망의 봄날로 펼쳐 저 있는것인가?

인간이 바라는 자유는 하늘의 신이 주는것도 아니며 절대리념속에 간직되어 있는것도 아니다.

자유는 인간생활의 본질을 밝히고 나아갈 길을 과학적으로 제시해 주는 사상리론속에 있으며 그것이 구현된 사회와 그 현실속에 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회를 찾기 위하여 수백만년을 걸어 왔고 지금도 쉬임없이 가고 있다.

어느 한 나라에 사는 10살미만의 흑인아이들이 《자유》라는 제목으로 쓴 작문 몇토막을 잠시 읽어보자.

《자유, 이것은 백인들이 흑인을 보고 모욕하지 않게 되는 때이며 흑인들이 백인처럼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되며 흑인처녀애들이 백인처녀애와 놀자고 할 때 거절을 당하지 않는것이다.》

《자유는 채찍에 맞지 않으며 물 길러 물통지계를 지고 다니지 않으며 한지에서 자지 않게 되는 때이다.》

《자유, 이것은 자기의 견해를 표현하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모든것을 반대할수 있는 권리이다.》

온갖 예속과 압박, 굴욕적인 인종차별과 채찍에 얻어 맞는 강요된 고역,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서글픈 동심이 가슴속에 파고 든다.

새 세기에 들어 선 이 시각에도 수천년전 저 아득한 인류사회의 유년기에 봉기한 노예들이 자기들의 기치에 새겼던 《노예도 사람이다!》라는 피의 글발을 되새겨 준다.

리성과 사랑과 태줄 묻은 고향을 가진 사람이였지만 멍에를 걸머진 노예인 탓에 말하는 로동도 구였으며 팔려 가고 찢겨 죽으면서도 그 어디에 하소연 한마디 할수 없던 운명의 소유자들이었

다.

《노예도 사람이다!》, 이 말은 인류가 자유를 바란 피의 웨침이었다.

자유는 사람만이 누릴수 있는 삶의 권리이며 이 권리는 참다운 사상만이 가져다 줄수 있다.

이 진리를 알수 없었던 탓에 자연의 우뢰와 번개불속에서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힘의 위력을 느끼며 자신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건 《10계명》을 석판에 새겨 등에 지고 인류의 락원을 찾아 모래바람 휘몰아 치는 사막과 눈 덮인 험산준령을 넘으며 대륙과 대륙을 횡단한 민족의 대이동도 있었다.

하늘의 태양에 자기들의 운명을 맡기고 그와 더 가까이 살고 싶은 소원을 안은채 첩첩 안데스의 산발을 뚫아 올라 신전을 세우고 도시들을 건설했던 인가제국의 력사도 망각의 안개속에 묻혀 버렸다.

침략자들을 때려 부시고 로획한 무기들을 녹여 거대한 태양신의 동상을 주조하여 세웠던 로도스섬의 신화도 전설로만 남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여,

인류가 이처럼 하늘의 태양을 우러러 바라보고 또 바라던 간절한 숙망인 자유와 인간, 세계의 주인의 지위에 관한 진리를 과학적으로 밝힌 영생불멸의 사상이 혁명의 성산 백두령봉에서 화물로 타올랐으니 평양의 주체사상탑을 바라보시라.

인류의 태양이 솟아 오른 만경봉에 올라 보시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하느님을 믿지 않지만 우리 수령님은 하늘이 낸 위인이시라고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벗도 자기는 지금까지 하느님을 믿지 않았지만 김일성주석님만은 하느님처럼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늘처럼 모시는 인류의 태양이 바로 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다.

때문에 자유와 인간문제는 곧 태양과 인간문제로 정립된다.

태양이 열과 빛으로 인류에게 삶을 준다면 위대한 수령은 과학적인 사상과 인덕으로 인민대중

을 력사의 주체로 키우신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의 사상과 철학은 태양의 빛이며 사랑과 인덕은 태양의 뜨거운 열이다.

인류의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이시야말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사상을 구현한 만민평등사회를 이 땅우에 이룩하신 사랑과 인덕의 화신이다.

자유는 자주적인간에게만 속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을 자주적 인간인 력사의 주체로 키워 주심으로써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권리를 주시였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것도 아니며 사치와 방탕속에 무제한한 시간을 독점하는것 역시 자유가 아니다.

이것은 돈의 노예, 물질생활에서의 기형아박에 낳을것이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온갖 예측과 압박에서 우리 인민을 해방시켜 주시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사회제도를 마련해 주시였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인간이다.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 배울 걱정, 치료 받을 걱정, 일자리걱정을 모르고 살아 가는 사회, 거리와 마을 그 어디를 가보아도 모든 성원들이 동지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친형제처럼 화목하게 행복을 누려 가는 주체의 조국이 인류가 바라던 낙원의 땅이다.

물론 아직 부족한것도 있고 새롭게 일떠세워야 할 생활전들도 있지만 래일을 위한 오늘에 바쳐가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있어 우리는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갈줄 안다.

자기 하나를 위한 삶은 이 땅에 뿌리 내릴 자리가 없다.

꽃이라는 말속에 향기와 아름다움의 총체가 있듯이 동지라는 이 말속에 호상존중, 인간평등의 뜨거운 정이 굽이치고 있다.

한사람의 아픔이 동지전체의 아픔이 되고 동지 하나의 기쁨이 사회전체의 환희가 되고 조국의 웃음이 되는것이 이 땅의 룬리이고 도덕이다.

남이 남을 구박하면 그자체가 자기자신에 대한 예측을 낳으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면 그 민족자체가 자유로울수 없다는것이 력사의 룬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지 한사람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루밤에도 백두의 수백리 험난한 길을 넘나드시며 주체혁명의 길을 개척하시였고 망국노의 설움속에 갈 길 몰라 헤매이던 우리 겨레를 혁명의 한 대오속에 세워 주시였다.

이렇듯 혁명은 동지이고 동지는 사랑이며 사랑

은 새 세계를 창조한다.

인류의 태양만이 안겨 줄수 있는 동지애의 이 위대한 사랑이 있어 간악한 압제의 어두운 세계인 일제를 때려 부시고 자주적인간의 세계인 독립되고 자유로운 조선을 안아 올수가 있었다.

때문에 만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생의 어머니이며 창조의 빛인 태양으로 모시고 우러르며 따랐고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믿고 사랑하시였다.

태양과 하늘이 떨어 저 있을수 없듯이 태양과 인간, 수령님과 인민대중은 이처럼 혼연일체의 뜨겁고 열렬한 하나의 세계이다.

사람들이 바라고 소원하던 그 속망이 주체의 태양이 솟아 올라 누리에 찬란한 현실로 꽃 피어나 만민의 칭송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유럽의 어느 한 녀류작가는 태양과 인간, 이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는 생활의 품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함을 모른다. 주민들은 명랑하고 걱정이 없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라고들 말한다.

김일성 주석께서는 자신께서 원하시건 원치 않으시건 신의 지위에 추대되시였다.

조선사람들의 굳은 신념이 부럽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태양의 빛과 열을 지니신 위인만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보살필수 있으며 자기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안겨 준 그러한 위인만을 인민대중은 신의 지위에 모시고 절대적으로 숭배하는것이다.

그 신의 지위가 태양의 지위이며 그 지위에 위인을 모신 인민대중이 바로 세계의 주인인 인간이다.

태양과 인간문제에 철학적해답을 준 이 빛나는 현실이 우리 주체조국의 어제와 오늘이며 또 래일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의 눈보라 만리길을 헤쳐 온 우리 인민은 지금도 포전길을 걸으며 그이를 생각하고 어촌마을의 안개 낀 새벽에도 배전에 오르셨던 그이의 모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산다.

세월이 아무리 길다 해도 아버지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을 인민의 마음속에서 지울수는 없다.

이 세상에 상봉과 리별이 시간의 분과 초와 같이 쉬임 없는 교차속에 이어 진다 해도 태양과 인간사이에는 떨어 짐이 있을수가 없다.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오늘날 아이들의 학습장을 보아 주시고 로동자들의 합

속에 들리시여 반찬의 가지수도 헤아려 주신다.

일기예보를 들으시며 때 이르게 찬서리가 내릴
령북방의 농사형편을 심려하시며 또다시 현지도
도의 먼 길을 떠나신다.

그래서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집무렬차의 벽시계는
이 시각도 한초도 어김없이 정시를 가리키고 있
다.

우리 혁명, 우리 조국의 전진하는 생활은 그
시간에 맞추어 사소한 동요와 편향도 없이 오직
앞으로 강성대국의 래일을 향하여 달려 가고 있
다.

사람들이여,

잠시 귀 기울여 들어 보시라.

조국이 아직 잠에서 깨여 나지 않은 이른 새벽
에 연백벌의 토지정리전투장에 아버지수령님께서
문득 찾아 오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담하게
작전하시고 구상하신 땅의 새 력사가 어떻게 장
엄하게 펼쳐 지고 있는가 하는것을 만족하게 바
라보시며 조용히 걸으시는 그 발자욱소리가 들리
지 않는가!

최전연 1211고지와 대덕산초소, 녀성해안포중
대를 찾으시며 천만리 눈보라치는 전선길을 오가
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격
려도 하시고 병사들에게는 최고사령관을 잘 받들
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고 간
곡히 말씀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음
성이 들리지 않는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오늘도 이렇
게 함께 계시며 우리 인민과 우리 당을 이끌고
계신다.

인민의 행복이 대를 이어 꽃 필수 있는것은 위
대한 수령의 령도가 대를 이어 계승되는 조건에
서만 이루어 질수 있다.

태양의 빛발은 태양만이 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
신 위대한 **김정일**장군이시야말로 태양의 위업을
계승하신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은 태양
복이며 이것이 인류가 수백, 수천년동안 안고 싶
어하던 인간복이다.

이런 의미에서 태양과 인간, 이 문제는 대를
이어 계승되는 수령과 인민과의 문제이며 철학이
라고 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였기
때문에 우리 인민은 태양을 잃지 않았으며 가장
어렵고 시련에 찌던 《고난의 행군》길도 승리로
결속 짓고 강성부흥의 새 세기에로 치달아 오를
수 있게 되었다.

파란 많고 풍과 사나운 혁명의 길에서 해일처
럼 덮쳐 드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정
의의 총대로 눌러 버리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의 기치를 높이 드시였기때문에 우리 아
이들이 매일 오가는 즐거운 학교길에 폭탄 하나
떨어 지지 않았고 태양절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의 막은 어김없이 제 시간에 열렸다.

태양이 있어 4월은 아름답고 사람들의 출근길
에 그들이 없으며 백두삼천리에 감자꽃은 만발하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의 길이
새 세기에로 곧바로 이어 진 그 진두에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 가시는 그 길이 바로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않고 래일을 위한 오늘
에 사는 우리 식 조선혁명의 길이다.

하루집무를 마치신 새벽 3시에 또다시 현지도
의 길에 오르시며 수행한 나이 많은 일군들을
깨우지 말라고 이르시며 쫓기발을 야전차에 싣고
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금방 뵈옵는것만 같아
소리를 죽이며 울음을 삼키었다.

위인의 모습에서만 수령의 모습을 다시 뵈을수
있다.

위인이 인민들을 찾아 가시는 공장구내길과 농
장의 이슬 내린 들길, 새로 지은 문화주택의 밝
은 불빛아래 태양과 인간은 함께 있다.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 달라고 귀속
말로 간절히 청을 올리는 소박한 농촌녀인의 부
탁도 허물없이 받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인품에 매혹되어 우리 인민은 한없이 흠모하며
따른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는 철학이 여기에
있으며 래일을 걱정하지 않고 이불을 퍼는 근심
없는 밤이 이 땅에 흐른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였기때문에 조국의 날과
달은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있는 세월이며 년대
들이다.

조국의 해와 달은 주체년호속에 흐르고 빛나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세기와 세기를 이
어 빛내여 가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시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시기 위하여 높이 추
켜드신 선군정치의 기치우에 백두의 불바람이 세
차게 나래친다.

이 기치우에 강성대국의 래일과 위대한 수령님
께서 찾아 주신 인간의 자주적삶이 영원히 새겨
져 있다.

인간이 사랑하는 붉은 빛이 물들어 영생하는
진리의 기치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
은 영원불멸할것이다.

빛발은 태양의것이다.

자유는 인간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풍운조화를 일으킨 렬차

언제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공산당계의 한 일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을 참관하고 외사일군을 만나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이 렬차가 바로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소련을 방문하실 때 타고 오시였던 그 렬차입니까?》

그렇다고 하자 그는 감개무량하여 이윽도록 차체를 눈길로 쓰다듬다가 우리 일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우리 씨비리사람들의 구세주였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도 잊을수 없습니다.

자그마한 땅도 아닌 광활한 씨비리가 메달라들때 이 렬차가 풍운조화를 일으키며 달린 이야기는 지금도 씨비리와 온 로씨야땅에 전설로 전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군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뜨거운 감회에 젖어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렬차를 타시고 이전의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방문하시며 세계정치사에 대회오리를 일으킨신 장장 6만여리의 로정우에는 참으로 얼마나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연연 수 놓아 졌던가.

그것은 말 그대로 신비와 전설의 6만리였다.

외사일군은 로씨야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씨비리를 횡단하던 그날의 일화들을 회고하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씨비리지방을 횡단하신것은 주체73(1984)년 5월이었다.

씨비리지방으로 말하면 우랄산줄기 동쪽기슭으로부터 태평양이 출렁이는 연해변강에 이르기까지의 광활한 땅으로 이전 소련령토의 40%, 아시아주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다.

씨비리는 3개의 경제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랄로부터 노보씨비리스크까지의 지역을 서부씨비리라고 하고 노보씨비리스크로부터 바이칼호까지의 지역을 동부씨비리라고 하며 나머지 동쪽지역전부를 원동이라고 부른다. 일망무제한 대밀림지대와 가도 가도 끝 없는 대초원지대인 이 씨비리에 있어서 자연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은 하늘이 내려주는 비라고 할수 있었다.

수목이란 수분을, 더 정확히 말하면 비가 없이는 살수도 풍성해 질수도 없는 법이다. 따라서 풍만한 씨비리의 대자연은 하늘의 비를 전제로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주체78(1984)년 씨비리사람들의 기억에도 생생한 그해 봄은 씨비리대지에 비를 내려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해 봄철에 접어들면서 씨

비리의 대지는 비 한점 없이 초원을 휩쓰는 메마른 바람에 휩싸여 있었다. 이 메마른 바람은 가축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곡식과 온갖 먹이풀들을 말라버리게 했으며 수림지대의 여기저기에 산불을 몰아 오고 있었다.

이러한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중앙의 일군들로부터 시작하여 씨비리지방의 남녀로소들에 이르기까지 타드는 가슴을 안고 매일과 같이 울려다 보는것은 하늘이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렬차를 타시고 소련의 국경역이며 씨비리의 시작점인 자바이칼스크로 가고 계시였다.

소련대백과사전에도 오르지 않은 치따주의 자그마한 구역소재지인 자바이칼스크가 대변에 정계와 사회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신문, 방송, 통신들의 초점으로 세계의 면전에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날 위대한 수령님의 대외활동을 보좌해 드릴 중임을 안고 그이를 모시고 씨비리에 들어 서던 수행일군의 한사람인 전정학은 몹시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방문 첫 걸음부터 날씨가 신통치 못하여 수령님께서 진행하셔야 할 대외활동과 그이의 건강이 못내 걱정되었기때문이었다.

창밖은 온통 갇혀 먼지와 메마른 바람이 불어 치는 아찔러운 소음으로 가득 찼었다.

이제 자바이칼스크에 도착하면 영접행사가 진행되기로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슴만 조여 지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창밖의 날씨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진행할 대외사업의 일정을 검토하고 계시였다.

《수령님, 이제 자바이칼스크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전정학의 보고를 받으신 수령님께서서는 그제야 얼굴을 드시며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순간 그의 눈길이 씨비리의 땅야를 휘그어 먼지에 휘말린 뿌연 하늘을 쪽 갈랐는데 그로부터 이상한 현상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바이칼스크역에 들어 서시고 군중의 환호가 터질 때를 즈음하여 하늘이 갑자기 사납던 바람을 잠 채우고 흙먼지를 씻은 듯 가시는것이였다.

그뿐아니라 바깥 말라 숨 쉬기도 가쁘던 대기는 어디에서 실려 왔는지 알수 없는 습기까지 머금고 있었다.

너무도 신기한 일이였다.

그리하여 치따주당 제1비서는 자기의 감동된

속마음을 감추지 않으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좋은 날씨를 가져다 주시여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내가 좋은 날씨를 가지고 온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따듯이 맞이하려고 좋은 날씨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이렇게 겸손히 말씀하시였으나 씨비리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렬차가 자바이칼스크역에 들어 서자 사나운 날씨가 패청해졌고 그이께서 타신 렬차가 그 역을 떠나 씨비리대평원에 들어 섰을 때에는 신기하게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때문이었다.

하늘은 마치도 이날을 기다려 준비한듯 비를 내려 주었다.

렬차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이 비는 렬차가 치파와 우데시, 크라스노야르스크, 씨비리의 《수도》라고 불리우는 노보씨비리스크 등 씨비리의 전 구간을 횡단하는 기간 땅이 폭 젖을 정도로 흠뻑 내리였다. 이전 쏘련사람들이 더욱 신기하게 여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신 렬차가 도중역들에 도착하기전까지는 비가 오다가도 역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비가 멎곤 하였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오게 해주고 비가 오면 비를 멈추게 해주는 이 렬차의 조화야말로 전정학을 기쁘게 하면서도 의아하게 만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 일주일간이나 모스크바를 향해 전속으로 달리는 렬차에서 휴식을 모르고 달리는 렬차안을 《집무실》로 삼으시며 이전 쏘련의 영접간부들을 만나주시고 수원들에게 앞으로의 사업일정도 알려 주시였다. 이 기간 그이께서는 렬차에서 봄날의 하루해를 맞으시고 씨비리특유의 풍치인 붓나무숲속에 비긴 저녁노을을 바라보시며 저녁을 맞으시고 한밤을 지새우기도 하시였다.

렬차가 이르는 곳마다 신비한 일은 계속되였다.

에니쎬이강과 까즈강의 합수목에 위치한 크라스노야르스크시는 이틀전부터 눈이 내렸으나 렬차가 도착하는 날에 언제 눈이 왔던가 싶게 활짝 개이였다.

외사일군 전정학은 처음처럼 놀라는것이 아니라 의례히 그래야 되는것처럼 느껴 지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늘에 무슨 지시를 주시는듯 싶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매 걸음 걸음 천태만상이던 하늘이 하나 같은 모양을 갖추고 그이를 맞이한단 말인가.

전정학은 자신의 느낌이상으로 온 로씨야땅이 놀라움을 안고 설레이는것을 보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변강과 주조재지를 지나실

때마다 마중 나온 주당제1비서들과 군관구사령관들은 전정학에게 무슨 비밀이야기이거나 하듯이 낮은 목소리로 이 렬차가 씨비리대지에 비를 가져다 준 그 렬차인가 묻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신기한 자연현상은 씨비리지방에만 국한된것이 아니여서 이전 쏘련사람들은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사실 렬차가 씨비리대지를 횡단하고 모스크바를 점점 가까이 하고 있을 때 렬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이전 쏘련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날씨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었다.

자바이칼스크에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영접을 책임지고 오는 이전 쏘련측대표로서 이 그칠줄 모르는 비가 씨비리에는 생명수이지만 이제 모스크바에서 벌여 질 성대한 환영행사에는 지장이 되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모스크바에 수시로 날씨를 문의해 보았지만 지난 밤에 이어 새벽까지 비가 그치지 않고 있으며 우뢰와 번개까지 친다는 소식뿐이였다. 쏘련력사에 다시 없을만큼 성대하게 조직한 대환영행사가 비때문에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었음을 걱정하며 그는 종내 자기의 걱정을 수원들에게도 비쳤다.

《야단났습니다. 모스크바의 날씨는 내가 잘 압니다. 이런 비는 며칠 두고 실컷 내리고야 그만두는 법입니다.》

외사일군인 전정학도 함께 걱정하는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대책을 세워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이전 쏘련측의 영접대표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쪽 차칸으로 가더니 환영조직일군들에게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하는것 같았다.

렬차는 모스크바를 가까이 하고 있었다. 렬차가 모스크바부근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비가 계속 내린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차창밖을 내다보시였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의 구름이 사라지면서 방금전까지 비를 뿌리던 하늘이 언제 비가 왔더니 싶이 푸르게 개이는것 이였다.

이전 쏘련측 일군은 너무 기뻐서 외교관레를 깨뜨리며 전정학을 끌어 안고 《됐습니다. 주석님은 신이십니다.》 하고 웨치였다.

이른 아침부터 연도에 나와 있던 모스크바시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렬차를 향하여 더욱 열광적인 환호를 보내었다.

씨비리횡단간선철도의 두줄기 철길이 끝나는 지점에는 두그루의 넓은일정향나무가 서 있었다.

며칠만에 밝은 해빛을 맞이한 두 정향나무는 보라꽃과 하얀 꽃을 활짝 피우고 서 있었는데 그 향기가 유난히 짙어 역사안에까지 풍기였다.

모스크바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나무가 그렇

듯 류다른 향기를 풍긴적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모스크바체류일정이 끝나던 날 크레믈린대궁전의 연회장에서 이전 소련내각수상은 위대한 수령님께 축배잔을 드리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련을 방문하시었기에 소련의 중부지대 특히 씨비리에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이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류다른 축배사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류다른 축배사에 영문을 몰라 하는 연회참가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방문을 앞둔무렵 우리 나라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이었다, 특히 씨비리 원동지대가 가물로 큰걱정이었다, 그런데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님께서 씨비리를 렬차로 통과하시는 기간에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땅속까지 폭 젖을 정도로 내렸다, 그러니 조선의 김일성동지는 풍운조화를 일으키시며 특별렬차를 타고 오신것이다라고 설명해주었다고 한다.

얼굴에 미소를 지은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 《소련땅에 비를 가져다 주신걸로 보아 김일성동지께서는 혹시 하느님과 무슨 련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라고 묻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답대신 호탕하게 웃으시고 나서 하느님도 아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할것을 바라고 있는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신비로 가득 찼던 씨비리의 대로정을 자욱자욱 돌이켜 보는 전정학의 가슴에는 참말로 우리 수령님은 세인이 공인하는 위인이시라는 체감으로 뜨거운것이 짝 차올랐다....

그 뜨거운의 분출인듯 로씨야손님은 렬차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도 씨비리사람들은 주석동지를 기다립니다. 하느님은 영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석동지께서는 바로 하느님이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로씨야강토에 생명을 뿌려 주어 소망하는 사회주의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키 큰 렬단장

전찬기

언제나 문득 오시여선

우리 장군님 나를 찾으시네

《키 큰 렬단장 어디 있소?》

꼭 키 큰 렬단장이라 부르시네

그런 땐 내 마음

아버지가 찾는 어린 아이 되어

장령별 단 아이가 되어

한달음에 흥에 떠 달리어 가네

...

못 잊을 태양절 그 저녁

장군님과 작별할 때

다시금 모시고 싶음

내 가슴에 파도쳤건만

뛰는 가슴 누르며

나는 심장의 진정을 아뢰었네

《최고사령관동지

다시는 철령을 넘지 마십시오!》

《철령을 넘지 말라?!...》

눈 들어 여겨 보시는

애정 깊으신 그이의 눈길

간곡한 내 눈길과 마주치던 아, 그 순간

그 순간 그이께선 다 헤아리셨던가

최전방 군인들이

최고사령관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또 얼마나 튼튼히 보위하고 있는지...

그날의 그 진정을 못 잊으시여

우리 부대 더 자주 찾아 주시는 그이

오실 때마다

그이께선 나를 키 큰 렬단장이라 불러 찾으시네

배심 커지는 그런 부르심은

수령결사옹위에 내가 앞장 서리라는 믿으심!

하늘이 무너져 내린대도

내 심장 성세 되어 막으리란 확신!

나는 행복한 렬단장이라네

키보다 마음이 더 커진 그이의 전사라네

새 세기 분초마다 한생을 깨끗이 기울여

그이를 보위함에 드림 없을 키 큰 렬단장이라네

시대의 높이에서 형상된 민족자주사상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에 대하여-

류윤화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왔다.

국토가 둘로 갈라 지고 민족이 분열된것은 우리 민족이 당한 재난중에서도 가장 큰 재난이다. 삼천리강산에 해방의 환호성이 울리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토가 둘로 갈라 지고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해 바치신 로고를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어서는 안되며 대를 이어 가면서 길이 길이 전해 가야 한다. 삼천리강산에 첫 공화국기발이 휘날리던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그러나 조국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 주신 인민의 나라, 민족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북과 남,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 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한 합법적인 유일한 민족통일 정부라는것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지워 버릴수 없고 묻혀 버릴수도 없으며 없애 버릴수도 없다!

력사는 가르치고 있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조국의 영원한 주석이시라는 이 말의 참다운 의미를.

최근 4.15문학창작단에서 창작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김수경)은 외세의 간섭을 단호히 물리치시고 북남조선 전체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시여 삼천리강산에 하나의 민족통일정부를 세워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정도를 빛나는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이시야말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라는것을 격찬하고 있다.

소설에는 민족분열의 재난을 막자면 민족문제를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이 짙게 반영되어 있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강조되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을 형상하는 작품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이 깊이 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그 진리성과 독창성,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강조되어야 한다.》

조국은 해방되었으나 우리 나라의 정세는 의연히 긴장하였다.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킨다고 하면서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괴뢰단독정부를 구성하고 남조선을 식민지화하여 우리 조국을 영원히 둘로 갈라 놓으려고 책동하였다. 민족의 장기분

렬이 눈앞에 닥쳐 온 이 엄중한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것인가? 삼천리 금수강산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 받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창조하여 온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야 한단 말인가?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 주신 우리 조국이 둘로 갈라진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 질수 있는 엄중한 사태를 분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사상은 민족자주사상이라는것을 밝히시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시고 우리 민족의 통일정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다.

소설에서 형상되고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이야말로 지난 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민족문제해결의 기본사상이다.

오늘 우리 나라가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압력과 경제적봉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해 지고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속에서도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강성대국건설의 포성을 울리며 21세기에 당당히 들어 설수 있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자주사상으로 우리 인민을 이끄신 령도의 결과이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문제는 철저히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인 민족대단결도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인 6.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주인은 우리 민족자신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할것이라는것을 다시금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확고히 견지하신 민족자주사상에 의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오늘의 견지에서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정권을 세워 주신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어버이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을 시대적높이에서 형상한 여기에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이 가지는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

정권을 세우시는 과정은 헤아릴수 없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길이었다. 이 길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민족을 믿고 민족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헤쳐 나가시었다.

작품에서는 민족자주사상을 두 계기에서 구체적으로 생동하게 펼쳐 보이면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하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장기분렬이 눈앞에 닥쳐 왔을 때 쏘련군을 철수시키는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조선단독선거를 합리화하려는 명분을 얻기 위해 유엔에서 통고문을 보내왔을 때 그에 대처하여 북남협상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령도하시는 내용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보내온 성시백의 편지에는 워드마이어가 미군의 영구강점을 합법화할수 있는 피뢰정부를 시급히 만들어 낼데 대한 트루먼대통령의 지시와 함께 리승만에 의거해서 단독정부를 조작하라는 마샬국무장관의 지령을 가지고 서울에 기여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조선에 피뢰정부가 수립되면 민족분렬은 심화될것이며 군사적대결은 더욱 격화될것이다. 그렇다면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의 총로선으로 제시하신 건국위업은 장차 어떻게 될것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국놈들이 민족의 분렬을 장기화할수 있는 피뢰단독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해서 민족의 자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북남의 전체 민족이 대단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만난을 무릅쓰고 민족대단합을 달성해야 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쏘련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순간 김책도 흠칫 놀랐다.

쏘련군을 철수하다니, 그것도 지금 당장...

북변의 장강을 도하하여 조선땅을 빈번히 침범하는 장개석군, 38연선에서 매일과 같이 벌어지는 놈들의 무장도발과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미제의 무력증강책동...

이러한 정황에서 쏘련군을 철수한다면 과연 어떠한 사태가 벌어 질지 그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제의 악선전으로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쏘련군의 존재를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북조선에 쏘련군을 그대로 두고 남조선사람들에게 미군을 반대하여 싸우라고 할수 없는 조건에서 외세를 반대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대단합을 실현하자면 쏘련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결심하신것이다.

하기에 쓰팔린도 쏘련군의 철수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 내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전 조선에 통일적인 인민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것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결심을 적극 지지하면서 동양에 영웅호걸들과 지략가들의 기담을 수록한 책들이 많다는데 김일성 동지의 말을 듣고 있느라니 그 기담을 수록한 책에서 청년장군이 한사람 빠져 나와 크레믈리에 찾아 온것 같다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쏘련군을 철수시키는 이야기부분에서는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해야 자주적인 민족통일정부를 세울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족자주사상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면 북남협상을 실현해 나가는 이야기부분에서는 사상과 정견,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을 더 중시하여야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할수 있으며 그래야 민족통일정부를 세울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족자주사상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남협상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시는 이야기는 소설의 기본이야기줄거리를 이루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민족자주사상의 거대한 생활력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북협상을 제기하실 때는 쏘련군철수를 결심하실 때처럼 정세가 긴박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은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 그것은 미제가 유엔까지 동원하여 북조선에서도 《유엔감시하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할것이며 만일 평양측이 유엔의 결의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 남조선의 제한된 지역에서 선거를 하겠다고 통고문까지 보내온것이다.

미제가 유엔을 리용하여 남조선에서 피뢰정부를 조작하는 경우 남조선피뢰정권은 마치도 제놈들이 조선의 중앙정부인것처럼 행세를 하게 될것이며 북조선인민정권은 지방정권처럼 취급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 질수 있었다.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김책은 외무국에서 성명을 발표하는것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는 민족자체력량을 편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동적인 립장에 서서 남조선만이 아니라 북과 남, 전 민족을 굳게 단합시킬수 있는 전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것입니다. 그 방도는 남북협상을 하는것입니다. 남조선좌익, 중간세력, 김구, 김규식선생을 선두로 한 우익과 협상을 하자는것입니다.》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을 믿고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부강조국을 건설하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내세우신 신념이고 의지이다.

반공에 대하여 제일 요란스럽게 떠들며 지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고 북조선에 《정치공작대》라는 테로단까지 무어 침투시켰던 반공보수주의자 김구도 미체가 던져 주는 대통령 자리를 넘겨다 보던 사대주의자 김규식도 민족적량심만은 가지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견보다 민족적량심과 민족애를 더 중시하시고 그들과도 손을 잡고 삼천리강산에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세우실 대응단을 내리시었던 것이다.

민족의 리익을 첫 자리에 놓고 혁명도 하고 정권도 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민족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것을 우리 민족끼리 풀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은 마침내 남조선의 각계각층을 하나의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불러 일으켰다.

문노니 겨례여, 삼천리강산이여, 산수 수려한 평양에 도움을 정하고 단군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태고적부터 수수천년 세월이 흘렀으나 우리 민족이 언제 이 땅우에 인민의 참다운 정권, 민족의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 본적이 있었던가.

반만년력사우에 처음으로 세워진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자주사상으로 북과 남의 온 민족을 불러일으켜 세워 주신 진정한 민족의 통일정부이다.

민족자주의 사상으로 온 겨례의 단합을 이룩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화폭을 창조하는데서 백두산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형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항일의 그날처럼 조국이 해방된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지켜 밤을 새우시는 김정숙동지.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을 때는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그리도 기뻐 하시며 대중강연에도 출연하시며 그 얼마나 바쁘신 날을 보내시었던가.

소설에는 김정숙동지께서 앞으로 태어날 성시백의 아이를 위해서 소박한 선물을 마련하시는 장면이 있다. 어린애의 밝은 웃음처럼 눈부신 빛을 뿌리는 은으로 만든 종발, 애기은수저... 동그랗게 꽃모양을 세공한 가운데 새겨진 《자립》이라는 아이이름, 순간 성시백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우러러 환호를 올렸다.

이것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이다.

《자립》, 이 얼마나 뜻 깊은 이름인가.

성시백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속에서 우리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보았으며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부강한 조국의 미래를 보았다.

이 장면은 하나의 사업을 조직하고 말을 하여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깊은 사색을 하시는 김정숙동지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형상된 기쁨진 화폭이며 자립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의 통일정부는 반드시 위대

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에 의하여 수립된다는 작품의 사상을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전 민족대단결로 삼천리강산에 통일정부를 세우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민족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본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무적필승의 강철의령장 **김정일**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삼천리강산에 기어이 통일의 봄을 안아 오고야 말것이다.

이것이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온 세계에 대고 웨치고 싶은 심장의 메아리이다.

위대한 사상은 위대한 실천을 낳는다.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을 가진 인물들의 개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이 어떤 위대한 변혁을 창조하는가를 생동하게 펼쳐 보이면서 민족자주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예술적으로 뚜렷이 확인하고 있다.

작품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사업을 적극 보좌해 드리는 김책, 김일, 허정숙, 정준택 등과 김성란(김모라니), 전호준, 서종현을 비롯한 건국사업에 일떠선 북조선인민들 그리고 성시백, 허헌, 김구, 김규식, 조순옥 등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신앙을 가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물들이 나온다.

작품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의 고유한 성격과 생활을 가지고 민족자주사상에 기초한 전 민족대단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작품의 기본이야기줄거리에 복종하면서도 아버지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의 위대한 생활력과 정당성을 보여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장편소설은 김책, 허정숙, 정준택을 비롯한 김성란, 전호준, 서종현의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의 기치밑에 건국사업에 한사람같이 일떠선 북조선인민들의 투쟁모습을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특히 작품에서 김성란, 전호준, 서종현의 생활과 극적체험세계를 기본형상선에 밀착시켜 형상의 심오성을 보장한것은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의 해명에서뿐만아니라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민족자주사상의 위대한 생활력을 힘 있게 부각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성란, 전호준, 서종현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북조선의 평범한 인간들이 어떻게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가를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 냄으로써 민족자주사상으로 우리 인민을 이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를 부각시켜 주고 있다.

김성란은 산간벽지 대령군의 평범한 아낙네였

고 전호준은 유선탄광의 청년지배인이었으며 서종현은 일제식민지하에서 기술을 배운 지식인이었다.

그러던 그들이 새 조국건설의 참다운 일군으로 자라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때문이다.

김성란은 쌀이 없이는 건국도 할수 없다는 구호를 들고 수리화공사도 벌리며 애국미헌납운동에도 앞장 섰으나 종파분자들은 그에게 공명심이요, 비당적행위요 하면서 모해한다.

전호준 역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인임을 받고 북부석탄관리국 국장으로 임명되어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석탄생산량을 부족 늘일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으나 반쏘반혁명분자로 몰리어 종파만화의 대상으로 되기도 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새 조국건설로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김일을 현지에 보내여 모해 받는 김성란을 구원해 주시고 그에게 이름도 지어 주셨으며 전호준에게는 황철을 복구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을 주시였다.

특히 아버지수령님께서 쏘련사람들이 화학섬유공장에서 기계설비를 떼내는것을 반대하였다고 하여 반쏘반혁명분자로 몰리워 기술자로서의 할말도 못하고 주접이 든 서종현에게 하시는 말씀은 민족자주사상이 없으면 건국도 할수 없다는 참으로 깊은 뜻을 담고 있다.

《...기사동무는 외세에 굴복해서 또 노예살이를 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민족의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겠는가? 기사동무는 민족적량심을 저버리지 않은 우리 당이 아끼는 기술자이구 현재는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해 중요한 초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기술일군입니다.》

서종현은 외세가 득세한다면 그 편에 서겠는가, 민족을 버리고 외세에 굴복하겠는가? 경제건설도 신념이 없으면 못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받아 안고서야 혁명을 알고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 위대한 사랑과 믿음속에 황철기사장으로 성장하게 된다.

김성란, 전호준, 서종현의 형상은 민족자주사상으로 건국사업을 이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를 부각시켜 줄뿐아니라 우리 민족의 힘으로 능히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실물로 보여 줌으로써 민족자주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인하고 있다.

김성란은 쌀로 건국사업을 받드는 농민의 전형이고 전호준은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 건국사업을 받드는 로동계급의 전형이며 서종현은 과학과 기술로써 건국사업을 받드는 지식인의 전형이다.

작품은 세 인물의 형상을 통하여 새 조국건설에 힘차게 일떠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폭 넓게 일반화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자체의 힘과 기술로

써 능히 자주적이며 자립적인 국가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준다.

바로 여기에 김성란, 전호준, 서종현의 형상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작품에 형성된 성시백과 허헌, 김구와 김규식, 조순옥 등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물들의 형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이야말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우리 민족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울수 있었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상이 위대하다고 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실천에 쉽게 구현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시백과 허헌, 김구와 김규식의 형상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만이 아니라 남조선까지 포함하여 전 조선에 하나의 민족통일국가를 세우시기 위하여 남조선의 좌익, 중간세력뿐 아니라 우익까지도 포함한 북남협상을 제기하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성시백과 허헌을 통하여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시였다.

성시백과 허헌의 노력에 의하여 김구, 김규식은 아버지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을 나라를 구원할 대경륜으로 받아 들이고 남조선의 각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모여 앉아 위대한 수령님께서 호소하신 북남련석회의를 찬성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김규식은 민족자주사상만이 북과 남의 통일적인 정권을 세울수 있는 사상이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이 실현될수 없는 불가능한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새로운 길에 들어 설수 있게 한 중요한 계기는 민족자주사상이 활짝 꽃 핀 북조선의 현실이었다.

산골의 평범한 아낙네였던 김성란이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성장하여 북남련석회의 녀성대표로 참가한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거창한 황철을 우리 민족자체의 힘과 기술로써 복구하는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황철기사장이 다름 아닌 목사의 아들인 서종현이라는것을 알고는 더욱더 놀랐다.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 왔는데 어찌하여 오늘은 북과 남의 현실이 이다지도 달라졌단 말인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뭉쳐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북조선의 벅찬 현실, 이것이야말로 민족자주사상이 가져다 준 위대한 생활력이 아니겠는가.

작품은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의 인물들이 민족자주사상이 민족통일정부를

세울수 있는 기본사상이라는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데서 결정적요인으로 되는것은 사상의 위대성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이라는것을 깊이 있게 밝히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공화국》의 내각총리로 취임하는데 동의했던 오점을 가지고 있는 허헌에게서 민족적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측면을 내세워 주시며 그에게 김구, 김규식을 민족통일전선에 합세하도록 하는 사업을 맡겨 주신다.

허헌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고 유엔에서 조선문제토의를 앞두고 미군사령부앞에서 미군철거를 위한 대시위를 조직하여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

김구는 완고한 반공보수주의자이고 김규식은 세계각국을 편답하면서 강대국의 힘을 빌어 조선독립을 이룩하려는 사대주의사상이 짙은 사람이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주의자인 김구에게서는 반미사상을 긍정으로 보시였고 김규식에게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뜻을 긍정으로 보시고 그들과도 손을 잡고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하신다.

평양에 와서도 북남련석회의를 불순하게 대하는 김규식에게 북남협상이란 사실에 있어서 민족자체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하자는 회합인데 민족자립을 믿지 않으면 무엇때문에 평양에 왔겠는가 하고 아랑 있게 대하시는 어버이수령님. 북남련석회의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에 매혹되어 련공합작의 길에 들어 선 김구가 자기의 인생이 비껴 있는 인장을 내놓았을 때 그 마

음이면 된다고 너그럽게 인장을 다시 돌려 주시는 어버이수령님.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도량은 삼천리강산을 한품에 안아 주시는 크나큰것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니신 사랑과 믿음은 삼천리강산에 비치는 햇빛과도 같이 따사롭고 뜨거운것이다.

그 사랑, 그 믿음에 김구, 김규식뿐아니라 온 겨레가 매혹되어 어버이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이 땅위에 민족자주적인 정권을 세울수 있었다.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은 민족자주사상으로 삼천리강산에 민족의 자주적인 통일정부를 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예술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하였다.

세월이 흘러 력사는 21세기에 들어 섰다.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심려하신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자체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은 50여년전 삼천리강산에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민족의 통일정부를 세웠던것처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삼천리강산에 높이 모시고 통일된 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고야 말것이다.

이것이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삼천리강산》을 읽으며 시대와 력사앞에 터치고 있는 심장의 웨침이다.

장군님은 아실거야

박혁

감나무중대의 이 딸이
이제는 수천메터
그 높은 파도도 썩썩 헤여 넘는줄
장군님은 아실가

장군님 모시였던 해상훈련의 그날
300m도 숨이 가빠
세찬 물갈기에 휘말릴 때
던져 주신 구명대도 아니 잡고
끝까지 파도를 이겨 낸 나를
그리도 대견해 하시던 장군님

내 모습 보시면 얼마나 기뻐 하실가
명포수 이 딸이 해염도 잘한다고
짠 물 한독은 더 먹었을것이라고
내 어깨 또 쓸어 주실거야

결전의 그날에
마지막포탄이 떨어 지면
이 한몸 육탄이 되어 가닿아야 할
목표까지
귀환점 없는 그 거리

나는야
적함을 짓부시는 포탄
나는야
조국을 지키는 육탄

포사격거리 수천메터를
육탄목표로 정한 이 딸의 이 심정
장군님은 아실가!
정말 아실가!

령장의 자욱 뜨거운 땅에서

김정곤

걸음걸음 전선길 따라 가면
철령의 험한 고개길이 마주 일어 서고
철령! 높은 마루에 서면
한해에도 여러차례 넘고 넘으신
장군님 자욱이 뜨거웁다

최전선길에 찍고 찍으신 장군님 자욱으로
조국의 운명과 그리도 인연 깊은 땅
영웅의 피 젖은 고지와 산밭들이
서슬 푸른 날창인듯 버려 저 하늘을 치받들었다

포화속을 넘나드시며
이 땅에 전승을 불러 오신
우리 수령님 거룩하신 모습
최전선 산밭들에 어려 있어
우리 장군님 그리도 쉬임없이
선군의 자욱을 여기에 찍으시는가

여기 한줄기 오솔길과 실개울도
최고사령부 작전지도에 오르고
여기 이름 없는 바위등 술가지에도
령장의 뜨거운 숨결이 젖어
한치한치 피줄속에 굽이치는 강원땅!

산이라 바다라 외친 령길이라
령장의 어깨에 떠메인 조국의 중량이
전선길 자욱자욱에 깊이도 스며배여

야전차바퀴자리 쓸어 보는 손바닥에도
그 무거움 가슴에 실려 와
차마 손을 떼일수 없어...

그래서 이 나라 어머니들
그리도 고이 키운 아들딸들
군복을 입혀 주저없이 여기로 떠나보냈고
금강의 세 동서 김 서린 밥가마가
이 땅의 마음인듯 가슴가슴에 끓는다

아, 총대만이 결사옹위라
토방에 놓인 지게다리조차
결사의 탄약상자 떠실자고
신끈 조인 군화처럼 두발 번디디고 일어 선 땅!

선군의 힘줄기 세차게 뻗어
풀대끝 그 어디 불꽃 한점 병곳해도
산은 산마다 상심령
골은 골마다 함정골
미제의 마지막잔해를 매장하리니

아, 이 땅에 찍으신 령장의 뜨거운 자욱은
승리만을, 미래만을 창창 열어
흐르는 세월속에 더더욱 빛나
먼 먼 후손들도 두손 모아
장군님의 자욱을 뜨거이 쓸어 보리라

전사자리

유영하

중대식당에 들어 서면
신입병사 나의 자리가 있다네
구대원들의 사랑이 후더운
《전사자리》

더운 국도 더 따끈하게
푹고추도 큰것을 골라 놓는
《특별석》 여기엔
한줄만 달아도 대상이 안된다네

여름엔 시원한 창문가에
겨울엔 훈훈한 방열판 가까이엔
계절 따라 옮겨 지는 《전사자리》엔
사관장도 중대장도 앉지 못한다네

잊지 못해라
우리 장군님
이 자리앞에 걸음 멈추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다네

《군단장도 안된단 말이지
괜찮아
하지만 최고사령관이야
좀 앉아 봐도 일 없겠지
하 하 하!》

막내아들 돌보는 아버지가 되시여
우리 장군님 앉아 보실 때
나도 울고
부대장도 눈시울 적셨다네

아 직급으로 제일 낮은 신입병사들을
사랑으로 제일 높이 받드는 《전사자리》
여기서 펄펄 나는 싸움군
새 세기의 영웅들이 자라난다네

위인의 숭고한 동지애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

조용철

백수십년을 헤아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력사에는 동지애에 대한 가지가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가까운 친지들이나 주위의 몇몇 사람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 나지 못한 협소하고 우애적인 사랑에 불과하였다.

만민이 따르고 안기는 위대한 동지의 품, 진실로 아름답고 숭고한 동지애의 참다운 력사는 일찌기 아버지인 김형직선생님으로부터 동지회득에 관한 사상을 고귀한 혁명유산으로 물려 받으시고 혁명은 곧 동지이며 동지는 혁명이라는 혁명적동지관에 기초하시어 조선혁명의 첫 닳을 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비로소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에 나서신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혁명을 령도해 오시는 전 과정에 동지 한사람한사람을 위해 수천리 먼 길이나 험한 사지판도 마다하지 않으시었고 주실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 주시었다. 그 위대한 동지애가 있어 조선혁명은 모진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는 준엄한 풍파속에서도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며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 올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 주신 동지애, 그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근본초석을 이루는 밑뿌리이며 혁명승리의 영원한 생명력으로서 우리 작가들에게 비상한 감화력과 창작적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펼쳐 보인 우수한 소설작품들이 수많은 창작되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수령형상소설작품들치고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인간애, 동지애에 대하여 형상하지 않은 작품이 별로 없었지만 최근 시기에 나온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리종렬), 단편소설들인 《동지에 대한 추억》(권정웅), 《따뜻한 눈》(최영학) 등은 매우 이채를 띤다.

소설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시기 등 서로 다른 력사적시기의 서로 다른 생활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폭풍 사나운 혁명의 첫 걸음도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시었고 만고풍상의 한평생도 동지를 위해 바치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순간에도 못 잊을 전우에 대하여 추억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를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형상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 빛나는 인생행로는 참다운 동지애의 력사이다.》

작품들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신 공산주의적인간성의 밑바탕을 이루는 참다운 동지애의 심원한 철학세계를 밝혀 내는데 형상의 각광을 집중하고 있다.

동지애는 인간이 인간에게 줄수 있는 모든 사랑가운데서 가장 숭고하고 귀중한것이며 그 어떤 인정이나 혈육의 정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고결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동지애는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귀중하며 가장 힘 있고 존엄 있는 존재로 보는 주체의 철학적신념에 기초한 인간사랑의 최고정화이며 한번 뜻을 같이 하면 끝까지 생사를 함께 하는 영원한 동지적믿음과 변심을 모르는 혁명적의리에 기초한 가장 뜨거운 인간애이다.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은 혁명동지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이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품위 있게 형상하고 있다.

작품은 세상에 널리 알려 진 금고속의 사진, 어버이수령님께서 건국의 날에 사랑하는 전사인 김책동지와 함께 찍은 사진을 형상적계기로 하여 수령님께서 지니신 혁명적동지애가 얼마나 위대하고 뜨거운것인가를 가슴 뜨겁게 그려 보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김책과 처음으로 상봉하신 것은 주체29(1940)년 겨울 쏘련의 하바롭스크고 외술속에 자리 잡은 숙소에서였다.

국제당이 주관하는 제2차세계대전전의 발발과 그에 따르는 대일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에 참가하러 온 김책은 오래전부터 흠모하여 마지 않던 어버이수령님께 한달음에 달려 와 이제부터는 절대로 수령님의 결을 떠나지 않겠다고, 죽어도 백두산을 베고 숨지겠다고 충성의 맹세를 다진다. 그때 수수한 방한화 한켠레를 내놓으며 《기념으로 되자면 두고두고 오래 보존할수 있어야 하는건데... 고작해야 한해 겨울 신으면 끝이 날》

털신밖에 내놓지 못하는 자신을 몹시 민망스러워 하는 김책의 모습에서 수령님께서 혁명동지의 다심하고도 뜨거운 정을 사무치게 절감하신다.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동지는 곧 혁명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지니시고 투쟁에 나서신 수령님이시었던단 《진실하고 순결하며 또

한 변함이 없는 혁명동지》, 《모든것이 진정이고 고지식하고 가식을 모르는》 김책을 알게 되신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한밤중에 눈보라 울부짖는 숲속을 거니시며 그와 함께 《사향가》의 노래도 부르시고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최대의 기쁨으로 되는것은 곧 혁명동지를 얻게 되는것이라고 혼자 조용히 되뇌이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동지의 귀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지를 얻는것으로만 만족해하지 않으신다.

작품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시점에서 환상과 현상, 회상의 수법으로 이채롭게 펼쳐 지는 과거와 현재, 현재와 과거의 생활이야기들을 통하여 김책동지에 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에 찾아 온 김책이 해진 양말을 신고 있는것을 보시고 아무리 전쟁이라도 구멍 뚫린 양말로는 랭기를 막지 못한다시며 기어이 새 양말을 신겨 보내시는 수령님,

그러한 김책이 심장마비로 잘못되었다는 청천벽력파도 같은 소식과 도저히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사실앞에서 모진 심장의 아픔을 느끼시는 수령님,

불은기에 휩싸인 김책의 령구앞에서 걱정을 터치시던 수령님께서 너무도 비통한 감정을 누를길 없어 한밤중에 또다시 그의 분묘를 찾으시여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 보시는 모습은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 주는가.

동지에 대한 한 없는 그리움과 믿음의 추억속에서 감동 깊게 펼쳐 지는 이러한 생활화폭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동지애가 얼마나 뜨겁고 열렬하며 진실하고 영원한것인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동지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철학적사색은 김책의 사진을 보시며 하시는 수령님의 심중의 말씀, 내면독백을 통해서 더욱 뜨겁게 안겨 온다.

사진을 물끄러미 들여다 보고 계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고개를 드시였다. 《김책이!》 하고 부르고나서 속말을 하시였다. 그래, 그에 대해서 생각나는것을 다 써야지, 《**세기와 더불어**》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한다 해도 김책을 당할 사람이 어데 있을까, 김책이 그의 이름은 동지! 혁명동지! 나의 회고이면서 동지에 우리들의 회고인 《**세기와 더불어**》의 총적주제는 동지로 되어야 한다. 동지이외 그 어떤 다른것으로는 결코 될수 없는것이다.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것.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고 심대한 아픔과 슬픔도 주는것.

동지! 이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만능당의 힘

과 용기를 주는것. 그러나 그보다 먼저 말해야 할것은 혁명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지를 얻는것으로 끝나는 사회운동에서의 어길수 없는 철칙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 동지! 혁명에 대해서 모든것을 단 한마디로 말해 주는 실체인것이다.

...

동지는 혁명에서 필수불가결의것이면서 그것을 얻고 사귀는 과정에는 최대의 희생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하여 동지를 위해 한목숨 바칠 각오가 돼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동지가 차례지지 않는 법이다.

그 어떤 리해관계로가 아니라 뜻과 의지와 사랑으로 하는 혁명투쟁에서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동지를 위해 한목숨 바칠 각오가 없으면 절대로 동지가 차례지지 않는다는 수령님의 이 위대한 동지관.

이처럼 숭고한 동지관을 지니시였기에 수령님께서서는 40년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김책을 잊지 않으시고 추억하시는것이고 애용하는 금고속에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귀중한 재보처럼 보관하고 계시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책동지와 의연고관계를 수령님의 동지관을 깊이 있게 보여 줄수 있는 관계로 승화시켜 형상을 심화하고 동지애의 최고화신으로서의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 보임으로써 작품의 높은 사상에술적감화력을 담보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에 대한 깊이 있는 형상은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와 단편소설 《따뜻한 눈》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는 우리 혁명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의 하나였던 1940년대 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혁명의 길에서 혁명가와 배신자가 갈라 지는 기본징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심각한 극적정황들마다에서 드러나는 매 인물들의 성격적대조를 통하여 깨끗한 량심을 지닐 때 인간은 그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념을 간직한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있으며 삶의 언덕에서 영생할수 있다는 심오한 혁명의 진리를 밝혀 내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혁명적신념과 량심문제를 단순히 인간성의 견지에서만 아니라 수령님과 전사들사이에 맺어 지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세계를 통하여 보다 진실하고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권영벽사이의 인간관계 하나만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권영벽이 사령부 선전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는것을 삶의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는 그의

인생관에 대하여 대견스럽게 여기면서도 가정에 대한 그의 견해만은 지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처자를 두고 혁명에 나서면서 오죽이나 강심을 먹었으면 안해에게 재가해도 좋다는 그런 박정한 말까지 남겼으랴 싶어 점점 그에게 큰 믿음을 가지게 되시었고 그와 같은 참된 동지를 가진 기쁨과 긍지를 체험하게 되신다.

권영벽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동지적사랑과 믿음은 그가 지하투쟁을 벌리던중 일제교형리들에게 체포되었을 때에도 변함이 없으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추위가 닥쳐 오자 누구보다 먼저 감옥에서 고생하는 권영벽을 생각하시면서 어느 해엔가 입은 그의 동상을 몹시 걱정하시며 권영벽과 관동군 특무부의 이계우씨대좌와의 일문일답록을 보시고서는 그의 불굴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념을 백배천배로 굳히고 싶다고, 권영벽은 우리 혁명의 자랑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식량공작을 나갔던 민경식과 오백룡으로부터 류량결식하는 권영벽의 어머니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며 며칠밤을 모대기시며 그들에게 자신께서 친히 쓰시던 모포를 보내주신다.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굳게 확신하시는 령도자의 불굴의 신념과 동지들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 주는 고귀한 의리심은 동지애를 낳는 원천이다. 이러한 동지애는 전사들을 혁명적 신념과 량심을 지닌 인간들로 키워 혁명대오를 하나의 사상의지로 숨 쉬고 움직이게 하며 필승불패의 위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게 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르지 못한 아버지수령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어 권영벽은 변절자(민경식)의 거짓말에 순간이나마 사령부의 안녕을 의심했던 자신을 끝없이 질책하며 혁명앞에 다진 맹세를 죽더라도 변치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는것이고 최후의 마지막순간에 **《김일성** 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부를수 있었던것이다.

정녕 동지를 위해 쏟고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는 끝이 없으며 수령님의 한평생은 동지에 대한 한 없는 사랑과 끝 없는 로고, 무비의 헌신성으로 수 놓아 진 동지애의 위대한 한생이다.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고결한 량심과 의리, 하나를 주시면 둘셋을 더 주고 싶으시고 한 세대만 아니라 그 후대들에게도 대를 두고 부어 주시는 사랑과 믿음이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천품이며 동지애이다.

단편소설 《따뜻한 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지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해명하고 있다.

작품에서 주요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립병선으로 말하면 수령님과 오래동안 혁명을 해온 공산

주의자도 아니었다. 해방전 일제의 민족문화말살책동에 대항해서 사전 하나없이 심히 방언적이고 사멸해 가는 우리 말을 정리하여 통일적인 언어활동의 기초를 마련해 놓은 언어학자의 한사람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을 위한 그의 순수한 충의지심과 깨끗한 량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해방후 내각의 한 성원으로 내세워 주시였을 뿐아니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옛 친구로부터 날아 온 한장의 편지로 하여 그가 일부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원자탄보다 더 위력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세계원수폭반대회의에 공화국의 대표로 참가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 주신다.

믿고 정을 주면 천만사람이 따라 서서 승리의 길을 열것이지만 의심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면 천만이 흩어 지고 한두사람이 남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한사람한사람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믿을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위업의 정당성으로부터 무조건 믿자고, 이것이 원자탄을 휘두르는 미국놈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시는 수령님의 이 믿음에 찬 말씀은 한생을 민족주의자로 살아 온 사람까지도 뜻을 같이 하고 생사를 함께 할 혁명동지로 굳게 믿으시고 머나먼 혁명의 길을 함께 걸어 가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동지애의 세계를 뚜렷이 보여 주고 있다.

이처럼 소설작품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동지애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 크나큰 사랑과 믿음과 의리의 최절정에서 발현되는 숭고한 동지애임을 깊이 있게 펼쳐 보이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를 형상한 작품들에서는 동지애의 최고화신으로서의 수령님의 형상을 산 인간의 모습으로 생동하게 안겨 오도록 형상하고 있다.

수령형상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령의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고정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것이다.

지난 시기 일부 소설작품들에서 수령의 형상이 딱딱하고 격식화되어 있으며 어딘가 범접할수 없는 경계와 울타리를 친듯 한 감을 주는것은 수령과 주위인물들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파지 않고 공식적인 관계로만 그린데 있으며 수령의 내면세계에 직접 침투하지 못하고 변두리에서 관조적으로 묘사하였기때문이다.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 단편소설 《동지에 대한 추억》, 단편소설 《따뜻한 눈》 등은 정치성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사적내용이나 덕성 그자체를 전달하는데 그치던 지난 시기의 수령형상작

품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높은 경지에서 생활적으로 진실감 있게 형상하고 있다.

특히 단편소설 《따뜻한 눈》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이채로운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을 형상한 소설작품들이 이전 시기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사상미학적감화력을 불러 일으키면서 널리 읽히우게 된것은 이 작품이 동지애의 사상을 깊이 있게 구현할데 대한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여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의 세계를 동지애의 견지에서 폭 넓고 특색 있게 해명한데 있으며 수령님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 보인데 있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보다도 내면세계를 어떻게 펼쳐 보이는가 하는데서 더욱 뜨겁게 발현된다.

소설에서는 혁명적동지애에 바탕을 두고 있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인간성에 형상의 각광을 돌려 깨끗한 량심과 성실한 마음을 지닌 림병선을 끝까지 믿고 싶어 하시는 수령님의 고결한 심정과 그러한 지신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 주고 사람의 운명문제를 근시안적으로 편협하게 대하는 일군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부인도 증명도 할수 없는 의심의 씨앗으로 하여 마음속상처를 안고 모대길 림병선을 두고 피로와 하시는 수령님의 내면심리세계를 높은 지성적안목에서 섬세하게 그려 보이였다.

사회의 영원한 요람인 믿음과 사랑의 세계를 지켜 내야 할 무거운 사명감을 안으시고 동지애로 개척해 온 우리 혁명을 동지애로 끝까지 승리해 가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내면세계에 직접 침투하여 마음속에서 일어 나는 심리적굴곡들을 분

석적이며 지성적인 묘사로 생동하게 그려 냄으로써 작품은 안타까와도 하시고 피로와도 하시며 사색하시고 탐구하시고 행동하시는 수령님의 친근한 인간적형상을 진실하면서도 품위 있게 형상하였다.

장편소설 《붉은 산줄기》에서 언제나 오중흡을 아껴야 하겠다고 생각해 오시면서도 막상 생사 존망의 위급한 정황만 생기면 어쩔수없이 그를 또 내보내게 되는것이 한스러워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를 사지에 내보내지 않으리라 속다짐하시는 수령님의 심리세계에 대한 묘사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을 권영벽을 두고 마음 쓰시는 수령님의 내면심리묘사, 단편소설 《동지애에 대한 추억》에서 구멍 뚫린 양말을 신고 온 김책에게 새 양말을 신겨 보내시는 생활세부와 너무도 뜻밖애 희생된 그의 봉분앞에서 터치시는 수령님의 마음속격정에 대한 묘사 등은 숭고한 동지애를 지니신 아버지수령님의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잘 안반침해 주고 있다.

이 장면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심리세계는 내면독백의 형식으로 혹은 속대사나 지문의 형식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한결같이 위대한 인간, 위대한 동지로서의 아버지수령님의 고매한 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보여 주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소설문학은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 날로 높아 가는 시대의 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감정에 맞게 아버지수령님의 위대한 동지애의 사상을 깊이 있게 구현한 품위 있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주체문학의 보물고고를 풍부히 하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대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 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명언해설

《형상의 힘은 진실성과 철학성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명언에는 진실성과 철학성이 예술적형상의 견인력과 감화력을 높이는 근본바탕으로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형상은 사회적의식의 다른 형태들과 구별되는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은 추상화된 개념, 리론적인 일반화 등을 통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종합일반화하지만 문학예술은 구체적이고 감상적인 형

김정일

상에 의하여 현실을 반영하고 사상을 표현한다. 형상의 본질은 인간의 생활을 사실 그대로 생동하고 뜻 깊게 그려 냄으로써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는 과정에 그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감성적으로 파악하게 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진실성과 철학성은 형상의 견인력과 감화력을 높이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병사는 노래한다

박호범

병사와 시

나는 책에서
시를 배우지 않았다
전호에서 배웠고
전호에서 썼다

포연이 흩날리는 고지에서
최후를 앞둔 우리 중대장이
피 젖은 가슴에서 꺼내들던
아, 아들애의 그 첫돌사진

타다 남은 길가의 집
주인을 잃은 감나무에서
파편 널린 마당에 떨어 져
피같이 터지던 아, 그 감알들

이래서 나는 시를 쓰기 시작했던가
언제나 보병삽주머니엔 작은 수첩 하나

시라기보다는
울분을 토했다

총구에서 불이 터져 나가고
눈에 피발이 먼저 가는
생사의 판가리
거기서부터 시는 시작되던가

시의 뜨거움은
피의 뜨거움
피와 땀과 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시를 써낼수 있다더냐

나는 가리라
나는 쓰리라
방울방울 병사들의 그 피와 땀으로
붓을 적시며

봄비

여기였다
전선으로 가던 우리 중대
직동령 여기서 비를 만났지
비에 젖으며 비에 젖으며
모두들 말없이 걷기만 하는데
이 침묵을 깨뜨리는
소대선동원의 목소리
-옷이야 젖은들 무어라나
고향에선 밀보리가 우썹우썹 자랄거야

이때였다
누군가가
선동원의 그 말을
기성곡에다 붙여 가며
노래를 불렀지

그러자 말없이 걷던 중대가
그를 따라 노래를 불렀지
-고향에선 밀보리가 우썹우썹 자랄거야
헤이헤이 우썹우썹 자랄거야

나는 지금
그날의 노래를 입속으로 부르며
인연 깊은 직동령을 넘는다
병사와 고향
고향과 밀보리
아, 잊지 못할 병사시절의
아, 잊지 못할 그 봄비
-고향에선 밀보리가 우썹우썹 자랄거야
헤이헤이 우썹우썹 자랄거야
-직동령에서-

군공메달

오늘은 명절
그래서 나는 가슴에 훈장을 단다
크고 작은 훈장마다에
내 인생이 비껴 있지만

나는 군공메달을 제일 사랑한다
포성이 울려 오는 고지에서
우리 사단장이 달아 준 군공메달

난생 처음 보고
난생 처음 달아서
기쁨은 그리도 컸던가

그날 메달을 단채
돌격전에 나갔다가
돌아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나니
그들이 메달을 달아 본것은

해가 뜨던 그 한순간과 같았다

오늘은 명절
가슴에 다는 훈장마다
명절의 기쁨이 실려 있지만
이 작은 군공메달에서만은
그날의 포연내가 물씬거리더라

수류탄 두알

물기둥이 길길이 솟구치던
락동강도하전투의 밤
나는 그만 물결에 떠밀리우며
허리에 찼던 수류탄 두알을 잃어 버렸다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수십년
내 오늘에야 고백하노니
나는 그날 수류탄을 잃어 버렸다고
분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내 언제면
락동강에 뛰어 들어
그날의 수류탄을 찾아 들고
옛 분대장앞에 나설것이나

오, 오늘도
가슴속에
수류탄 두알
매달려 떨어 지지를 않네
터치지 못한 수류탄, 터치지 못한 량심이

청춘시절은 병사시절

총을 쏜 병사여
나도 병사였다
그대가 서 있는 이 험준한 산마루에
총 잡고 내가 서 있었다
멀리 흘러 간
그 피 뿜던 시절에

그래서 감회는 이리도 뜨거운것인가
내가 파울린 저기 저 전호
내가 묻은 저 골짜기의 지뢰원
이 산마루에 목숨을 맡겼던
그 젊은 시절처럼
내 다시 총 잡고 여기에 설수는 없는가

부럽다
병사여
단 한번만이라도

그대를 찾아 온 이 로병에게
그 총을 메워 다오
이 백발에 그 철갑모를 얹어 다오

청춘시절은 병사시절
조국은 누구 아닌
바로 그대를 여기에 불러
원췌와 총구를 맞댄
이 산마루를 맡겼나니

오, 자부하라 병사여
그 젊음
그 값 높은 시절을
그대가 선군혁명의 최전연 산마루
결사옹위의 제1참호에 서 있다는것을
-1211교지에서-

전쟁에 대하여

나는 지금
전쟁에 대하여 이야기하련다
찍하면 미제가
우리와 전쟁을 하자고 날뛰기에

정말로 그런 날이 온다면
이 지구에 남을것은 뉘냐

조선이나
미국이나

세계의 먼전에 던져 진 이 물음앞에
인류는 엉겨주춤
지구우에 무서운 침묵만이 차흐르던
그때

이 침묵을 한손으로 밀어 내시며
세계를 뒤흔들어 놓으신
우리 장군님의 단호한 그 선언
-조선이 없는 지구는 필요 없다!

오, 이는 불세출의 군사전략가
우리 장군님의

전쟁원리
전쟁철학

그렇다
지구우에 미제가 필요 없게 될 그날
나는 인류앞에 이런 글을 남기리라
조선은 미국과 마지막전쟁을 끝냈다고

나는 평양의 아들

송재하

태를 묻은 곳이어서
어린 날의 추억이 깃든 곳이어서
평양이어
내 너의 아들이라고 말하라

동무들과 풋살맹이 따라 오르던
청류벽의 한줄기 좁은 오솔길
하루공부 끝나기 바쁘게
화판을 둘러 메고 달려 나오던
대동강기슭의 하얀 화강석계단...

내 피처럼
내 살결처럼
더없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
공원의 새파란 의자 하나도
해빛 밝은 창가의 빨간 꽃 한송이도
이제는 무심히 볼수 없나니

이 가슴에 사진처럼 새겨 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못 잊는
어제날의 추억 그것때문이던가
너를 잠깐 떠난 출장길에서도
나를 낳아 키워 준 어머니처럼 너를 그려 보며
내 잠 못 드는것은

이제는 아이들의 손목 잡고 찾아 가는
유서 깊은 만경대의 두그루 백양나무
내 소년단넥타이시절
푸르른 그 나무아래서
애국의 높은 뜻 자래웠거니

어찌 잊을수 있으랴
명절날이면
송이송이 붉은 꽃 피워 안고
걸음걸음 오르던 만수대언덕을
언제나 이 마음 숭엄히 세워 보며
선렬들의 넋으로 온몸 불 태우는
술 푸른 주작봉 성스러운 그 마루를

오, 정녕 평양이어
너는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내 자라난 아름다운 거리
창조의 동음 높은 우리의 일터
아이들의 탁아소 작은 침대에도
사랑과 충성을
해빛처럼 가득 채워 주지 않았더나

그래서 깊은 밤 최전연 전호가에서
수호의 총창 번뜩일 때에도
눈보라 휘몰아 치는 압록강기슭
두줄기 은빛계도 늘일 때에도
평양이어 너를 가슴에 안고
내 심장 뜨겁게 고동쳤나니

흐려 질수 없노라
금수산기념궁전 노을빛이 비낀
나의 티 없는 눈동자이기에
광풍앞에서도 끄떡이 없노라
전승기념탑이 서 있는 보통강기슭
그 뜨거운 공기로 억세진 이 가슴이기에
천만대적 덤벼 들어도 두려운것 없노라

그렇노라
적진속에 내 홀로 있어도
누리를 밝히며 타오르는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생각하고
더는 물러 설수 없는 적화구앞에 선다면
붉은기 나뭇기는
당중앙청사만 우러르며 한몸 바칠
나는 평양의 아들

믿어 다오 평양이어
내 한생 불러야 할 노래들
불 같은 이 가슴에 아낌없이 안겨 주고
죽어서도 간직해야 할
내 조국의 모습으로 심장속에 뚜렷이 새겨 진
아, 아, 평양 나의 어머니시여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이여라!

총대문학

최국철

그날은 기쁜 날이었다. 군대에 나간 막내가아들이 오래도록 소식 한번 전하지 않아 몹시 기다리던 첫 편지를 받은 집안식구들은 기쁨에 들쭉이였다. 팔순을 주름 잡는 할머니도 50대마루에 올라서는 집안사람도 눈물이 글썽해서 막내이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등 뜬 기분이었다.

《아니, 당신은 오래간만에 막내이편지를 받았는데도 어떻다는 말 한마디 없소?》

안해의 지청구이다. 하긴 책상에 덩덩히 앉아 한곳만 응시하며 함구무언이니 내 그런 말을 들을만도 하였다. 허나 그것은 내 마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그 편지가 준 충격은 너무도 컸다.

...내 초소로 떠나던 달, 시를 써도 총대의 무게를 알고 써야 한다고 타이르시던 아버지의 이야기의 의미를 오늘에 와서야 어렵듯이 터득한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병사들을 장군님결사옹위의 총폭탄으로 키우는 중대생활을 통하여 내가 잡은 총의 사명을 알게 되고 그 무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우리 병사들을 장군님선군정치의 총알로 여물게 해주는 중대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총대문학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막내이녀석이 써보낸 편지의 이 구절을 몇번이나 읽었는지 모른다. 키보다 마음이 크게 자란 자식을 대할 때의 부모의 기쁨이란 더없이 큰것이다. 초소로 떠날 때만 해도 그저 씨가 없이 오, 아, 하며 뚝뚝 뜬 소리만 적어 놓고는 시를 쓴다고 너들거리던 막내이였는데 이제는 제법 씨가 박힌 소리로 글을 써보낸것을 보니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대견하게까지 생각되는것이였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한것은 군사복무에서 기본에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중대에 발을 든든히 붙이겠다는 막내이아들의 결의이고 물론 제나름대로 표현한것이기기는 하겠지만 총대문학을 하겠노라고 한것이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의 편지에서 받은 충격이 잊지 못할 병사생활의 추억을 불러 와 잡을 이룰수 없었다.

세월은 빨라 내가 병사생활을 하던 때도 어언간 30여년전이었다. 인민군신문사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때 옛 중대를 찾아 갔던 일이 화면처럼 펼쳐지는것이였다. 기차를 타고 하루, 울창한 수림, 덧쌓인 락엽, 비탈길로 3시간, 숲속길로 2시간, 한줄기 오솔길로 1시간... 걸음걸음 추억 깊은 생각을 엮으며 나는 걸었다. 련련히 파도처럼 산발들에 짙은 석양의 정서 깊은 그림자들이 채색되는 무렵에야 나는 옛 중대에 도착했다. 머

루, 다래 뒤엎킨 먼먼 산중초소에 내가 살던 작은 집-중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름드리나무로 다듬어 세운 기둥은 현란하지 않고 《도끼목수》의 솜씨어린 창틀은 높지 않았어도 아담하게만 보이는 병실, 화약냄새 배인 바위들을 안아다가 걸싼 병사솜씨로 벽을 쌓아 올리고 기와를 이은 전초선의 옛 중대병실이었다.

《옛 중대를 찾아 온 감상이 류다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새 사람들이여서...》

키가 흰칠하게 크고 이마가 시원스럽게 벗어진 중대장이 초소의 소박한 특식을 내놓으며 정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중대에도 병사시인이 몇명 됩니다. 중대가 뭐 시의 저수지라나요?!》

철색이 도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정치지도원이 한마디 덧붙이였다.

나는 그들과 시간 가는줄 모르고 흘러 간 옛 중대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둡이 깃들었다. 어디선가 들려 오는 밤새의 청 고운 소리가 흘러 간 병사시절을 불러 오는것인가!

나에게 총창처럼 번쩍이는 시를 익혀 주고 화약내 풍기는 소설을 배워 준 중대, 나의 청춘시절을 값 높게 장식해 준 정다운 우리 중대, 나는 정든 고향집뜨락에 들어 선것 같아 넓지 않은 병영주변을 오래도록 걸었다. 그러면서 조용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대는 인민군대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라고 하신 교시의 구절구절들을 심장속으로 되새겨 보느라니 생각은 더욱 깊어 지는것이였다.

봄우뢰, 장쾌히 울려 싱그러운 바람이 봄향기를 실어 오고 숲속에서 봄꽃들이 망울을 터치던 그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고 돌아 온 병사들과 오래도록 감동에 젖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침대에 누웠어도 그 감격을 시줄에 담으려고 밤을 지새우던 유명한 그 병사시인 김동무의 사색 깊은 얼굴이 눈앞에 그려 졌다.

찬비 뿌리는 긴긴 밤, 첫 근무를 서고 돌아 온 나를 불안고 군화에 묻은 진흙을 다정히 털어 주며 100가지 일을 다 도와 주다가도 명령앞에서는 언제나 엄하였던 중대장의 근엄한 얼굴에 시가 있었다. 별빛 총총한 야영의 밤, 우뚝불 피여 오르는 불무지결에서 목달개 다는 법을 대주며 걸음걸음 사랑을 고여 주던 정치지도원의 다심한 손길에 소설이 있었다. 평행봉차오르기동작이 서툴렀던 나에게 엄한 반복구령을 내리다가도 수천리강행군의 나날, 땀에 젖은 배낭을 메고 군화끈을 조인채 깊은 잠에 든 나를 정겹게 바라보며

남 몰래 감추고 있던 무릎의 상처에 약을 발라 주던 옛 분대장의 청 높은 목소리에 서정이 있었다. 중중첩첩 산악의 메부리들을 징검돌마냥 뛰어 날아 넘으며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 투지를 키우던 중대전술훈련의 나날은 나에게 창작적사색의 나래를 달아 주었다. 내가 서툴게 써보낸 첫 소설을 잘 다듬어 실어 준 인민군신문을 읽으면서 들쭉하던 그날의 중대전우들의 얼굴이 보이는것만 같았다.

생각하면 할수록 중대는 병사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 충성의 신념과 깨끗하고 정직한 양심, 일당백의 슬기와 용맹, 고상한 전투도덕적품성을 키워 주는 터전이었다. 그래서 중대를 떠난 병사란 있을수 없고 중대는 병사의 고향이고 병사의 시와 소설의 저수지라는 말도 생겨 난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우리 혁명무력의 세포인 수많은 중대들에서 총 권 병사들은 장군님은 곧 우리 당이고 조국이라는 삶의 진리를 신념으로 다지며 마치와 낮, 북우에 총대를 놓으시고 선군혁명의 새 시대를 펼쳐 가시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쇠소리가 나게 여몰어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막내가편지에서 병사들을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총알로 여물게 해주는 중대에 발을 붙이고 총대문학을 해보겠다는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다.

총대철학이 있듯이 총대문학이 있다. 총대문학은 장군님의 총대중시문학이다. 어떻게 보면 막내가 아직은 총대문학의 숭고한 사명과 심원한 내용을 깊이 터득하지도 못한채 하겠다는 욕망만 앞세우는것 같아 당돌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나는 만류하고 싶지 않았다.

선군시대의 참다운 문학은 총대문학으로 되어야 한다. 총대문학은 군복 입은 작가들이나 총 권 군인만이 하는것이 아니라 선군시대에 사는 우리의 작가, 문학애호가들모두가 해야 할 성스러운 문학이다. 문학발전의 원동력은 인민대중이 아닌가. 시 한편을 써도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이 승리의 행진곡처럼 울려 나오게 쓰고 소설 한편을 창작해도 우리 총대의 위력이 백배해 지는데 밀거름이 되는 소설을 써야 하며 극문학의 대사 하나를 골라 써도 나라의 방위력을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가는 쇠소리가 나오게 써야 할것이다. 이것은 선군혁명의 장엄한 포성이 울리는 선군시대의 요구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병사문학의 저수지라고도 할수 있는 중대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총대문학을 하겠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결의인가.

인민군대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중대현실에 발을 깊이 잠그고 생동한 체험을 통해 총대중시의 위대한 령장, 걸출한 선군정치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궁지와 영예를 형상하고

서술 푸른 총창우에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으며 민족의 부흥도 나라의 강성도 전적으로 총대에 달렸다는 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가! 옳은 말이다. 총대가 강해야 우리 인민이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다. 이 땅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는 항구적으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다. 총대를 떠난 민족의 존엄, 조국의 영예, 나라의 번영이란 있을수 없다. 돌이켜 보면 험로 역경의 멀고 먼 길을 헤쳐 온 조선혁명이 승리와 영광의 백전백승사를 엮어 올수 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선군정치의 위대성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이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류례없는 선군정치의 거창한 장을 펼치시여 온 나라에 총대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는것은 우리 문학이 가장 중시해야 할 당면한 과업이다.

문학의 본성이 인간과 생활을 그리며 인간에게 복무하는데 있다면 우리의 총대문학의 본성은 마땅히 군인과 생활을 그리며 위대한 장군님께 복무하는데 있다고 해야 할것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총대문학은 이 땅에 내리는 찬비, 찬눈을 다 맞으시며 언제나 최전연에 계시면서 총대로 **김일성** 조선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총대로 사회주의붉은기를 수호하시며 총대로 당과 혁명을 수호하시고 빛내여 가시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실록을 불멸의 형상으로 품위 높게 창조해야 할것이다. 강력한 선군정치의 위력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의 중심에 거연히 솟아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하시고 강대한 군력으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터전을 철통같이 다져 나가시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실록을 문학적형상으로 빛내이는것보다 더 중한 일이 어데 있을것인가.

밤 깊도록 이런 생각을 굴리던 나는 초소에 선 총 권 아들에게 총대문학의 숭고한 사명과 심원한 내용, 그 창작원리를 일깨워 주고 싶었고 총대에 녹이 쓸면 인민이 노예로 되고 당도 혁명도 다 망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한번 곱씹어 강조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회답편지에 이렇게 썼다.

...막내가야, 총을 사랑하거라. 네가 틀어 쥔 총을 서술 푸르게 버리고 버리는 그 길에 충성도 있고 애국도 있고 문학도 있다.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키워 주는 중대는 총대의 집이고 너의 영원한 고향이며 총대문학의 저수지이다. 중대를 뜨겁게 사랑하며 총을 사랑하는 불같은 심장으로 총대글을 진실하게 써라. 바로 거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총대문학을 성실하게 배우고 잘할수 있는 참된 길이 있다.

정월보름달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조용히 서재에 앉아 독서에 열중하고 있던 저녁 동쪽창문쪽이 환하게 밝아 옴을 느끼고 의자에서 일어 나 창문가에 다가가 창가림을 제치고 동쪽하늘을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아!》 하고 말았다.

주체사상탑위로 둥글게 솟아 오르는 정월보름달.

나는 옷을 입고 대동교쪽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대동교는 내가 수십년전에 넘나들며 수많은 추억을 남긴 곳이다.

나는 대동교를 천천히 걸어 넘으면서 주체사상탑위로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자 걸음을 멈추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작품인 주체의 해불이 번쩍이는 조명과 밝은 달이 이루는 아름다움과 장관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빛내 주고 있는것 같았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간의 창조물과 우주의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다리우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동안 정월보름달을 쳐다보고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수 있는 보름달을 비전향장기수들은 옥중생활 30~40년동안 한번도 볼수 없었다.

우리들이 살았던 독감방의 변소벽에 50cm×60cm 크기정도의 창문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 창문들은 외부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물품을 주고 받을수 있다는 리유로 철창살도 보통방은 10cm 간격이었으나 비전향수의 방은 5cm 로 좁게 만든데다 물품이라든 들어 올수 있다고 1cm 철망까지 덧대 놓았다.

또 밖을 내다본다고 창문틈에 널판자로 된 가림판을 붙여 놓았다.

이쯤 되면 그런 창문은 있으나마나한 쓸모 없는 창문이다.

때문에 독감방은 한낮에도 늘 컴컴했다.

그래서 감독자(간수)가 방안의 동정을 볼수 있도록 30축 백열등을 천장에 달랑 매달아 놓고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불을 켜두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보름달을 거의 볼수 없었던것은 추운 방에서 고통 받으라고 비전향장기수는 북쪽방에 수용하였기때문이다.

우리 나라 속담에 정월보름달을 먼저 보는 총각은 장가 간다고 했는데 정월보름달을 보지 못

해 그랬는지 비전향장기수들중에는 70대 총각들이 그렇게도 많았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돌아 와 주체사상탑위로 높이 솟아 오르는 밝고 둥근 보름달을 볼수 있는 기쁨과 감회도 가지였고 이제 늙은 총각들은 다 새 가정을 꾸리고 꿈 같은 행복을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나는 40여년전 가을 추석밤에 내 안해와 함께 련광정에서 바라보았던 보름달이 생각되어 대동교에서 내려 와 대동강유보도를 천천히 걸으면서 련광정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그때 추석보름달은 밝게 비치고 있었으나 맑고 푸른 대동강물결위의 달은 흔들리는 물결과 함께 춤 추고 있었다.

나는 독감방속에서 그 시절의 청춘의 랑만과 행복을 한시도 있어 본적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사회주의제도가 베풀어 준 덕분에 우리들은 대학을 나와 안해는 연구소 연구사로, 나는 사무원으로 부러움 없는 생활에 행복을 느끼며 미래에 대한 부푼 꿈도 켜다.

지금 내 눈앞의 대동강은 추위에 강물이 얼어서 출렁이는 물결의 춤 추는 달은 볼수 없었다.

그러나 강너머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해불위로 밝고 둥글게 떠오른 달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주체의 새 풍경을 보여 주고 있었다.

나는 정월보름달을 쳐다보며 한 시인이 노래한 《밝게 웃으며 솟아 오르는

조국의 둥근 정월보름달이
맞이할 새 안해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라는 구절을 생각한다.

왜 시인이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을 노래하는지 알듯 하다.

내 안해는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다가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

지금 저 둥근 보름달은 내 안해의 얼굴 같기만 하다.

1년에 보름달이 12번 뜨면 나는 보고 싶은 그대와 12번 만날수 있구나.

아! 하늘이여, 보름달이 뜨는 음력 15일 하루 만이라도 구름 한점 없는 맑은 하늘이 되기를 바라는 내 소원이 너무 큰지 모르겠다.

그러나 30~40년동안 보름달을 보지 못하던 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는 의미에서 내 소원을 리해해 주었으면 고맙겠다.

초석

배경휘

비전향장기수라는 말이 우리의 가슴속에 신념과 의지, 고결한 삶의 대명사로 새겨 진지도 많은 나날이 흘러 가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언덕을 넘어 불사신의 자국을 찍은 그들의 생의 자취는 오늘도 나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한 비전향장기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전향하지 않은것은 옆에 있는 동지와 약속, 조국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기때문이다.》

이 짧은 말속에 담겨 저 있는 깊고 숭고한 의미를 나는 지금 조용히 더듬어 본다.

어느 때나 약속을 지킨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생사를 판가리하는 마당에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속에서 약속을 위해 고통의 길을 택한다는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다. 약속이란 그런것이니 그것은 곧 량심과 의리로 지켜야 하는 일이기때문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은 량심과 의리를 지켜 한생을 고통속에 바쳤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으로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그 량심을 지킨것으로 하여 그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신념과 의지의 강자로 온 세상이 찬양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신념이란 무엇인가, 량심을 주춧돌로 하여 그 위에 선 기둥이 아닐까.

인생의 기초가 될 그 량심은 간직하기도 쉽지 않은것이며 지키기도 또한 쉽지 않은것이다.

그 량심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생명도 있게 되는것이니 그것을 잃을 때엔 벌써 인간이기를 그만두는것이다.

그 귀중한 량심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 진, 이제는 퍼그나 오래 되었으나 그래도 잊혀 지지 않는 평범하면서도 평범치 않았던 병사시절을 돌이켜 보게 된다.

…비줄기는 대렬을 지어 서 있는 우리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 쳤다. 온몸은 물주머니가 되었고 등골로는 비물이 내물처럼 흘렀다. 몸은 경련이 이는것처럼 와들와들 떨렸고 손가락들이 곱아 들고 이발들은 저절로 딱딱 마주쳤다.

요란한 굉음… 건인차가 자갈밭을 천천히 기어 가며 강가에서 물러 서고 있었다. 잠수도하훈련이 중지되고 침수된 땅크구조작업이 시작되었다. 뱅뱅히 켜져 진 쇠바줄에 끌려 땅크의 포탑이 수면위에 나타났다.

《땅크수리작업에 참가할 동무들은 대렬 앞으로!》 중대장의 구령이었다.

차거운 비발속에 얼마간 가만히 서 있기도 바쁘는데 그 비속에 몸을 잠그고 시간을 다투는 수리작업을 한다는것은 자연과의 상상하기 어려운 싸움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나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비에 젖어 암록색으로 번들거리는 천막으로 향해 졌다. 여기저기 비가 새고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천막이지만 그래도 그안에서는 차거운 비바람을 면할수 있었고 그때의 처지에서는 고향집 아래목처럼 그리워 지는 곳이었다.

땅크장과 몇몇 구대원들이 대렬앞으로 나섰다.

나도 의무감이랄까 알수 없는 힘에 이끌리어 천막에서 눈길을 돌리며 힘겨운 한발자국을 내디디었다. 다른 전사들도 움쉴웁쉴 앞으로 움직이였다. 땅크장이 대견한듯 나에게 미소를 보내였다.

중대장의 시선도 밝게 빛났으나 구령은 단호했다.

《전사들은 자기 위치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하였다. 솔직히 말해 그때 나는 중대장의 그 명령이 몹시 고마왔다....

우리 전사들은 천막안에서 휴식하였다. 간단없이 천막을 두드리는 비소리는 자연의 뽕혹함과 밖에서 벌여 지고 있는 땅크구조작업의 간고성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밤이 지나가 새날이 푸름 푸름 밝아 올무렵 젖은 군복의 뽕기를 새삼스레 느끼며 잠을 깬 나는 주룩주룩 하는 비소리에 몸서리를 치며 머리를 들었다.

여기저기에 빈 자리가 눈에 띄었다. 땅크장들, 구대원들의 잠자리였다. 그들은 밤을 새웠던것이다. 그들의 비상한 인내력과 임무수행에 대한 헌신성, 명령에 대한 절대성의 정신을 나는 도저히 따르지 못할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당원들이였다. 그 당원들은 나로선 상상할수 없는 아득한 높이에 서 있는 사람들 같았다.

한해가 지나 대대정치일군이 나와 담화를 하며 《동무도 이제 입당준비를 해야지.》 했을 때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당원들의 모습앞에, 땅크장과 구대원들의 모습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았던것이다. 도저히 자기를 그들의 곁에 세울수는 없었다. 그래서 《저 같은거야 아직...》 하고 머리를 숙이고 말았다.

그러한 나날속에 나도 구대원이 되고 부소대장

이 되었다.

이제는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전사들을 뒤로 밀어 버리고 대신 자기가 나서게 되었다. 허나 그때에도 나는 자기를 키워 준 구대원들과 지휘관들의 정신적높이에 이르려면 까마득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가 어디에 뿌리를 둔것인지 명백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음미해 보려고 한적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 비전향장기수들의 모습앞에서 조용히 그때를 돌이켜 본다. 지옥의 고통을 이겨내고 만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으로 돌아 온 그들, 물론 그들의 투쟁과 우리의 군사복무를 대비할수는 없지만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 진 옛 지휘관들과 사관들, 항상 아득한 높이에서 나를 이끌어 주던 전우들의 귀중한 모습에는 지워 버릴수 없는 소중한것이 있었다.

《땅크수리작업에 참가할 동무들은 대렬앞으로!》 중대장의 그 구령은 이름을 찍어 하달한 명령이 아니라 병사의 자각성에 대한 호소였다. 그 호소에 따라 움직인것은 병사의 량심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전투》에서 면제된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어려운 마당에서 빠지라고 한 명령을 고맙게 받아 들였었다.

한시도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으니 세월이 흐르며 령장에 누런 줄은 넓어 졌어도 자신의 나약성은 잊을수 없었고 자기를 그들과 같은 높이에 세울수는 없었다. 구대원들과 나의 정신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부르는 이름은 같아도 그 순도와 견고성에서의 비할바 없는 차이는 세월의 흐름속에서 나의 머리속에 더 뚜렷이 부각되었다.

이것은 물론 크지 않은 일이다. 평범하면서도 범상치 않은 군사복무의 나날속에 레사롭게 흘러가 버린, 하나의 물방울과 같은 일, 스쳐 버리고 잊을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내가 지금 그 일을 되새기는것은 물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이

평범한 나날속에 싹 트는 량심의 씨앗이 준엄한 나날속에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수령이 기억하고 인민이 사랑하는 유명무명의 참인간들, 조국의 귀중한 아들딸들의 정신세계를 파헤쳐 볼 때 그 숭고하고 억센 정신력이 순간에 싹이 트고 순간에 줄기를 뻗고 순간에 열매를 맺었던가.

준엄한 시각의 위훈의 분출은 평범한 나날에 축적된 순결한 량심의 분출인것이다.

30년, 40년 철창속에서 꺾일지언정 굽힐수도 녹일수도 없었던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과 의지는 량심이라는 뿌리에서 자라난 줄기이고 잎사귀이고 꽃이며 열매였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 당에서는 평범한 나날의 위훈자들, 고결한 량심을 지닌 숨은 영웅들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량심이 있었기에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과의 약속을 지켜 한생을 철창속에서 싸울수 있었고 모진 고통속에 인생을 마치면서도 그 생을 긍지로 여길수 있지 않았겠는가.

평범한 나날, 생의 하많은 순간마다 자칫하면 소홀히 흘려 버릴수도 있으나 결코 그럴수 없는 그것, 준엄한 시각에 조국과의 약속이라는 어마어마한 의미로 사람들의 가슴을 누를 그 량심에 대해 나는 다시금 되새겨 본다.

누군가가 내 귀전에 입술을 대고 속삭이는것 같다.

소중히 여기라, 일상생활속에 얼굴을 내밀기수집어 하는 량심의 싹을, 비록 연약하고 볼 나위가 없다고 해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면 영생의 언덕으로 그대를 올려 세워 줄 억센 날개가 될것이지니... 귀중히 여기라. 그 생명과도 같은 량심이 그대의 마음에 깃들여 싹 트고 자라는 생활의 한결음, 한결음을 소중히 여기시라.

그래서 아마 나도 병사시절의 그 일을 잊지 못하는것인지...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우고 반쎄르(볼리비아대통령)

보습으로 땅을 갈고 칼로 나무는 찍어도
전쟁의 포연과 칼부림은 없어야 한다
벗과 애인, 길동무는 있어도
적과 원쑤, 적수는 없어야 한다
생존과 자애, 친근함은 있어도
죽음과 상처, 절망은 없어야 한다
성장과 음식, 건강은 있어도

질병과 재난, 기아는 없어야 한다
교육과 문화, 력사는 있어도
무지와 미개, 공허함은 없어야 한다
기술과 교류, 발전은 있어도
락후와 빈궁, 고통은 없어야 한다
평화는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

- 《세계평화명시집》중에서-

회오

김익철

렬차는 내리는 사람도 몇 안되는 자그마한 산간역에 멎었다. 표 받는 곳을 나와 보니 길을 몰을만한 사람도 별반 뜨이지 않았다. 나보다 한발 앞서 나온듯 한 군관 한사람이 얼마 앞서서 총총걸음을 놓고 있었다.

나는 반달음쳐 바짝 군관뒤에 다가서며 물었다.

《군관동무, 덕골리로 가는 길을 모르겠소?》

《따라 오십시오. 나도 그리로 갑니다.》

군관은 몹시 바쁜 모양으로 뒤돌아 보지도 않으며 대답했다. 초행길에 길동무를 만난것이 다행스러워 제답답 따라 섰다. 자그마한 마을을 벗어 나자 산기슭을 따라 차길이 나졌다. 군관의 발부리에서는 먼지가 풀썩풀썩 일었고 옆구리에 달린 전투가방이 토끼땨를 했다. 덕골리가 몇리나 되는지 미처 따라 갈것 같지 못했다.

《덕골리가 가깝지는 않겠는데...》

나는 숨을 가쁘게 쉬며 푸념조로 던졌다.

《예, 시간반쯤 걸어야 됩니다.》

군관은 의연히 앞만 보며 대척했다.

《그럼 먼저 가시오. 난 천천히 뒤쫓아 가겠소.》

나의 어조에는 은연중 불만조가 섞여있다.

《난 저녁녘에 돌아 서야 될 사람입니다. 현대 무슨 일로 가십니까?》

군관은 미안한듯 비로소 걸음을 늦추며 나를 돌아 보았다. 신살이 못됐음직한 중좌였다.

《취재를 하라고 떠난 길이지요.》

《그래요. 기잡니까? 아니면 작갑니까?》

중좌는 호기심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기자와 작가를 구별해서 묻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실토정이 나갔다.

《소설을 쓰지요.》

《아, 그렇습니까! 미처 몰라 봐 안됐습니다.》

군관은 급기야 멈춰 서며 깍듯이 경례를 붙였다.

《옹색하게 이리저리 마시오.》

《뜻밖에 행운입니다. 작가선생을 만날줄은...》

나는 뜨아한 표정으로 마주보며 생각했다.

(초면에 도대체 무슨 도섭을 부리는걸까?)

우리는 구령이라도 받은듯 동시에 걸음을 떼었다.

《전 지금 출장길에 집에 잠깐 들리려던 참인데 용무에 대한 결심을 세우지 못한 상탭니다.》

《허허, 그렇소. 어떤 문젠데?》

나는 호기심이 동하여 물었다.

《이런 땐 어째야 되겠는지 좀 조언을 주십시

오.》

주저없이 청을 대고 난 중좌는 단숨에 내용의 요점을 공개했다. 그에게는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얼마전에 부대에서 대학추천을 받았다. 아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에 취미가 각별하여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미술대학에 추천 받은바 있었다. 한데 할아버지가 군대로부터 보내라고 강권하는 바람에 할수없이 입대시켰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미 군대복무도 거쳤으므로 쉽게 동의할것으로 알고 편지로 《보고》를 했었는데 학교에 보낼바엔 군관학교에 돌리라는 회답이 날아 왔다. 중좌에게는 남동생 셋이 있는데 모두 군관이였다.

《만손자 하나만이라도 희망대로 해주자는건데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봐야 될가요?》

중좌는 어이가 없는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음, 그렇단 말이지요...》

나는 중좌의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 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물론 할아버지의 요구에도 잘못은 없었다. 하지만 군사복무 일면만을 절대시하려는 로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인 나로서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다. 더우기 예술적 재능이 있다면 그 길이 사회에 더 유익할수도 있었다.

《작가선생이 외교없이 판결해 주십시오.》

중좌는 내가 주저하는것으로 보였던지 《외교없이》라는 말마디에 력점을 주며 대답을 독촉했다.

《남의 집 일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수는 없는건데... 내 생각엔 아버지를 잘 설복해 보는게 좋을것 같구만요.》

《야! 고맙습니다. 역시 작가선생이 문제를 바로 보십니다. 이젠 결심이 확고해 집니다.》

중좌의 낮빛은 대번에 환히 밝아 졌다. 마침 지나가는 차를 세워 쉽게 덕골리에 당도하였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와 《담판》에서 성공하라는 고무를 하고 리당으로 향했다.

리당비서는 박덕삼로인을 취재하러 온 작가라고 말하자 반가와 하며 주저없이 길안내를 나섰었다.

지난 10년간 해마다 20마리의 돼지를 길러 인민군대를 원호한 70고령의 로인부부의 소행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자 그는 축산분조와 맛먹는 돼지우리며 사료전을 보여 주며 독특한 사육방법에 이르기까지 설명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보통 각오와 노력으

로는 엄두도 못낼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로인의 정신적추동력이 뭐겠는가 하는 의혹과 호기심을 더욱 깊이 가지게 되었다.

양지 바른 산기슭에 자리 잡은 박덕삼로인의 집프락에서 리당비서는 주인을 찾아 소개하고 자리를 떴다. 박로인은 잠시 망설이는 눈치였으나 인차 나를 방안으로 안내했다.

무심결에 방안으로 들어 서던 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중좌와 눈길이 마주쳐 깜짝 놀랐다.

나를 알아 본 중좌가 구원자라도 만난듯 벌떡 일어 나며 반기었다.

《아니, 작가선생이 우리 집엘 어떻게!...》

《우리 집에 취재를 온 손님이다.》

박로인이 통명스러운 어조로 끼여 들며 나에게 자리를 권했다.

《우리는 길가에서 만나 같이 왔습시다만 통성을 채 못해서 갈라 졌었습니다.》

나는 입을 봉하고 있을수가 없어 사연을 밝혔다. 로인은 아들이 나를 반기는 까닭이 리해되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두사람 다 낯색이 밝지 못한것을 보니 문제의 손자이야기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것이 분명했다. 이런 찬바람도통이에 들어 앉게 된것이 난처하기도 하게 생각되었다. 그렇다고 피할수도 없었다. 나의 내심을 간파한 중좌가 눈을 꿈쩍해 보이였다. 《답관》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지원》을 요청한다는 신호였다.

《난 손님과 얘기를 해야겠으니 그 애문제는 그렇게 하도록 해라!》

박로인은 아들과 《답관》을 결속할양으로 엄한 어조로 오금을 박았다.

《아버님, 저로서는 잘 접수가 안되는데 작가선생의 의향을 들어 보는게 어떻습니까?》

중좌는 나를 흘금 바라보며 용기를 돋구어 말했다.

《난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누구의 의향도 따를 생각이 없다.》

박로인은 막무가내로 손을 뻗혀 내저었다.

나는 로인의 고집스러운 처사에 불쾌감마저 느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내심의 근본을 알아 내려는 직업적욕망을 분발시켰다.

《아버지두 참, 고집만으로야 통합니까. 공감이가게 납득시켜야지요.》

중좌는 나를 믿는때문인지 여유 있는 웃음까지 지었다.

《고집! 흥 납득이 안된단 말이지!...》

박로인은 흘쩍 일어 나더니 옷방으로 올라 가 신문을 가져다가 방바닥에 퍼놓았다.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신 보도기사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네가 장군님께서 왜 해를 거듭해

가시며 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박로인은 걱정예 찬 목소리로 따지듯 물으며 아들을 쏘아 보았다.

《아버지두 참, 그걸 모를 사람이...》

《너는 아직 그걸 다 몰라. 그건 리치루가 아니라 이걸로 느껴야 하는거다.》

박로인은 콧직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그 어떤 의미심장한 충격을 받으며 기대어린 눈길로 로인을 바라보았다. 중좌도 선뜻 대척을 못하고 수세에 빠져 드는 표정이였다.

박로인은 퍼그나 상기된 얼굴을 하고 종이에다 써레기담배를 말았다. 매듭지고 터갈라 진 손이 눈에 띄게 떨리였다.

《작가선생이 나를 취재 왔다니 겸사해서 내 얘길 좀 할가요?》

박로인은 담배에 불을 달며 나의 의향을 물었다.

《예, 어서 그래 주십시오!》

나는 선뜻 수긍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때 나는 남해가 지척에 보이는데까지 갔다 온 사람이웨다.》

깊은 감회에 잠겨 이렇게 말하고 난 로인은 담배를 연거퍼 몇모금 빨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의 눈앞에는 가렬쳐절했던 조국해방전쟁 1계단의 나날들이 펼쳐 졌다.

주체39(1950)년 9월 10일 저녁 6시.

조국의 최남단인 경상남도 함안군소재지의 북쪽고지에 위치한 사단장감시소에서는 사단참모성원들, 각 연대 연대장과 참모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작전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군모와 군복은 해별에 물이 바래고 위장망도 별로 성한 사람이 없었다. 철색얼굴들에는 수염자국이 거뭇거뭇했고 지친 기색이 력연했다. 감시소안은 송진내와 함께 담배내가 뒤섞인 야전지휘소 특유의 탁한 공기로 차 있었다. 38선을 넘어 예까지 오는 몇달 어간 편히 쉬지도 자지도 못했으며 땀에 절은 군복을 벗어 불 사이도 없이 전투와 행군의 련속속에 끼니마저 건뎡으로 이어 온 그들이였다. 이들의 목표는 남해바다였다. 씨원한 바다물에 몸을 풍덩 잠그고 땀도 먼지도 씻자는것이였다. 그것은 한갓 꿈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항일대전의 나날에 버려 온 의지와 여유 있는 배심이 얼굴에 폭 배인 사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눈길로 지휘관들을 둘러 보고 나서 웅글은 목소리로 방안을 울렸다.

《동무들, 우리는 지금 남해가 멀지 않은 곳에 와 있습니다. 뜨거운 땀과 고귀한 피로 남녘땅을 적시며 예까지 도달했습니다. 우리 행군의 종점

인 부산은 걸음으로도 하루면 갑니다. 51련대장 동무!》

사단장은 말을 툇 끊고 좌중을 둘러 보았다.

《예!》

키가 크고 몸집이 우람한 30대의 상좌가 일어섰다. 그걸에 앉아 있는 박덕삼은 마치 자기가 지명이라도 당한듯 가슴이 두근거렸다.

《동무 고향이 부산이지. 몇년만이요?》

사단장이 물었다.

《스물두살에 떠났으니까 꼭 10년입니다.》

련대장의 목소리는 감회와 흥분으로 떨렸다.

《왜놈들이 벌린 장진수전공사장에서 박덕삼동무와 함께 도망쳤다고 했던가?》

《예, 그렇습니다.》

련대장은 대답과 함께 박덕삼에게 눈길을 돌렸다. 덕삼은 좌중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것을 느끼며 눈길을 떨구었다.

일찍 아버지를 여윈 박덕삼은 열다섯나이에 힘겨운 수전공사장에서 일했다. 거기에는 삼남지방에서 인부로 모집되어 온 사람들도 많았다. 로동관의 막내이었던 덕삼을 만형격으로 돌봐 준 사람이 《부산형님》(련대장)이었다. 왜놈의 십장들은 인부들을 마소부리듯 했다. 채찍세레쑤는 레상사였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하소할데가 없는 막바지인생이었다. 그날도 덕삼은 무거운 돌짐을 지고 둔덕을 오르다가 쓰러졌는데 그제 십장의 눈에 띄어 녹초가 되게 구두발길질을 당했다. 그날 저녁 덕삼은 퍼룻퍼룻 멍이 진 부은 얼굴을 싸쥐고 가까스로 함바에 돌아 와 쓰러졌다. 다른데서 일을 하고 뒤늦게 함바로 돌아 온 《부산형님》이 불이 펄펄 이는 눈길로 덕삼의 가공한 정상을 지켜 보다가 로동자들을 휘동해 가지고 현장사무실로 몰려 갔다. 그들은 다짜고짜로 십장놈에게 달려 들어 모두매를 안겼다. 뒤늦게 달려온 십장패거리들이 반주검이 된 동료들 보고 의사를 부른다, 순사를 부른다 소동을 피웠다. 일이 여의치 못할것이 뻔했다.

《부산형님》은 그달음으로 덕삼을 부축하여 공사장을 도망쳐 나왔다. 그들은 무작정 북으로 들어가 어느 광산을 찾아 갔다. 왜놈들이 패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해방이 되자 《부산형님》은 왜놈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광산을 지키는데 앞장에 섰다. 그러느라니 고향으로 돌아 갈 사이도 없었고 38선이 덜컥 막혀 버렸다. 그들은 파견원의 추천을 받아 한날한시에 보안간부훈련소에 갔고 졸업후 군사지휘관이 되었다...

《한번 떠난 고향을 되밟는 길이 결코 험치 않은 법이요. ... 련대장은 마음이 먼저 고향집뜨락에 가있을테지. 앗소!》

사단장은 손세를 써보이고 나서 벽에 걸린 지도앞으로 다가섰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시하신 작전적방침에 따라 전선북부타격집단은 경상북도 대구, 영천, 경주를 타고 앉았고 우리 서부타격집단이 경상남도의 지경에 깊숙이 들어 와 고령, 창녕, 함안을 차지함으로써 지금 적들은 동남쪽 좁은 지역에 몰려 들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사단장은 지점들을 지도우에서 하나하나 짚으며 힘 주어 말했다. 박덕삼은 남해끝단 《부산근거지》를 완전소탕하고 조국해방전쟁을 종결 지을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는것을 새삼스럽게 절감했다. 40만인가 된다던 부산의 인구가 요즘 120만으로 늘었다는 소문으로 미루어 보면 적구는 지금 하나의 콩나물시루나 다름없이 된셈이었다. 이제 진해, 마산을 타고 앉아 부산을 내치게 되면 적들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된다. 그때를 상상만 해도 가슴이 후드득거렸다.

사단장이 지도를 짚으며 계속했다.

《우리는 이제 마산을 타격하기 위한 최근 임무로서 서북산과 진동리일대들에 대한 타격전을 벌리게 됩니다. 작전부장동무가 전투임무를 하달하겠습니다.》

사단장이 자리에 와앉자 작전부장이 일어 나서 적정분석을 한 다음 각 부대에 임무를 하달하였다. 박덕삼의 련대는 마산포위작전의 우익한 서북산점령임무를 맡았다.

《서북산을 맡은 51련대가 역량상 힘겨운감이 있겠는데 다른 의견이 없겠소?》

사단장이 미타한듯 물었다.

《해내겠습니다.》

련대장이 선뜻 일어 나 대답했다. 박덕삼은 련대장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것 같아 다소 언짢은 느낌이 들었으나 꼭 참았다. 련대라고는 하지만 실지는 편제성원의 절반 넘으나마나 했다. 쉽지는 전투와 기동속에서 희생자와 부상자로 부단한 소모가 동반되는 가운데 부분적대렬보충이 있기는 했지만 중무기는 물론 저격무기마저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게다가 육체적피로, 수면부족 등이 겹쳐서 대원들은 지쳐 있었다. 그런데 련대의 전개구역은 넓고 적은 새로 보강된 련량이였다.

《내가 그걸 묻는것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전선사령부에서는 우리 사단에서 한개 련대력량을 서해안방어사령부로 즉시 떼돌리라는 명령이 내려 왔습니다.》

사단장은 말을 툇 끊고 좌중의 반응을 살폈다. 모두 의아한 눈길을 주고 받으며 수군수군했다.

박덕삼은 뒤통수라도 한대 맞은것같이 머리가 뻥했다. 최종결전을 앞둔 지금의 정황에서 련량을 증강해 준대로 모르겠는데 떠낸다는것이 웬말인가.

《련대장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덕삼은 팔굽으로 련대장의 옆구리를 건드렸

다.

《글쎄 말이요!》

련대장은 큰 눈을 디룩거리며 고개를 기웃거리다.

《이 명령은 무조건 집행해야 합니다. 나의 결심은 각 련대에서 1개 대대씩 떼내어 31련대 참모장동무에게 맡겨 보내자는겁니다. 다른 의견이 없겠습니까?》

사단장의 결심앞에 모두 덤덤히들 앉아 있었다.

《련대장동무, 우리만은 좀 고려해 달라고 제기하십시오!》

박덕삼은 속이 달아서 귀속말로 툭겨 주며 련대장을 찔렀다. 그런데도 들었는지 말았는지 련대장은 종내 입을 떼지 않았다...

사단지휘부로부터 련대가 전개된 1선까지는 40~50리길이였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였다.

박덕삼은 련대장과 함께 야전승용차에 올랐다. 차는 떠나자부터 들추어 댔다. 갑자기 시장기가 느껴 지며 가슴이 쓰러 났다. 어느때갈으면 촉기빠른 련락병이 건빵이라도 내놓으련만 오늘은 웬일인지 흘끔흘끔 눈치만 보는 형세다. 두사람의 얼굴빛이 다 컴컴한것을 보고 어려운 임무를 받았다는것을 눈치 차린것 같았다. 나이는 어리지만 주위에 대한 반응과 감수가 예민하여 지휘관들의 얼굴표정만으로도 련대앞에 다닥칠 일을 곧잘 예감하는 련락병이였다. 덕삼은 잠시나마 어린 련락병에게 어두운 구석을 보인것이 가책되어 일부러 웃음 섞인 목소리를 냈다.

《인석아, 뭐 요기할게 좀 없나?》

《예, 있습니다.》

련락병은 비로소 명랑해 지며 전투가방속에서 종이에 싸것을 두사람사이에 내놓았다.

덕삼은 종이봉지를 헤치고 손에 잡히는대로 하나를 집어 련대장에게 준 다음 자기도 하나 집어들었다. 은지에 싸 작은 판대기였다.

《허, 오늘은 되게 마음 쓴다. 이게 초콜레트가 아닌가!》

덕삼은 일부러 너스레를 떨었다.

《그건 어제 함안에 주둔했던 미군후방창고에서 얻어 낸겁니다.》

련락병이 자랑 섞인 목소리로 하는 대답이었다.

《허허, 그래! 미국놈의 족속이란건 세상 못된 종자야. 초콜레트나 처먹으면서 제 소굴에나 박혀있을게지 공연히 남의 땅을 탐내거든!》

박덕삼은 련락병이 들으라는 소리로 불만투로 대척했다.

《초콜레트가 뭐 좋습니까. 난 한개라도 건빵을 먹어야 기별이 있습니다.》

《하긴 그래, 맹산산꿀내기한테 양놈의 음식이 입에 붙을리 없지!》

박덕삼이 룡삼아 말하고 났을 때 차가 급정거했다. 희빛한 빛속에 앞을 내다보니 파피된 적땅크가 길복판을 막고 있었다. 운전사와 련락병이 차에서 내려 한참이나 빠질 길을 찾고야 발을 에돌아 다시 도로에 나섰다.

《련대장동무 왜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까?》

차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박덕삼이 조용히 물었다.

《누군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입이 무거워진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는것 같소.》

련대장은 생각 깊은 어조로 응수했다.

련대장은 원래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사이의 고향을 점점 가까이 하고있으니 그럴밖에 없었다. 부모님과 녀동생이 그대로 살아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지난 8월은 부인의 첫 해산달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이 일어나자 친정집에 보내고는 전선으로 달려 나온 그였다. 지금쯤 세상에 태어났을 첫 자식의 용모가 얼마나 궁금하겠는가. 하루빨리 부산을 해방하고 통일의 환희속에서 안해와 자식을 거느리고 부모님앞에 적 나신다면 얼마나 경사롭겠는가.

차가 또 급정거를 했다. 이번에는 모로 넘어진 미국제트력이 길을 막아 섰다. 그들은 한참이나 신고해서야 트럭의 한귀통이를 밀어 놓고 차를 뽑았다. 1선이 가까와 지면서 대석산근방에서 벌리는 전투소음이 들려 왔다. 밤하늘에서는 목표물을 찾아 적항공대가 끈질기게 떠돌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전선에서는 은연중에 적아간에 각기 활동시간이 내정되어 버렸다. 하루를 놓고 볼때 새벽 5시부터 저녁 6시까지 13시간은 적들의 활동시간이고 저녁 6시부터 새벽 5시까지 11시간은 아군의 활동시간이였다. 이것은 적항공대의 활동시간과 관계되어 있었다. 밤마다 뒤흔락을 맞는 적들은 조선의 밤을 무서워 했고 지는 해를 공포속에 바라보군 했다.

박덕삼은 길으로는 련락병과 룡담도 하고 련대장의 심리적긴장도를 건드려도 보는것이지만 실은 전투작전을 위한 고도의 모색속에 조급한 순간순간을 넘기고 있었다. 모름지기 련대장도 자기와 같은 강도 높은 집중적사색을 거쳐 이미 작전적결심을 세웠으리라고 확신했다. 박덕삼은 때보낼 대상을 3대대로 점 찍었다. 그렇게 되면 련대의 화력밀도는 3분의 1이 줄어 든다. 남은 2개 대대에 그만큼 전투적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해발 700이 넘는 서북산일대의 적 방어력량은 강한 상태였다. 마산에 지휘부를 둔 미25사의 XX련대와 XX련대가 강력한 방어진을 치고 있었다. 놈들은 함안전투를 통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지만 즉시적인 증강을 받고 있었다. 쫓길대로 쫓겨 논고에 올챙이 모이듯 하다보니 어데나 득실거리는것이 적들이였다. 그런데다 각종 포와

방크를 증강하고 인민들을 강제동원하여 공고한 방어시설물을 구축했으며 2중3중의 지뢰를 묻었다. 공격력이 방어측보다 훨씬 역량이 적은 형편에서 정면충돌의 방법으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아군역량이 적은것을 지금처럼 절박하게 느껴 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1선역량을 몽청 때내어 뒤로 돌리는것을 보면 당장은 증원 받을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물론 전선중심이 차츰 더 깊어지면서 동서 방해안만 방어하해도 많은 역량이 필요할것이었다. 그렇더라도 1선보다야 더 중요하겠는가. 그로서는 리해가 잘 가지 않았다.

《련대장동무, 최종전투를 앞에 두고 왜 역량을 때내는건가요?》

박덕삼은 그냥 삭일수 없어 중뎌보듯 물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겠지. 우리야 그런데 신경 쓸 상황이 있소.》

련대장은 아무런 암시도 내포되지 않은 대답을 했다.

(하긴 련대장도 모를수 있겠지.)

박덕삼은 스스로 자기위안을 했다.

《참모장동무, 2대대를 보내는게 어떻소?》

련대장이 이쯤 나오면 결심은 이미 확고한것이다. 박덕삼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놀란 눈길로 마주보았다. 2대대라면 련대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대대였다.

《난 반덱니다. 3대대를 보냅시다.》

박덕삼은 어조를 높였다. 작전모임때는 제기하라는 권고도 무시하고는 이제 와서 어금이를 뽑자고 든다.

《그쪽 사정이 그래야 하겠기에 1선부대들에게까지 손을 내미는게 아니겠소.》

《속담에도 제 발등의 불을 먼저 끈다지 않습니까.》

《차라리 발등을 데는 편이 나올수 있소. 그러다 허리라도 상하면 더 난사가 아니요.》

박덕삼은 여기에 분명 그 어떤 암시가 있는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캐고 들 기분조차 없어 체념해 버렸다.

《그렇게 하는게 후회 없을게요. 여기엔 련대지휘관들이 다 있지 않소.》

《그렇다면 제가 3대대를 말지요.》

《아니, 참모장은 1대대를 말소. 얼마전까지 동무가 지휘하던 대대가 아니요.》

박덕삼은 입을 다물었다. 1대대를 자기처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

차가 몹시 들추어 댔다. 큰길을 벗어 나 련대로 들어 가는 골짜기길에 들어 선 모양이었다.

《그럼 2대대구간을 1대대가 몽땅 말지요.》

《아니, 그렇게 하면 공격밀도가 너무 적소. 1대대는 3중대 하나만을 떼서 2대대구간에 배속하시오.》

《그렇게 평균분배하면 3대대가 어렵습니다.》

《3대대는 건드리지 않겠소. 그대신 련대지휘부성원과 직속구분대 전원을 동원하겠습니다.》

《예?!... 그건 전투규정에 없는 일인데요.》

《전투규정!... 지금 그런걸 따질 형편이 됐소. 방어력량보다 적은 인원으로 공격하라는 규정은 어느 책에 있소?》

련대장은 결심이 확고한듯 등받이에 몸을 젖히며 눈을 감았다. 잠시 침묵속에 차가 달렸다.

참으로 지금처럼 역량문제가 심각한 때는 없는것 같았다. 결국 3중대를 핵심으로 하여 련대비전투성원들로 2대대구간을 메꾸며 련대장자신이 직접 지휘할 결심이라는것이 알렸다. 2대대를 떼보내게 되는 결심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것 같았다.

얼마후 차는 림시 련대지휘부로 정한 3채의 기와집앞에 멈춰 섰다. 대기상태에 있던 대대장들과 참모부성원들이 련대장을 뒤탈었다. 지휘소라야 사면벽체가 다 박산이 나고 지붕만 땡그라니 남은 집이었다. 지휘탁을 대신하여 탄약상자 몇개가 쌓여 있을뿐 앓을 자리도 없었다. 련대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레 둘러 섰다.

《련대장동지, 사단참모부의 무선전문입니다.》

통신참모가 불쑥 나서며 전보문을 내밀었다.

련대장은 말없이 전문을 받아서 퍼들었다.

박덕삼이 얼른 전지불을 비치었다.

대대파송을 즉시에 집행할것.

사단장.

박덕삼은 상황이 더 급해 진다는것을 예감했다.

《2대대장!》

《예!》

련대장의 부름에 키가 작달막하고 다부지게 생긴 2대대장이 불쑥 나섰다.

《<제2대대 폭풍!> 동무는 대대를 현 위치에서 전원 철수시켜 두시간내로 사단지휘부에 도착하도록 하시오.》

련대장의 목소리는 사소한 흥정도 허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암시하듯 전례없이 엄했다.

《련대장동지, 이 이건 혼련이겠지요.》

대대장은 잘 믿어 지지 않는지 중뎌보듯 물었다.

《실전명령이요. 지체할 시간이 없소!》

《련대장동지, 이건 너무합니다. 남해바다에서 함께 몸을 씻자던 약속은...》

대대장은 남해가 지척인 여기에서 물러 서라는것이 억울한지 고개를 돌리었다.

《동문 아직 명령을 접수하는 태도도 배우지 못했소!》

련대장의 목소리는 물에 잠그었다 꺼낸듯 푹 젖어 있었다.

《지금껏 앞으로 나가라는 명령만 받았지 뒤로 들어 가리는 명령은 받아 본 일이 없어 그렇니다!》

《제발 사람을 괴롭히지 마오. 15분내로 대대를 집합시키고 나에게 보고하십시오!》

《아, 알았습니다!》

대대장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 절도 있게 돌아서 달려 나갔다.

박덕삼은 눈곱이 저려 나고 가슴이 막히는 듯하여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확실히 2대대장은 정황판단에 예민하고 제 할바를 아는 지휘관이였다. 적의 마지막아성을 목전에 두고 전선력량을 총동원하여 오직 앞으로만 나가야 할 지금 부분적이나마 뒤로 들어 가는 사실을 범상히 대할수 없었다. 그런데 박덕삼은 지금껏 앞으로만 나갔고 승리하는데만 습관되어 이 사실을 그저 있을수 있는 일로만 보았다는 뉘우침이 강하게 들었다.

《정찰참모동무, 적정보고를 하시오!》

런대장의 지시를 기다린듯 정찰참모가 지체없이 간명하게 보고했다.

《잠등이 한개 대대가 2대대 정면에 증강된것 외에 변동이 없습니다.》

《작전참모동무, 지도를 퍼놓으시오!》

작전참모가 탄약상자위에 지도를 퍼놓고 물려섰다. 박덕삼이 지도위에 전지불을 비쳤다.

《작전참모동무, 들으시오!》

런대지휘부 성원 전원, 자동총중대와 직속구분대전원을 포함하여 전투구분대를 편성하고 30분내로 2대대가 차지했던 참호를 차지하게 할것. 다만 공병중대를 1대대에 배속시킬것. 작전참모는 곧 집행에 착수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런대장의 지시가 떨어 지자 곧 작전참모가 자리를 떴다. 덕삼은 공병중대를 1대대로 돌려 주는것이 고맙기는 했지만 야속한 생각이 뒤따랐다.

이어 각 구분대에 전투명령이 하달되었다. 1대대는 서복산 우익, 3대대는 좌익, 2대대구간이 정면공격을 맡았다. 그런 다음 적아간의 역량대비로부터 출발된 적진에 대한 배후타격조치가 취해졌다. 적의 포진지, 화점, 팜크집결소, 포탄고들을 공격개시와 함께 일시에 소멸할 습격조, 파괴조들을 파견할 구분대와 인원, 위치들을 지시했다.

《공격개시시간은 래일 저녁 6시 30분이요. 곧 임무수행에 착수하십시오!》

런대장의 명령에 따라 일제히 지휘소를 떠나갔다. 두사람 남게 되자 정적 같은것이 온몸을 에워쌌다. 덕삼은 런대장의 주도세밀하고 결단성 있는 작전포치에 시종 공감을 느꼈다. 하지만 2대대구간만은 의연히 불안했다. 공병중대만이라도 그냥 뒀으면 했다. 그러나 그 말은 뒤로 미루

고 큰 문제부터 의향을 비쳤다.

《런대장동무, 2대대구간을 1대대가 맡겠습니다.》

《1대대구간도 험치 않소. 그래서 대신 공병중대를 보내는거요. 그대신 포병준비타격을 2대대구간에 집중하자는거요.》

런대장은 덕삼의 마음을 놓게 하려고 손을 덥석 잡아 쥐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런대장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지운다는 불안으로 가슴이 후드득거리어었다.

《런대장동무, 1대대는 대대장에게 맡기고 제가 2대대구간을 맡겠습니다.》

《그건 안되요. 이번 전투를 치르기엔 아직 경험은 어리요. 두말 말고 1대대로 가요!》

《야! 이젠 서로 몰랐던 처지보다 더하군요.》

박덕삼은 런대장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냈다.

《여, 막녕이, 내 심정을 그렇게도 몰라 줄라 줄라나!》

런대장은 급기야 어조를 바꾸며 사정하듯 했다.

박덕삼은 대변에 가슴이 몽클해 지어 뜨거워나는 눈언저리를 늘렸다.

《<부산형님>! 지금껏 난 형님신세만 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나마 내 도리를 지키게 해줘야 하지 않아요. 부모님앞에 성성한 몸으로 나서게 해주고 싶은것이 이 막녕이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박덕삼은 애원하듯 하며 런대장의 손을 더듬어 잡았다.

《그 마음만은 더없이 고맙구만. 하지만 남보다 한방울의 땀이라도 더 흘리고 부모님앞에 떳떳이 서고 싶은 심정도 값높이 사줘야 하지 않나!》

런대장은 덕삼의 팔을 감싸 잡으며 뜨거운 숨을 내쉬었다.

《됐시다. 언제 한번 내 말을 들어 준적이 있거나 한가요.》

박덕삼은 그의 결심을 굽힐수 없다는것을 느끼고 다시 권고하기를 단념하기로 마음 먹었다. 1대대가 신속히 임무를 수행하고 2대대구간을 지원하는수밖에 없었다.

《성났나? 사람두. 참모장이 왜가지구두 우뚝거리는 성미는 여전하구만.》

런대장은 박덕삼의 어깨를 툭 치며 나무랐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급한 정황이 생겨도 지휘소를 떠나 전투원을 대신하는것과 같은 처사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박덕삼은 한수 접고 들며 당부했다.

《참모장! 고맙소.》

런대장은 덕삼을 와락 끄당겨 안았다.

박덕삼은 참모들을 만나 필요한 지시들을 주고나서 작전참모에게 런대장을 잘 돌볼데 대한 당부를 하고 1대대구역으로 내려 갔다. 그는 대대장과 함께 중대참호들을 돌아 보았다. 대원들은

이전 대대장이 왔다고 반가와 했다. 그는 전개된 대원들의 간격이 너무 느린것 같아 한개 분대를 집합시켰다. 분대장이하 모두 여섯명이였다.

《다른 분대들도 인원이 이렇게 적소?》

박덕삼이 중대장에게 물었다.

《그저 어썩비슷합니다.》

중대장의 레사로운 대답이였다. 3중대까지 보내는 조건에서 최대한 대오를 늘여야겠다는 생각이 뒤따랐다. 대대를 다 돌아 보고 난 그는 대대 지휘부성원들과 보장성원들을 전원 인입하여 각 중대에 증강할 대책을 세웠다. 그런 다음 적구에 과전할 습격조와 폭파조원들을 직접 만나 준비정형을 일일이 검토하고 주의사항을 주었다. 모두 20살전후의 팔팔한 젊은이들이였다. 그들은 반땅크지뢰, 수류탄을 지거나 찔고 철조망을 끊기 위한 가위나 뼨찌 그리고 기관단총을 휴대하고 떠나갔다.

밤사이엔 진행될 일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였다. 날이 밝기전 박덕삼은 대대지휘소를 서북산에서 1km 쯤 떨어 진 산기슭으로 옮기였다. 낮동안 전투원들은 위장을 빈틈없이 하고 공격전투준비를 완료하였다.

저녁 6시 30분, 포병중대 준비타격으로 공격작전이 시작되였다.

적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하여 공격은 두차례나 일시 저지를 당하였다. 그러나 박덕삼은 대대의 앞장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하여 공격서열을 이끌었다. 마침내 적참호에서 육박전을 치른후 적을 완전히 격퇴해 버렸다.

하지만 2대대구역에서는 의연히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적중기관총이 쏘아 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덕삼은 가슴이 철렁했다. 파피조가 놓친것이 분명했다. 그는 지체없이 대대를 2대대 우익으로 진출시켰다. 마침내 2대대구역이 점령되였다.

덕삼은 련대장부터 찾느라고 정신없이 주변을 살폈다. 왜 그런지 련대장이 공격서열의 선두에 섰으리라는 예감을 지워 버릴수 없었다. 이때 작전참모가 숨이 턱에 닿아 달려 왔다. 그것이 그의 불안에 부채질을 했다.

《련대장동문 어디 있소?》

덕삼은 조급한 마음으로 다우쳐 물었다.

《군의소에 후송했습니다.》

작전참모가 잦아 드는 소리로 대답했다.

《뭐라구?! ... 동무들은 뭘했소!》

박덕삼은 추상 같은 외마디소리를 지르고는 제집담 군의소를 향해 내리달리였다.

림시천막을 친 군의소안은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 군의, 준의, 간호원들이 누워 있는 련대장을 둘러싸고 눈물들만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왜, 다들 서 있기만 하오?》

박덕삼은 불길한 예감을 쫓아 버리듯 태연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대척하는 사람이 없었다. 순간 덕삼은 가슴에 돌덩이가 떨어지는 충격을 느끼며 눈앞이 캄캄해 졌다.

《련대장동무, 일어 나야 합니다. 고향을 눈앞에 두고 이게 웬일입니까?》

덕삼은 쓰러지듯 꿇어 앉으며 련대장을 흔들었다. 그러나 아무 기척도 없었다. 사방에서 녀성군인들의 흐느낌소리가 터지였다.

《련대장동무!...》

덕삼은 움켜 쥔 주먹으로 땅바닥을 내리치며 오열을 터뜨렸다...

잠시후 덕삼은 천막밖으로 나왔다. 작전참모가 따라 나왔다.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소?》

덕삼은 가슴이 터질듯 하여 으스스리게 주먹을 움켜 쥐었다.

《참모장동지, 어쩔수 없었습니다. 결사반대했지만 저를 3중대에 보내고 련대장동지가 직접 지휘부성원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화점폭파조가 거사전에 발각되는 바람에 중기 한문이 살아 거듭공격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련대장동지가 앞장에 나서서 돌격으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작전참모는 뒤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돌렸다.

덕삼은 할 말이 없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을 목숨 바쳐 열어 놓은 그의 영웅적희생에 가슴이 젖어오를뿐이였다. 이때 곁으로 다가선 련락병이 보자기에 정히 썩것을 내밀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어제 저녁 련대장동지가 저에게 맡긴겁니다.》

덕삼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펴보았다. 흰 코고무신 한켠레였다. 너무도 많은 부락을 남기는 유물이였다.

그러구 보면 그는 이 서북산전투에서 자신이 희생될수도 있다는것을 각오했던것 같았다.

덕삼은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기며 산기슭을 더듬어 걸었다.

그토록 그리던 고향을 지척에 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운명이란 너무도 가혹했다. 부산을 해방하고 기다리는 아들대신 자기가 고무신을 들고 어머니앞에 나설 생각을 하니 기가 막혔다. 허나 가지 않을수 없는 길이었다. 그가 열어 놓은 길을 따라 진해, 마산을 거쳐 기어이 부산으로 가야 했다.

서북산을 타고 앉은 조건에서 이제 진해, 마산해방은 시간문제였다.

(형님! 내 기어이 아들의 정성이 담긴 고무신을 어머님에게 안겨 드리겠습니다.)

박덕삼은 이렇게 마음속맹세를 다지였다.

그는 지체없이 전투원들의 결의모임을 열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

하였다.

그런데 곧 하달되리라고 믿었던 마산, 진해로의 공격명령이 이들이 지나도록 떨어 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깊은 밤중에 사단의 호출을 받았다. 드디어 그 시각이 왔는가 싶어 서둘러 길을 떠났다.

사단장은 뜻밖에도 어두운 낮빛으로 박덕삼을 맞았다. 순간 덕삼은 불길한 예감이 들며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사단장은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결심한듯 말을 뱉었다.

《전선사령부 명령을 전달하겠소. 우리 사단은 즉시 현 계선을 떠나 충청남도 영동으로 이동하게 됐소!》

《뭐라고요?...》

덕삼은 흠칫 놀라며 한결을 몰려 섰다.

《흥분하지 마오. 전선정황이 급변했소. 미제는 패망에 직면한 수치스러운 참패를 만회하고 조선강점을 기어이 실현할 목적으로 일본주둔군을 총동원하여 5만여명의 병력과 수백척에 달하는 7함대의 함선, 1천여대의 비행기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해 왔소. 우리는 수적,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우세한 적의 저항에 부딪치고 있소.》

《그렇다고 우리가 남해가 보이는 예까지 왔다가 물러 선단 말입니까? 그건 안됩니다.》

덕삼은 순간에 리성을 잃고 부정해 나섰다.

《물러 서야 하오!》

《아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덕삼은 군모를 벗어 움켜 쥐며 불근육을 푸르르 떨었다.

《그건 무모한 주관이요. 여기서 얼마간만 지체하면 우리 사단은 물론 랑동강계선의 주력부대들이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오. 그래 이래도 뻔치겠단말이요?》

사단장의 목소리는 철판을 두드리듯 답쳤다.

《에잇!...》

덕삼은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지르며 으스스리게 쥔 주먹으로 지휘탁을 내리눌렀다. 그 서술에 널쪽으로 립시 무어 만든 탁자가 삐걱거렸다.

《참모장동무, 진정하오! 전쟁에는 전진만 있는 게 아니요. 막부득하여 물러 서는 때도 있는거요. 제국주의련합세력앞에 단독으로 맞선 싸움인데 무슨 일인들 없겠소. 총이... 총대가 모자라서 적 야간 역량대비는 너무나도 엄청나오.》

사단장은 설복조로 안타까이 호소했다.

《다 열었던 통일의 문물 도로 닫아야 하는게 가슴 아파 그립니다.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쳐 열어놓은 길에서 물러 서는 저를 본다면 련대장동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덕삼이 소나기처럼 뿌리는 눈물이 탁자우에 후드득 떨어 졌다.

《련대장동무는 이해할거요. 우리는 이미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련대장들에게 귀띔했었소.》

사단장은 비로소 숨졌던 사실을 밝혔다.

《...》

박덕삼은 흠칫 놀라며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니 련대장은 부산까지는 못 갈수도 있다는것을 예견하면서도 단 한결음이라도 더 고향에 접근하려는 일념으로 그처럼 희생적으로 싸운것이였다.

(련대장동무, 눈 감으며 남긴 부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 서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덕삼은 두주먹을 으스스리게 움켜 쥐며 마음속 맹세를 다졌다...

《작가선생, 그때로부터 근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난 그때 받은 충격을 그대로 안고 살아 가고 있지요.》

박로인은 이렇게 자기 회상을 매듭 지었다.

《!...》

나는 로인의 체험이 너무도 심각한것이어서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감동속에 응시하기만 했다.

《한 나라의 국사로 치면 중시해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나라가 있고 주권이 있구야 다르게 필요한게 아니겠소. 그러니 국사중의 국사는 군력을 강화하는것이지요.》

박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를 붙여 물었다.

《정말 귀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흥분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며 백발의 머리에 잔주름이 얹힌 로인의 얼굴모습을 바라보았다.

《지금과 같이 미국놈들이 기어이 우리를 먹여 보겠다고 날치고 있는 때에 배불리 먹지 못한다거나 개별적사람들의 희망을 좀 미룬다는게 무슨 큰일이겠소. 남해가에서 땅을 치며 돌아 서지 않으면 안됐던 그때를 생각하면 피가 끓네. ... 하기에 우리모두가 장군님 뜻대로 군력을 강화하는데 모든걸 복종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소. 적어도 이런 자각을 가지고 장군님의 현지지도기사를 보아야 그분을 모신 백성의 도리를 지니는 거라고 생각되지요. 안 그런가요?》

로인은 동의를 청하듯 나를 직시했다.

《로인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로서도 깨닫는바가 큼니다.》

로인은 하고 싶던 말을 다한듯 한무릎 물러 앉으며 시름 놓은 안색을 지었다.

《훌륭한 얘기를 들려 줘서 고맙습니다. 로인님의 그 절절한 심정을 글로써 전해야 할 임무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뚫어 오르는 심정을 그대로 말했음뿐이였다. 이제는 손자나 거느리고 여생을 즐겨야 할 나이에 뼈심 들여 아글타글 돼지를 길러 인민군대에 보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로인의 깊은 심중이 충분히 이해되고도 남았다. 그런 로인인것만큼 아들의 처사에 공감이 갈리가 만무하였다. 나는 아들의 립장에 일시나마 마음이 기울어 졌던 일을 가책속에 뒤우쳤다.

이야기가 끝나고 보니 한가지 의문을 풀어야 할 생각이 떠올라 불쑥 물었다.

《로인님, 런던장의 자식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 그 얘기를 미처 못했군. 진지방어전때 입은 부상으루 조국해방전쟁이 끝나자 제대되어 런던장 처가를 찾아 갔지요. 마침 생남을 했는데 한해후에 도로복구에 나갔다가 애어머니가 폭격에 희생되어 늙으신 할머니가 손자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지요. 그래서 인차 가정을 이루구 내가 데려다 모시지요.

이 사람이 바로 런던장의 아들이지요.》

로인은 중좌를 가리키며 빙긋이 웃었다.

《아, 그렇습니까!...》

나는 뜻밖의 사실앞에 놀라 눈이 쾅해 졌다.

중좌는 얼굴이 붉어 지며 미처 사실을 못 밝힌

것을 미안해 하였다. 그러나 되살아 난 런던장을 만나기라도 한뜻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다.

나는 중좌의 어깨를 두드려 고무했다.

《아버님, 생각이 짧았던 저를 용서하십시오. 그 애를 꼭 군관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중좌는 사과의 심정을 표하며 깊숙이 머리를 숙이었다.

《네가 내 마음을 리해했다니 좋다. 군대에서도 미술은 얼마든지 할테니 조금도 걱정할게 없다.》

로인은 만사름이 놓이듯 환한 웃음을 지었다.

《!...》

나는 박로인의 모습이 하도 돋보이며 존경어린 눈길로 마주 보기만 하였다. 이렇듯 시대의 사명감을 철저히 간직한 인민을 정복할 자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가슴 뿌듯이 안겨 들었다.

야전차는 가고 있다

리정술

굽이굽이 산길은 험하고
계곡의 바람은 차가웁구나
장군님 다녀 가신 전선길 따라
내 오늘도 취재길 걷는다

살얼음 깔린 령길우에도
야전차를 밀어 가신 뜨거운 자욱
고요한 산기슭 샘터에도
찬물을 드시던 못 잇을 사연
한자 두자 쉽게 적을수 없구나

아슬한 철령의 산굽이를 도니
야전차의 동음소리 금시 들려 울듯
그리움에 젖는 이 가슴속에
사무치게 안겨 오는 생각이여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달려 온 차창가에
아직 눈서리 녹지 않았건만
또다시 21세기 찬비속을 헤치며
전선으로 가고 있는 야전차

장군님 몸소 조향륜 잡으시고
조선의 선군길 열어 가시는
험난한 초행길 따라 걸으며
나도 눈비에 젖는다

오, 장군님이시라고 어찌
눈바람 비바람이 차지 않으랴
흔들리는 야전차안에서
잠간 쉬시는 쪽잠이 편할수 있으랴

병사들을 혁명의 기둥으로 믿으시고

벼랑끝에도 하늘땅끝에도
장군님 찾아 가신 그 험한 길을
취재수첩엔 다 적을수 없어
내 심장의 벽에 새기나니

저 남강의 푸른 물도 전해 주누나
총대를 놓으면 노예가 된다는
장군님 안겨 주신 철의 진리를
제국주의포위환을 짓부시는
승리도 총대우에 있다고...

월비산의 숲 바람도 속삭이누나
신군혁명은 민족의 생명선
자주의 하늘도 평화의 웃음소리도
장군님 높이 드신 총대우에 있다고...

언듯 고개 들어 나는 바라본다
최고사령부야전차를 따라
철의 사단과 군단들이 달려 가고
세계가 발걸음 맞추는 모습을

오늘도 나는 전선길을 걷는다
높이 쳐드신 선군의 총대로
이 행성우에
승리의 역사를 써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내 한결을 한결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우치며
반백의 이 시인도
장군님 병사로 전선길을 간다

첫봄

박상민

봄은
얼음 풀린 강물우에 내리는
착한 물오리입니까
보습날에 뒤번쳐 진
떡가루같이 손맛 좋은 흙입니다

봄은
앞내가 뽕죽지붕아래서
소리치는 발전기동음입니까
물의 덕이 온 마을에 골고루 나눠 지는
불빛 밝은 집집의 창문입니다

이른 아침
뜬김이 안개 같은 들에서
나를 부르는것이 봄입니까
논둑에서 세차게 펄럭이는 기발들이
봄들판의 풍경입니다

구름같이 염소떼는 산에 오르고
푸른 밀밭우에 봄은 제비되어 납니다
걸이대 휘도록 두엄을 뿌려
바둑판 같은 규격포전 걸구어 놓고
달디단 대동강물 먹이니
땅도 이 마음 안듯
흙발도 예달리 부드러웁니다

저기 모내는기계는
넓은 벌과 대동강 맑은 물에 취했는가
통탕통탕 봄노래를 뽑고
우리 마을 처녀들은 비단을 짜듯
해빛 반드러운 벌우에

모기계 타고 푸른 주단 퍼나갑니다
예나제나 변함 없는 봄이여도
웅기종기 빼기발 사라지고
새 모습이 그림 같은 내 고향의 봄은
이 가슴에 새로운 환희를 싹 틔웁니다

새 세기 첫봄
두벌농사 기쁨이 가져다 준
농민의 행복 또한 얼마나 큼니까
기쁨과 행복이 클수록
더 소중한 봄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조국
장군님 높이 드신 선군의 기치 따라
사상과 신념, 배짱과 정서가 하나가 된
내 나라의 더없이 위대한 봄!

아끼럽니다
간직하렵니다
백두의 흰눈같이 순결한
이 마음속 갈피갈피에
이 봄을 가득 채워 넣으렵니다

아, 이 땅이 벌에
내 한생의 자옥이 가득 차도록
벌과 함께 살 마음이 꽃 피는 봄은
새 세기의 모든 날과 날들을
무거운 벼단처럼 안아 보는
협동벌의 젊은 농민이
땀과 함께 묻어 갈
새 세기의 첫 씨앗입니다 행복입니다

상식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

지난해 어느 한 나라 회사의 컴퓨터제작자들은
지금까지 나온 컴퓨터들의 연산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슈퍼컴퓨터를 연구제작하였다.

이 컴퓨터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슈퍼컴퓨터라
고 한다.

이 컴퓨터의 연산속도는 초당 12조 3천억회로
서 슈퍼컴퓨터발전력사상 처음으로 초당 10조회
의 연산속도계선을 돌파한것으로 된다.

새로운 슈퍼컴퓨터에는 극소형처리장치가 8,19

2개 들어 있으며 기억용량은 6조바이트에 달한
다.

컴퓨터전체의 크기가 2개의 통구장만 하므로 2
8대의 일반 자동차를 동원하여야 이것의 조립품
을 다 옮겨 갈수 있다.

세계컴퓨터제작자들은 앞으로 몇년어간에 연산
속도가 초당 30조회, 1백조회에 달하는 슈퍼컴퓨
터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다.

주체85(1996)년까지만 해도 컴퓨터연산속도는
초당 1조 4천억회에 머물러 있었다.

시대의 발걸음

로정법

뛰는 사람

하얀 위생복에 방수포앞치마를 두르고 색깔 고운 반장화를 신은 두 처녀가 가공장에서 나와 팔팔 웃으며 정문으로 뛰어 갔다.

방금 우편통신원이 놓고 간 신문들을 직장별로 갈라 놓고 있던 안경 낀 경비원령감이 좁은 접수구창으로 고개를 숙 내밀며 《로동시간에 어델?》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딸기를 판대요. 요 정문밖 남새매대에서...》

《딸기? 춘3월에 딸긴 무슨 딸기?》

《겨울딸기. 그래서 더 막 먹구파요.》

두 처녀는 합창을 하듯 하며 아양을 떨었다.

출근시간이 되기 바쁘게 내다놓았던 출근부를 몽땅 걷어 들여다 그 누구든 관계없이 지각도장을 꼭꼭 눌러 대는 용수부동의 경비원령감도 예쁜 처녀들이 딸기를 먹고 싶다는데는 더 어쩔수 없는지 《빨리 뛰어 가거라. 다 팔리기전에...》하고 빙긋 웃어 보였다.

처녀들은 딸기 한봉지씩 사들고 인차 들어 왔다. 그들은 아, 아 하고 손을 내젓는 수위령감의 입에다 딸기 몇알을 억지로 넣어 주고 나서 자기네 일터로 걸어 갔다. 걸어 가면서도 희고 고운 손가락으로 봉지안의 딸기를 연방 집어 내어 연지바른 입술사이로 쭉쭉 밀어 넣던 한 처녀가 짹 짹 놀라 멎어 서며 동무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아이구, 또 똥다. 우리 <조아버지>가...》

체격이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활달해 보이는 미남자형의 중년사나이가 무슨 문건인가를 들여다 보며 사무실청사계단을 달리듯 쿵쿵 내려 오더니 잦은 걸음으로 마당을 꺾질러 포장반쪽으로 가고 있었다. 가공직장 처녀들이 사랑을 담아 《우리 조아버지》라고 부르는 지배인 조성호였다.

《기운도 좋지. 어떻게 하루종일 저렇게 뛰어다니실가.》

《아니야. 저러시다 저녁에 집에 들어 가면 발을 씻을 맥도 없어 그 자리에 쓰러질 때가 많대.

그러면 아주머니와 딸이 쓰러진 아버지한테서 양말을 벗기고 찬물에다 발을 씻어 드린대. 애기처럼.》

《호호, 총각적에 말이야. 처음 만나는 처녀와 산보를 나갔는데 산보를 나가서도 저렇게 걷는 바람에 처녀가 숨이 차게 따라 가다 못해 <몰라요!> 하며 팽 돌아 서서 울더래. 그러자 총각이 <안되겠구만.>했다나. 그래서 갈라 지고 말았대.》

《거짓말.》

《호호.》

두 처녀는 금방 목안으로 넘어 가던 딸기알이 캐꼭 개켜 나도록 허리가 까부러 지게 웃어 대었다. 그러다 입을 꼭 다물며 웃음을 거두었다.

포장반으로 들어 갔던 지배인이 문밖에 나서자 바람으로 다시 쿵쿵 뛰다 싶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또 똥다.》

그 속삭임소리의 여파는 경보신호처럼 순간에 공장구내를 놀래워 놓았다. 손님이 없는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하품을 하고 있던 리발사녀인이 입을 꼭 다물며 범을 본 할미처럼 황급히 문을 닫았다. 신문을 보고 있던 경비원령감이 밖으로 나와 오줌 마려운 사람처럼 서성거리다가 마침 담배꽂초를 아무데나 버리고 지나가는 한 청년을 붙들어 세워 놓고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가마니를 깔고 차밀에 누워서 무엇을 손질하고 있던 랑동차운전사가 히죽 웃으며 운전칸으로 뛰어 오르더니 발동을 걸자마자 정문밖으로 사라졌다.

《봄이 오지 않았니. 회령으로 달리기! 뛰자.》

두 처녀도 딸기봉지를 움켜 쥐고 달리기 시작했다.

회령시 방원리에 이들이 말아 경작하는 여러정보의 강냉이밭이 있었다. 씨뿌리기부터 제 손으로 해서는 가을에 가서 탈곡한 낱알을 저울에 떠서 농장에 고스란히 넘겨 주는 《우리 농장-우리 포전》이었다. 새봄이 왔으니 지난해처럼 또다시 일손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 가지고 거기로 갈 때가 온것이라고 처녀들은 생각하였다.

《금순이.》

정신이 번쩍 드는 찌렁찌렁한 목소리가 달려가던 처녀들을 그 자리에 툅 얼춰 세웠다.

지배인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무섭게도 격렬하게도 침착하고 무겁게도 보이는 지배인의 눈길이 와달자 두 처녀는 딸기봉지를 뒤로 가져 가며 몸을 웅송그렸다.

자기만 나타나면 모두가 술렁술렁 뿔어 대는것이 보기가 미안하여 불려 세웠지만 더욱 몸둘바를 몰라 하는 처녀들을 보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다.

《여보, 제발 사람들이 보는데서 그렇게 뛰지 마세요. 당신의 걸음새가 원래 그렇긴 하지만 자신이 수백명 종업원들을 이끄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지요. 체대가 크고 나이도 있는분이 구내안에서까지 그렇게 다우쳐 다니면 아래사람들이 숨 가빠 살겠어요? 그런데다 욕을 할 땐 또

사정이 없지요? 그러니까 저녁에 들어 와선 꼼짝 못하고 쓰러지잖아요. 자기 몸을 봐서라도…»

먼저 저세상으로 가버린 안해가 병석에 누워서도 드문히 일깨워 주던 말이었고 중년나이의 서로 만난 지금의 안해도 신통히 그런 말을 하였다. 그래서 구내안에서는 될수록 자기의 걸음새를 조심하느라 했는데 그만 오늘 또다시 그 버릇이 나온것이였다.

조성호는 자기가 처녀들을 불러 세우고도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것을 생각하였다. 지켜보는듯 한 자기의 눈길에 처녀들이 더 기가 질러 있다는것도 깨달았다.

금순이라고 불리운 처녀는 일숨씨도 곱고 얼굴 생김새도 별반 나무랄데가 없는데 왜 그런지 대상이 나타나지 않아 30이 거의 되어서야 약혼을 했다는 처녀였다.

그래서 이제라도 혹시 총각쪽에서 파혼선고라도 해오지 않을까 처녀가 걱정한다는 소리를 들은 생각이 났다. 그 소리를 누가 했던가. 관리국 당비서 한경숙이가 했던것 같았다.

《총각녀석들이 눈이 멀었지. 왜 우리 금순이 같은 처녀를 고르지 않구…»

사업소에 내려 올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하더니 한경숙조차도 힘들게 성사된 처녀의 일이 혹시 튀지나 않을까 윈심을 쓰는 눈치였다.

지배인의 눈길이 와당자 금순은 얼굴이 당장 새빨개 지며 《딸기를 판다기에 일을 하다 말고… 잘못…» 하고 묻지도 않는 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슬금슬금 다 꺼내먹고 몇알밖에 남지 않은 딸기봉지를 두손 받쳐 내보였다.

《3월인데 벌써 딸기가 나왔구만. 무얼 그렇게 재미나게 먹으며 가나 했더니…»

지배인은 웃었다.

《그런걸 내가 놀래워 놓았지? 딸기 한알 맘놓고 먹지 못하게… 금순이, 그렇지?》

《아닙니다.》

《그럼 왜들 뛰었지?》

《지배인동지가 뛰시길래 오, 우리 사업소에 또 바쁜 일이 생겼나보다 하구 같이 뛰었어요.》

조성호는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는 처녀의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일꾼들이 뛰면 같이 뛰여 주는 이들이 있어 모든것이 어렵고 곤난한 오늘에 와서도 사업소의 일이 예전과 다름이 없이 잘되어 나간다고 조성호는 생각하였다. 사업소가 《3대혁명붉은기공장》의 영예를 지닌것도 강행군을 하던 해, 가장 어려운 때였다는 새삼스런 생각이 들었다.

조성호는 사랑스런 이들에게 할 일이 많다는데 대해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고 이들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 충격을 느끼었다. 그러면 이들은 그 어떤 일이든 다하겠으니 지배인동지는 잘 이끌어만 달라고 자기를 고무할것이다.

《지난해에 금순동문 그 고운 손으로 공장일은 공장일대로 다하면서 농장에 나가 농사를 짓느라고 혼났지?》

《힘은 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동상앞에서 우리가 다진 맹세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처녀는 발랄하게 웃으며 대답하였다.

《늘 수심에 잠겨 있던 금순이가 이렇게 활짝 웃는걸 보니 기분이 좋구만. 약혼을 했다면서?》

그 녀석이 어디에 돌아 다니다가 이제야 왔대? 금순이가 그렇게 애 타게 자기를 기다리는줄도 모르구…»

《아이참, 지배인동지도…»

처녀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빨갱게 물 들었다.

《잔치국수를 혼자 먹지 말라구.》

《오시겠습니까?》

《가지 않구. 우리 사업소의 만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 <조아버지>가 안 가서야 되나. 동생들을 먼저 보내면서 내가 금순이를 얼마나 걱정했다구. 꼭 가겠소.》

《아이 좋아라.》

그리고는 얼굴을 싸쥐고 돌아 서며 훌쩍 훌쩍하기 시작하였다.

《하하.》

조성호는 허리를 젖히며 큰소리로 꺄꺄 웃었다.

《기분이 좋구만. 봄이 와서 그럴가? 금순이 같은 좋은 처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오. 앞으로 일이 더 잘 될 거라는 예감도 들구… 봄이 봄인것 같소. 그런데 이보라구. 우리가 인차 농사하러 올라 간다니까 농장에서 좀 시듯해 하는 사람들이 있구만.》

오겠으면 모내기나 김매기철에 와서 좀 도와주든지 하고 작년처럼 땅을 푹 때내서 우리 자체로 농사를 할 생각을 말아 달라는거요.》

《그럼 지난해에 우리가 농사를 잘 못했단 말입니까?》

금순이가 성급히 수건으로 눈굽을 푹푹 찍으며 묻는 말이었다.

《그 반대지. 동무들때문에 농사군의 체면이 꺄이운 사람들이 더러 있는것 같소. 자 그럼…»

조성호는 금순이에게 눈을 끔찍해 보이고 나서 차에 올랐다....

무산령을 넘어 선 승용차는 강폭이 좁아 진 두만강을 옆에 끼고 우리 나라 북부국경연선도로를 따라 쾌속으로 달렸다.

이 길은 사업소의 자동차들이 늘 다니는 길이여서 일명 《업무도로》라고 부르는 길이였다.

편리상 《업무도로》옆에 위치한 방원리에서 자기들이 농사를 시작한것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탄생 80돛이 되던 주체86(1997)년부터였다. 력사의 이날을 맞으면서 회령시를 잘 도와 줄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

을 받고 인차 나갔으니까 올해까지 하면 벌써 4년째이다. 4년이 아니라 그 땅은 어머님의 고향을 위하는 변함 없는 마음처럼 앞으로도 계속 《내고향포전》으로 남아 있게 될것이라고 조성호는 생각하였다.

사색을 불러 주는 고르로운 발동소리를 들으며 조성호는 자는듯이 눈을 감고서 지나간 해들의 농사를 돌이켜 보았다.

첫해 농사가 제일 어려웠다고 할수 있었다.

도와 주는바에는 도와 준 사람도 보람이 있게 아름답지만 15정보나 되는 땅을 푹 떼어 받았다.

종자와 비료는 물론 호미 한가락도 농장에 손 내밀지 않기로 하였다. 포전옆에다 집도 한채 지었다. 늘 어머님을 생각하며 일하자고 아름답리이팔로 귀틀집을 짓고 붉은기를 띄웠다.

하지만 막상 그 땅에다 씨를 물을적에는 씨와 함께 산과 같은 걱정도 함께 묻었다. 그러나 걱정하는 수백의 그 마음들이 진한 거름이 되고 습이 되어 씨앗들은 충실하게 움 텃고 소담하게 자랐으며 소원하던 바로 그런 열매들을 맺어 주었다.

탈곡한 낱알을 저울에 떠서 농장에 넘겨 주던 날에는 구경꾼이 많았다.

그날 내려 왔던 시농촌경영위원회 일군은 강녕이 정보당 평균수확고를 어느 해인가 강녕이농사에서 장훈을 부른바 있는 신흥군 어느 농장의 제일 잘된 포전의 정보당 수확고와 대비하였다.

이듬해에는 자신을 가지고 여러정보의 땅을 더 넘겨 받았다. 가족들까지 이악하게 달라붙어 지은 이듬해 농사도 불만 하게 잘되었다.

농사를 처음 해보는 도시사람들이 그런 땅에서 매해 장훈을 부른다고 놀라와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힘이 있는》 기업소이니 아마 비료와 농약을 《쏟아 부었을거요.》 하고 입을 비죽거리며 원새끼를 꼬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농사군의 체면이 깎이운 농장의 일부 일군들이 그러하였다.

그들은 산성화가 될대로 되어 이제는 《빠만 남은》 땅에다 화학비료를 아무리 쏟아 부은들 강녕이가 그렇게 잘될수 없다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체면이 깎일가 두려워 모르는척 하였다.

청진에서 여기까지 퇴비나 사람을 싣고 오자면 기름값이 얼마, 로력비가 얼마 하고 따지고 드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일을 시작하기전에 열번, 스무번을 따져 본것이고 결국 생산된 알곡의 량이 매우 유익한 일을 했다는것을 증명해 보이였다. 하나를 넣어 세개, 네개를 얻었다는것이 큰것이 아니였다. 이 준엄한 시기에 우리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 하자꾸나 결심하고 달라붙은 사람들한테는 못할 조건이 없다는것을 소박하게나마 보여 준것, 특히는 어머님의 고향땅을 위하는 수백의 진심이 그대로 열매로 맺어준것이 바로 자기들이 바랐던 실리였다.

일군의 가정

무겁게 짐을 실은 손달구지가 침묵을 성글게 깔아 놓은 철길횡단점을 넘어 가느라고 애를 쓰고있었다. 소담스런 장미꽃타올수건을 눈언저리까지 차분히 내려 쓰고 치마허리를 끈으로 단정하게 동진 녀인이 달구지채안에서 달구지가 하자는대로 이리비틀 저리비틀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철도제복을 입은 감시원녀자가 급히 뛰어 나오는데 이에 앞서 달려 오던 승용차 한대가 급정거를 하면서 체격이 쑥 빠진 중년사나이가 씩하고 뛰어내리더니 거름달구지의 뒤를 성큼 밀어 주었다.

갑작스런 힘에 떠밀리어 앞으로 엎어 질듯 하면서 틀서덕 틀서덕 철길을 넘어 선 녀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뒤돌아 보았다. 출장을 갔던 남편이 눈을 끔쩍하며 웃고 있었다.

《아니, 래일쯤에나 오실것 같더니...》

녀인이 반색을 하며 열른 수건을 벗어 내밀었다. 조성호는 수건이 아니라 운전사가 주는 깨끗한 흰 걸레를 받아 들며 《당신이 이러는것 같아서 당겨 왔소.》 하며 다시 웃었다. 그리고는 차에서 멍텅구리장갑 한켠레를 찾아 끼고 뛰어 오며 《갑시다.》 하였다.

《이러지 마세요. 남들이 웃겠어요.》

녀인은 남편의 웃에 손이 갈세라 팔꿈치로 그를 조심스레 밀어 내며 조용히 웃었다.

《누가 웃는단 말이요. 내라고 이런 달구지를 끌고 가면 못 쓴답디까. 이신작적이란 좋은 말도 있질 않소. 누구나 이렇게라도 하자고 내가 먼저 말한것인데...》

《아니, 안됩니다.》

녀인의 말투는 특히 함북도 녀인들이 남편이나 손우 사람들한테 주로 쓰는 그런 깍듯한 《습니다》로 바뀌였다. 거기에는 이제 만난지 얼마 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어려움도 섞여 있었다.

《당신이 이런걸 직접 끌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이해합니다. 방원리농사가 당신사업의 전부도 아닌거요. 큰 파도가 온다던데 어서 배들도 돌아보시구 공장일도 돌보세요. 분기말이 아닙니까.》

틈 있는것 목장에도 한번 올라 가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리과대학에서 온 연구사선생이 당신 오셨는가 두번이나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녀인은 남편의 성미에 기어코 자기가 끝냈다고 할것 같아 겁이 났는지 달구지앞채를 막아 서며 어서 가라고 애원하듯이 하였다.

《저것 보세요. 사람들이 웃고 있질 않나요.》

철도제복이 그냥 이쪽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부러워서 그러는거요. 어서 갑시다. 이젠 차도 갖는데.》

《싫습니다. 걸이라도 가십시오.》

녀인은 눈을 내리깔며 반쯤 모로 돌아 서더니 달구지채를 잡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밀어 내고 그안에 들어 섰다. 어쩔수없이 옆으로 한발 물러선 조성호는 허허 웃으며 《여보.》 하고 불렀다. 녀인이 얼핏 눈길을 들었다.

《날 그렇게도 아끼고 싶소? 당신이 나를 안지가 언제라구.》

남편이 자기를 보며 그냥 웃고 있는데 부끄러워진 녀인이 얼굴이 약간 발갛해 지며 《뭘 그냥 그러고 서계세요. 어서 인도로 올라 서시질 않구.》 하고 밝게 웃었다.

《일군들이 이런 일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걸 번번히 알면서도 제 남편이 하는건 싫단 말이지.

하하, 당신 마음이 정 그렇다니 가긴 가겠소. 사실 오늘은 당신과 같이 이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이 일에서 일군이든 출장자이든 레외가 없기로 결정한것이 나의 큰 실책이었다는것을 말하려 했던거요. 사업소적으로 제일 출장이 많은 사람의 하나가 지배인인데 제자신이 제가 만든 굴레에 들어 갔으니 말이요. 당신한테 이런 짐이 지워질줄은 모르구... 영순이까지 군대로 갔으니 이제 도와 줄 사람도 없지. 아직 밖에 나다니기도 무안할 당신한테 오자부터 이런 일을 지켜서 정말 안됐소.》

자기를 위해 주는 녀인의 그 진정을 막아 그를 섭섭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인도로 올라 서며 조성호는 말하였다.

《당신이 언제 하라고 하겠습니까?》

녀인은 행복한 녀인들만이 지을수 있는 그런 웃음을 지어 보이며 《정문으로 들어 가실 때 경정도표판을 꼭 보고 들어 가세요. 그사이에 붉은 줄들이 썩 높이들 올라 갔습니다.》 하였다.

《저도 당신이 없는 사이에 한 댕칸 올려 왔어요. 요샌 당신도 계시지 않구 해서 그 붉은 줄을 올려 굵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오늘도 세달구지 째니다. 아직은 4등이나 5등쯤 되는데 지배인의 이름이 맨 첫번째로 있는만큼 붉은 줄도 제일 높이 올려 놓고 당신을 맞이하려던건데 그만 앞당겨 오셨어요.》

녀인은 쾌활하게 웃고 나서 달구지를 힘 주어 끌었다. 마침 내림받이여서 녀인은 춤을 추듯 저만치로 앞서 갔다.

(고맙소. 미영이, 당신은 내가 제일 힘겨워할 때 내걸에 서준 동지요. 중년상처는 대들보가 휘다던데 당신 같은 녀성을 다시 만나게 될줄은 몰랐구려.)

엄마를 잃은 자기의 슬픔보다도 40대가 다 지나가는 때에 와서 홀로 나앉은 아버지가 더 불쌍하여 가슴에 돌이라도 박힐세라 늘 부드러운 입김이 되어 주고 가정이라는 자기의 동지를 지켜 주던 딸애마저 군대로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던가.

딸애가 떠난다는것은 자기한테서 이제는 가정 그자체가 가버린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물론 자기가 딸한테 무조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한것이지만 막상 그 애가 떠나는것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들자 조성호는 어디다 호소할데 없는 외롭고 허전하고 울적해 지는 가슴을 불안고 혼자 모대졌다.

가정이라는것이 그때처럼 자기한테 가깝고 절실한것으로 생각된적은 없었던것 같았다.

안해가 있을 때에는 한달을 밖에 나가 살아도 집생각을 크게 해보지 않았었다.

하지만 자기의 보금자리를 지켜 주던 딸애마저 떠나게 된 때에 와서 성호는 이제는 저녁에 들어가도 자기의 가방을 받아 주며 맞아 들일 사람도 하루일을 물어 주며 걱정해 줄 사람도 더는 없을것이고 문에는 늘 쇠가 걸려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는것이였다.

빈 집을 지키는 그 자물쇠가 나갔던 사람을 어떻게 울린다는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급한 출장이 제기되어 그 준비를 해가자고 집에 오면 우선 문에 걸린 조그마한 그 쇠덩어리가 사람의 가슴을 찡하니 후려 갈것다. 그래 들어 갈가 말가 문앞에서 망설이다 들어 가면 텅 빈 방안에 서려있는 공허와 주인이 없는 옷장이며 경대며 이불장우에 얹혀 있는 트렁크에서 무서운 고독과 외로움이 덮치듯 쏘아 나와 갈아 입을 옷가지 몇개를 급히 찾아 가지고는 얼른 나와 버리곤 하였다.

딸과 함께 있는 지금도 종종 그런 경우를 당하곤 하는데 이제 그 애마저 가버리면 책상우에 《아버지, 나 학교에서 늦어 옵니다.》 하는 쪽지조차 찾아 볼수 없게 될것이였다.

그는 한때 총돌이 잦던 분계연선에서 수류탄을 들고 일선에 섰던 전투원이였다.

두세차례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도 넘겼고 그 과정에 심장과 의지가 강철로 버리어 진 그였지만 안해가 죽은후부터 시시로 맞다 들리곤 하는 그 고독만은 두려워 하였다.

그래서 성호는 늘 드바쁜 일속에다 자신의 심신을 묻어 버렸다. 그러나 숨통치에 숨 배여 오르는 물기처럼 고독은 그가 휴식과 안정을 요하는 시간이면 기다렸던듯이 괴로운 그의 몸과 마음속으로 젖어 들었다. 오직 부드러운 사랑만이 그것을 막아 줄것인데 자기의 동지를 지켜 주던 애기새마저도 이제는 것이 자랐다고 먼 곳으로 날아 가자고 푸드득거리고 있는것이였다.

딸도 그것을 걱정하는지 언제인가부터 그 애의 고운 눈에 고요히 자리를 잡은 수심의 그림자가 집 떠날 날이 가까와 올수록 짙어 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려워서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딸애의 눈은 항상 《어머니도 없는데 저까지 가면》 하는 애수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감히 눈물은

보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그런 눈물을 받자 하지 않는다는것을 알기때문이었다.

딸은 아버지를 끝없이 사랑하면서도 늘 두려워하였다.

하루는 빨아 널었던 아버지의 내의를 걷어다 차곡차곡 포개어 놓다가 력서를 바라보더니 《아이, 아버지의 생일이 멀지 않았네. 아버지, 그날에 아버지한테 술 한잔 부어 올릴 손님 한분 청해오지 않을까요?》 하며 방그레 웃었다.

《아버지, 우린 지금까지 공연히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가 입대할 때까지는 아직 한달도 더 남았는데 그사이에 새 엄마를 모셔 오면 될게 아니냐요. 아버지, 경진이 엄마를 모셔 오자요. 난 그 엄마가 좋더라.》

그리고는 두려워 하는 눈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어리광 부리듯 어색하게 웃었다.

공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 받던 날 한 도급기관의 책임일군이 사업소로 나왔다가 상처한 지배인의 생활을 걱정하던 끝에 자기가 한 녀성을 소개하겠으니 같이 가자고 그를 잡아 끌었다.

그 녀성에 대한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조성호가 일 보러 온 사람처럼 국장방에 앉아 있는데 무슨 문건인가를 요구하는 국장의 전화를 받고 그 녀성이 들어 왔다.

조성호는 우선 그 녀인의 침착하고 조용한 몸가짐에 눈길이 갔다. 봄물을 머금은 싱싱한 햇버들처럼 보기 좋게 빠진 녀인의 몸매는 유연하고 부드러웠으며 복스럽게 느껴 지는 얼굴에는 교태를 버린 중년녀인의 순박한 아름다움이 밖으로 내비쳐 질가 저어하듯 조심스레 감추어 저 있었다.

그후 서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안달이 난 국장이 이번엔 조성호의 딸을 그 녀성한테 데리고 갔다 와서 아버지앞에서 말을 시켜 보려 하였다.

《어떻더냐? 새 엄마가 마음에 들지? 네가 좋다면 아버지도 승낙하실거다.》

하지만 딸은 겁 먹은 눈으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감히 좋다 나쁘다 말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보면 조성호는 그 녀성을 만나본지 1년도 썩 지난 오늘에 와서야 그에 대한 딸애의 의사를 듣게 된것이였다.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엔 그 녀성이 너무 곱더구나. 나보다 젊기두 하구...》

《아버진 자기자신을 지내 낮추시는것이 흠이에요. 아버지, 그 엄마를 모셔 오자요. 참 좋은 엄마예요. 전 아버지 몰래 그 집에 세번이나 놀러 갔었어요.》

《뭐라구?!》

조성호의 눈에 불씨가 튀었다.

질겁한 딸애가 황황히 다음 말을 이었다.

《국장아저씨가 자주 놀러 다니라고 하셨거든

요.》

《국장아저씨가?》

조성호는 억이 막혀 웃어 버리고 말았다.

《이젠 가지 말아.》하고 엄하게 말을 하면서도 조성호는 그때문에 빈번히 전화를 걸어 오는 국장의 사람 좋은 얼굴이 떠올라 다시 빙그레 웃음을 머금었다.

《여보, 지배인동무. 내가 뭐 제가 데리고 일하는 과부나 하나 처리하지 못해 이러는줄 아오?

두고 보시오만 팬찮은 녀성이요. 까놓고 말해서 난 지배인동무보다 녀자쪽에서 옹호려 하지 않아 조바심을 치고 있소. 그러니 그쪽에서 좀 적극성을 보이라 그 말이요. 당신한테야 뒤걸음질을 모르는 그런것이 있잖소. 수류탄을 빼들고 내달던 때처럼 육탄이 되어 뛰어 들어 보구려. 우리 미영동무 가슴복판에서 한번 짱 터져 보란 말이요. 동무한테서 그런것을 빼놓으면야 조성호가 아니지... 젠장, 홀아비한테도 장가드는 법을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하니.》...

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그 녀성을 찾아 갔던 이야기를 하였다.

《집이 참 깨끗하고 아늑하고 따뜻했어요. 천연색텔레비죤도 있고 녹음기도 있고 고운 꽃들만 팔아서 피우는 꽃단지들도 많고 가마랑, 그릇이랑 부엌세간들이 기름기가 짙고 거울처럼 반짝거렸어요.

<국장아저씨가 또 가보라고 하시던?> 그 엄마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닙니다. 난 아버지 몰래 왔어요. 아버지가 아시면 야단 맞습니다.>

<그럼?>

제가 머리를 숙이며 대답을 못하니까 그 엄마는 한참동안 제 얼굴을 찬찬히 내려다 보다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과자다반을 내려다 놓아주었어요. 그다음부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느질만 했어요.

두번째로 가니까 그때 그 엄마가 좀 언짢아하는 기색이였어요.》

...딸이 세번째로 그를 찾아 간것은 신체검사를 하고 나온 날 저녁이라고 하였다.

전번에 왔을 때 언짢아 하던 생각이 나서 문밖에서 좀자르고 있는데 그가 나왔다.

어쩔줄 몰라 하는 딸애를 보자 녀인은 매우 심란해 하며 《어른들도 모르게 네가 자꾸 이렇게 다녀서 되겠느냐? 그럼 못 쓴다. 돌아 가거라.》 하였다.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전 인차 군대로 갑니다. 오늘 최종담화를 했어요.》

그 말을 하려니 눈물이 나와 인차 돌파 서서 한참 뛰고 있는데 뒤에서 《영순아!》 하는 소리

가 따라 왔다. 숨 가빠 뒤쫓아 온 녀인이 영순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쥐며 말없이 집으로 잡아 끌었다. 경진이까지 따라 나와서 《누나야 가자, 가자.》 하였다.

영순이를 방에 눌러 앉히고 부엌으로 내려 가며 녀인은 《오늘은 내가 지어 주는 저녁을 먹고 가거라. 네가 늦으면 아버지야 어데서건 한술 잡수시겠지.》 하였다.

저녁상을 물린후에도 녀인은 한동안 영순이와 마주 앉아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영순이한테 말을 시키고 자기는 그저 듣기만 하였다.

《아버지네 공장은 시내 세군데나 갈라져 있어요. 수산사업소까지 아버지의 관할하에 들어와서 아버지 매우 바쁘세요.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승용차가 있지만 정 급한 일이 아니면 노상 뛰여 다니세요. 그러시다 저녁에 들어 오시면 발을 씻을 맥도 없어 그 자리에 그냥 쓰러지실 때가 많아요. 그런 날엔 엄마와 제가 아버지한테서 양말을 벗기고 발을 씻어 드렸어요. 엄마는 대야에 찬물을 떠다 아버지의 발을 잠가 두리며 <너희 아버지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여서 이렇게 종종 식혀 주지 않으면 까맣게 타서 재가 되고 말거다> 하며 웃으시곤 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살아계실 땐 아버지를 <애기>처럼 보살펴 드렸어요.》

그 말에 녀인은 낯색이 흐려 지며 처음으로 한 마디 물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 이젠 네가 그렇게 해드리겠구나.》

《엄마에 대면야 저야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아버지를 보기가 너무 피로와 가끔 발은 씻어 드려요. 제가 찬물대야에 발을 잠가 드리면 아버지 <어, 좋구나, 좋구나. 내가 씻지, 내가 씻으마.> 하면서도 누운채로 눈도 뜨시지 못해요.》

헤여질 때에 와서 녀인은 더욱 심란해 하였다.

《난 우리 집에 찾아 오는 네 마음을 안다. 인차 군대로 가게 된다니 네 심정이 더욱 이해가 된다. 네가 자주 찾아 오지, 이제는 국당비서 어머니까지 권고를 하지. 그래서 여러번 고쳐 생각해 보았지만 이젠 막 속상하기만 하구. 처녀로 시집갈 때보다 결심하기가 더 어렵구나. 내가 처녀로 그런 권고를 받았다면 벌써 몇번이나 시집을 가 버렸을거라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용서하여라. 그리고 그런 훌륭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부디 군사복무를 잘해 다오.》

그러던 녀성이 집으로 왔다.

그날 딸애는 이런 일기를 남겼다.

4월 10일

새벽 4시에 마당에 차가 와서 밟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잠든 나를 깨울세라 소리없이 문을 열고 나가시었다.

《아버지, 오늘은 아버지의 생신날입니다.》하고

일어 나며 말씀 드리니 아버지는 방원에 다녀와서 조반상을 받겠다고 하시었다.

방원은 여기서 300리 길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7시경이면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 오실거라고 생각하였다. 어느 때에도 그 시간에 돌아와서 출근시간을 지키시던 아버지였다.

마당에 나가 떠나는 차를 바라드리며 다시 《아버지, 이 딸이 인차 군대로 가겠는데...》 하니 아버지는 《오냐, 오냐. 네 마음을 안다. 인차 다녀와서 내 딸이 부어 주는 술 한잔 받으마. 그리구 저녁에는 내 딸이 좋아 하게 아버지와 술 한잔 나눌분을 모시고 오지.》 하시었다.

하지만 오늘 따라 아버지는 8시가 지나도록 오시지 않았다.

울지 않으려고 노래를 불렀다.

함박눈 송이송이 눈 내리는 밤
아지마다 눈꽃이 곱게 피었네
아버님 오시려나 달려 가 보면
흰 눈만 내 발자취를 덮어 줍니다

필요없이 전화를 하면 노하시는 아버지, 아버지방에다는 하지 못하고 무뎠던 경비원할아버지한테 물어 보니 방금 공장합숙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타고 나갔는데 어대진소금밭으로 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홀로 울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아버지방으로 뛰여 들어 가 덤비면서 수화기를 움켜 잡으니 국장아저씨였다.

《너 우는구나.》

아저씨는 내가 좀 더 울도록 기다려 주시다가 《영순아, 아버지를 이해해야 한다. 아버지 제 생일을 생각할새가 없으시다. 매일모레면 태양절이 아니냐. 너도 알지만 나라사정이 어려운 이때에 원군사업을 한번 조직하해도 그렇고 후방가족세대들에 탄 한차씩 넣어 주제도 그렇고 아버지가 뛰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락심 말고 기다려라.》

내 아버지가 어데 가시는지 알아 보고 저녁에는 꼭 들어 가서 영순이가 부어 주는 술 한잔 마시도록 해보자.》 하시었다.

아버지는 저녁에도 늦어서야 들어 오시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 서며 《내가 오늘 우리 영순이한테 큰 죄를 졌으니 어떻게 한다? 무얼 맛있게 차렸는지 어서 들어 오렴. 아버지 배가 출출하다.》 하시는 말씀 한마디에 하루종일 속에 웅쳐있던것이 봄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제 인차 국을 덤혀 울려 갈게요.》

서둘러 곤로에 불을 지피려니 저절로 《우리 엄마 기쁘게 한번 웃으면》 하는 노래가 나왔다.

《아버지, 이거 좀... 저 혼자 못 들겠어요.》

대답이 없으시었다.

가슴이 덜컥해서 방문을 빠금히 열고 들여다보니 아닐세라 베개도 없이 팔베개를 하고서 아버지가...

눈물을 툭툭 흘리며 양말을 조심스레 벗겨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영순아》 하며 국장아저씨가 빙글빙글 웃으며 들어 오시었다.

《영순아, 내가 누굴 모시고 왔는지 얼른 밖에 나가 보렴.》

《어머니!》

나는 문턱을 넘어 서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어머니한테 왈각 매달렸다. 그리고는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울고 있는 나와 정신없이 뿔아 떨어 진 아버지와 발치에 놓인 찬물대야를 한참동안 말없이 지켜 보고 서 있던 어머니가 따스한 손으로 나의 손목을 꼭 잡아 주며 《영순아, 어서 아버지한테 저녁상을 차려 드리자.》 하시면서 먼저 부엌으로 내려 서시었다.

아, 어머니, 고마우신 나의 어머니...

5월 X일

나를 엄마라고 살뜰하게 부르며 눈물이 방울방울 고여 나는 그 고운 얼굴을 내 볼에 따갑게 비벼주고 떠나간 내 딸 영순이를 대신하여 오늘부터 어머니가 너의 일기를 이어 보련다.

재가의 문턱은 높구나. 들어 설 때도 힘들게 넘어 섰지만 문 열고 밖으로 나오자니 그 문턱은 더욱 높았다. 문을 열면 즐기던 생활이 흘러 가는 대도시의 거리, 그 흐름속에 즐거이 끼여 들던 어제가 그리웠다.

나를 보는 동리아낙네들의 눈길이 두렵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이 더 두려워 밖에도 못 나가고 경진이가 어서 학교에서 돌아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고독하게 앉아 있으려니 재가를 하겠으면 평범한 노동자를 택할것이지 왜 이런, 하는 후회마저 들었다.

하는 일없이 가만 앉아 있기가 더 고통스러워 너자의 손이 가본지 오랜 집안의 구석구석을 거두고 드문드문 떨어 저 나간 세면장의 타일을 내 손으로 붙여 보려고 애 쓰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찾았다.

미장도구를 든 중년노동자와 손달구지에다 세멘트와 모래, 타일을 싣고 온 처녀 둘이 공장에서 지배인동지네 부엌과 세면장을 수리해 주라고 해서 왔노라고 하였다.

그들을 돕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다.

점심에 들어 가지 못하니 기다리지 말라는 전화였다.

노동자들한테다 서둘러 점심상을 들여 놓아 주고 나서 부랴부랴 남편의 점심구력을 챙겨 가지고 집을 나섰다.

바야흐로 푸른 계절을 맞고 있는 저 산, 항구

에서 들려 오는 힘찬 배고동소리, 지나가는 전차, 아, 얼마나 좋은가!

운전사는 어디 갔는지 기관실덮개를 열어 젖히고 손수 차를 정비하고 있던 남편이 《당신이요?》 하며 맞아 준다. 반가와 하는 눈빛, 내가 방금 그려보던 작업복을 걸친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이 다.

《당신도 점심전이겠는데 복잡한 식당으로 가지 말구 우리 저기로 갑시다.》

점수실의 온돌방에다 점심구력을 펴놓으니 남편은 신발도 벗을 새가 없는지 영치를 대충 붙이고 앉아서 밥술을 든다.

《그렇게 바쁘세요?》

《응, 난 이제 중소. 당신도 드오.》

《좀 천천히 잡수세요. 그러다 목 메겠어요.》

보다 못해 웃으며 더운 물 한고뿌를 따라 드려니 아닌게 아니라 목이 메이던 모양인지 꿀꺼덕 소리를 내며 한모금 힘들게 넘기고서 허-하며 싱긋 웃는다. 한개 기업소를 이끈다는 어른이 이럴 때 보면 왜 이처럼 단순할까. 《어머니가 살아 계실땐 아버지를 애기처럼 보살펴 드렸어요.》 하던 영순이의 말이 떠오르며 왜 그런지 마음이 즐거워진다.

《운전사동문 어디 갔어요?》

《방원에 보냈소. 거기선 지금 강냉이영양단지를 하오. 한사람이 그림소.》

《그럼 당신이?》

《바쁠 때마다 우린 그렇게 하오.》

《그렇게 바쁘다면 집수리는 왜 보냈어요?》

《집수리라니? 그건 무슨 소리오?》

당장 뜨던 밥술을 밀어 놓고 전화통을 잡는다. 성미가 보통 급하지 않다고 하더니, 공연히 그 말을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박동수직장장을 여기로 보내오.》...

《동무가 우리 집에 사람을 보냈소?》

그 말을 할 때 남편의 눈에서는 불씨가 펄펄 튀었다. 《지금이야 어느 켜데?》

그 불씨에 당장 주눅이 든 뚱뚱트레한 40대사나이가 이럴 때 자기가 해야 할바를 얼른 알아차리고 수화기를 들었다.

《오동무요? 즉시 철수해 가지고 공장으로 돌아오시오. 지금 당장...》

그리고는 우물우물하며 남편의 눈치를 보았다.

《나가고오.》

어쩌면... 살림도 새로 났으니까 체보다 나를 생각해서 사람을 보냈겠는데 그런 사람한테다...

《그렇게 바쁘다면 저도 가면 안될가요? 방원이라는데 말입니다.》

그 말에 남편의 낯색이 어지간히 풀렸다.

《그래 주겠소? 그래 주오. 당신이 가면 노동자 동무들이 좋아 할거요. 고무도 되구.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동무들이 다 좋다오.》

겨울난 무우를 있는대로 다 꺼내고 시장에서 달래를 몇줌 사다 봄냄새가 나게 씨원한 나박김치 한통과 국수를 해가지고 그들을 찾아 가니 땀 흘리며 일하던 처녀들이 《어머니!》 하고 달려들 나오며 그렇게 반가와 한다.

휴식참여 노래를 부르라고 성화를 시켰다.

노래만은 제발 다음번에 부르자고 사정하니 남편이 보다 못해 《좀 가만 놔둬라. 못 살게 굴지 말구.》 하고 편을 들어 주고는 기분이 좋은지 껄껄 웃는다.

생활은 어제에 머물러 있는것이 아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의미로 보충이 되고 풍만해 지는 우리 생활, 그 생활의 한몫이 나한테도 차례진것이다.

높아만 보이던 낯선 집의 문턱을 나는 이렇게 넘어 섰다.

×월 ×일

나의 발이랑번호는 97번이다. 그 이랑을 맡은 나의 번호도 97번.

내가 이제 여기서 비료주기를 끝내고 새 이랑을 잡아도 그 번호가 따른다. 말하자면 씨앗을 묻을 때부터 김을 매고 비료를 주고 거두어 들일 때까지 내가 책임지는 땅이다.

가을에 가면 성스런 어머니의 고향땅의 길지 않은 이랑에 바친 나의 땀과 량심의 무게가 정확히 계산될것이다.

나의 량옆으로는 하나처럼 예쁘고 일손이 매우 가공공 장혜선과 리영희, 차성림과 리영애가 서 있다. 그들과 몇사람 건너편에 처녀들의 《만언니》 금순이가 있고 좀 더 멀리로 불룩한 비료주머니를 옆구리에 찬 남편이 보인다. 남편은 스프링바람에 반바지차림인데 목에다 수건을 걸쳤다.

북관땅의 강냉이는 삼복철에 가서야 부쩍 크다더니 키를 넘은 강냉이발속은 찌물쿠는 더위에 숨이 각각 막히고 좁아 진 이랑속을 헤치고 나가 노라니 깔깔한 강냉이이파리들이 손목과 얼굴과 목부위를 아프게 쓸친다.

《어머니, 제가 마중 나올께 천천히 따라 나오세요.》하는 혜선의 말에 영희가 《작업뒤끝엔 엄격한 후열이 있어요. 한포기라도 건너 뛰었다가는 그것이 실수든 무엇이든 사정이 없습니다. <조아버지>성미에 어머니라고 가만 놔둘리가 없으니...》 하며 깔깔 웃는다.

《그때문에 금순언니도 몇번 울었는지 몰라요.》

성림이가 금순이쪽을 바라보며 한마디 더 보낸다.

《글쎄 이젠 약혼까지 한 언니를... 언니가 너무 분해서 <너무합니다. 언제 마음 놓고 화장 한번 해볼새가 없이 이러는데도 지배인동진> 하고 눈물을 툭툭 떨어는걸 보려니 우리 가슴도 막 쓰르르 했어요.》

《호호.》

성림이의 노죽스런 말에 처녀들이 좋아라고 웃어 댄다.

《첫해 농사를 할 때에 이랑들에 드문드문 빈포기가 보였어요. 김을 대충대충 매고 나온 이랑도 있었어요. 책임추궁을 하해도 누군지 알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리영애가 발이랑에 번호를 달게 된 사유를 말한다.

줄렬한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 동무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사소한 부주의나 량심의 빈 구석을 남길수 있는 무질서를 막자는 의미에서도 그렇다.

동무들은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자기의 이름을 적어 넣고 도장을 찍는다, 그것은 나라앞에 자기가 책임진다는 뜻이며 자기 량심의 떳떳함을 의미하는것이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

혜선이한테서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나는 사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서는 어디에 가도 검사를 하지 않고 받아 들인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에 기울인 노력과 투쟁에 대하여 내절로 상상해 보았다.

×월 ×일

남편이 텔레비존앞에 앉아서 혼자 육설을 퍼부어 대고 있었다. 어쩌나 험하게 욕을 해대는지 로동자들한테도 저러시는가 하는 아짜아짜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방금전까지 《여보, 래일 아침 과장급이상 일군들이 로동자들앞에서 룰동체조시범출연이 있는데 당신 좀 가르쳐 주오. 태권도동작은 괜찮게 되는데 룰동체조는 잘 안되거든.》하며 록음기를 틀어놓고서 기분이 좋았던 남편이었다.

《당신 누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누굴 욕하세요?》 그래서야 남편은 몇척은지 빙그레 웃으며 《하늘에 대고 욕을 하던 중이요. 래일 출항식을 가지자고 조직사업을 해놓았는데 날씨가 망하게 노누만. 북동풍이 15m 로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아 작은 배들한테 좋질 않소. 젠장, 여보, 랭수나 한사발 주오.》 하였다.

언젠가 방원에 김매기를 나가자고 조직사업을 해놓았는데 비가 온다고 하여 애매한 방송원녀자한테 욕을 해대던 남편이다. 하지만 그때와 오늘 남편의 심정을 대비해서는 안될것이다.

래일의 출항식을 보자고 남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고달프게 뛰어 온 남편의 수고를 이 안해보다 더 잘 알 사람이 어디 있으랴.

《여보. 오늘 50마력 기관선 두척을 바다에 띄웠소. 그걸 건조하느라 우리 동무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고. 당신 기르는 돼지 있지? 당신이 한턱 쓰오. 24마력 세척까지 하면 우린 제일 어려운 이 1~2년사이에 다섯척의 배를 우리 손으로

무슨 셈이 되오. 그뿐인줄 아오? 200마력 만능선 에다는 큰맘 먹고 최신전광설비를 들여 놓았소. 바다에 나가면 우리 배의 불빛이 제일 환하다 오.»

그렇게 기뻐 하는 남편을 보노라니 불현듯 《나는 행복한 너자다.》 하는 새삼스런 생각이 들었다.

《정치망 두틀이 해결되었소. 당신 정치망이 뭔지 알지? 덩장이라고도 하오. 그 덩장에 쓸 닻이 걸렸구만. 덩장 한대에 100kg이 넘는 무쇠닻이 22개나 들어 간다오. 파철수집을 호소했소. 당신이 앞장서 주오. 덩장어로까지 잡하면 우리 자체로 잡는것만을 가지고도 가공품의 원자재를 충당하게 될것 같소. 그렇게만 되면 올해 계획을 하게 되오.》

바람새 좋은 바다가의 저녁녘.

출항을 앞둔 부두는 흥성거린다.

연유를 보충하고 음료수통을 채우고 뿔나무를 패서 싣는 배가 있는가 하면 남새와 식량, 간장통과 로보술통을 싣고 온 네바퀴밀차를 반갑게 맞아들이는 배도 있다.

지령실에 모였던 선장들이 나오고 기관들에 발동이 걸리자 부두가는 삽시에 통통거리는 배소리와 취주악대의 나팔소리, 배사람들에게 꽃목걸이를 걸어 주는 가족녀성들의 떠들썩한 목소리와 웃음소리들로 짝 차버린다.

《당신도 나와 보오. 꽃목걸이 세개를 특별히 잘 만들어 가지고...》

누구한테 걸어 주려는것인지 지휘선에 타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당신 맘나는대로 걸어 주오. 모든 동무들이 특별히 다 일을 잘했다고요.》 하듯 손을 내저어 보이며 환하게 웃는다.

×월 ×일

남편이 소대가리 하나를 가져다 주며 이것을 랭동고에 넣어 두고 매일 200g 씩 갈라서 박동수 직장장네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한다.

장기질환으로 앓으면서도 직장일을 원만하게 이끌고 있는 좋은 일군이지만 사생활에 들어 가선 절제가 없어서 약으로 쓰라고 무얼 좀 구해다 주면 그 병엔 금물이라는 술까지 받쳐서 한꺼번에 해치우고 만다고 하였다.

《그 사람의 부인이라는 너자도 별반 나온데가 없는것 같소. 술버릇이 교약한걸 생각하면 다 걸어 치우고 싶지만 어찌겠소. 병이야 고쳐 줘야지.》

뿔까지 그대로 달린 황소대가리를 도끼로 패서 200g 씩 만드느라 땀을 뻘뻘.

하지만 《여보, 200g 이요. 뼈 한조각도 에누리 없는 200g 씩...》하던 남편의 말을 생각하니 절로 마음이 즐거워 진다.

《에그, 남들은 모두 통이 큰 어른이라 하던데 이제보니...》

혼자 말하고 혼자 웃었다.

×월 ×일

오늘까지 360바께쓰의 쌀뜨물을 목장에 날라갔다. 쌀뜨물은 소나 돼지만 먹는줄 알았더니 염소와 양들도 먹고 계사니와 닭, 지어는 토끼들까지 먹는다. 짐승마리수가 늘어 난다고 남편이 그렇게도 좋아 하기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이제는 일과처럼 되어 버렸다.

《여보, 내가 보배덩이를 데려 왔소.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거든. 리과대학 생물학부에서 세포공학을 전문한 청년연구사인데 연구현지가 마땅치 않아 돌아 가는걸 불렀었던 말이요. 우연이요. 차에 빈 자리가 하나 있길래 배낭을 무겁게 지고 걸어 가는 청년을 하나 태웠던것인데 그런 보배가 아니겠소.》

온지 이제 1년 남짓한데 벌써 은을 내기 시작했다. 과학이 좋긴 좋거든. 난 그 선생한테 해준 것이 없소. 실험실적연구는 과학원에서 다 해가지고 온거구 그 선생이 연구한 몇가지 미생물사료를 생산에 도입하도록 설비를 좀 꾸려 준것뿐인데 벌써 그 덕을 톡톡히 보게 된것 같소.

돼지들이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오. 증체량이 알리구. 버섯재배도 그 선생이 손을 좀 대더니 확실히 다르오. 총각이라면 여기서 좋은 색시를 하나 얻어 주고 놀려 앉히고 싶은데 장가를 갔다누만. 당신도 한번 올라 가보오. 그 선생의 뒤도 좀 돌봐 드리고...》

목장에서의 결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짐의 중심을 잡을수 없게 출렁거리는 뜨물달구지를 끌고서 머리를 수궁하고 걷고 있는데 뒤에서 《미영이! 미영이 아니야?》 하고 찾는다.

한기관에서 같은 부원으로 일하던 정옥금이였다.

시집을 온후에는 처음 보는 옥금이.

《옥금이!》

반가와서 막 눈물이 다 나온다.

《너 우누나.》

《운다.》

《애두 참...》

처녀적의 내 동무, 아낙네로 된 오늘에도 그 말투는 여전히 정겨웁다.

《그런데 이건 뭐니?》

《뜨물이다. 보고도 모르니?》

《뜨물?》

《돼지, 소, 염소, 토끼까지 다 먹는 뜨물...》

《호호, 네 처지가 벌써 이렇게 되었니? 그렇게도 눈이 높았고 <처녀시절로 되돌아 가고 있는 멋쟁이 장부원>으로 불리우던 네가 말이야. 아무리 보아도 넌 지금 제 정신이 아닌것 같구나.》

《그래, 나도 제 정신이 아닌것 같아. 뜨물만 있으면 별데 다 간다. 도병원식당에까지 찾아 갔었구나. 정신이 좀 돌긴 돈가부야. 그 사람때문에정

신이 돌아왔어.》

이것이 사랑인가? 그이가 기뻐 할 생각을 하던 험한 일도 험한 일로 생각되지 않는 바로 이것이...

회령 300 리길

농장관리부위원장 리재만은 고혈압이 아닌가의 의심이 갈 정도로 얼굴이 부하고 혈색이 좋은데 입술에는 노상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50대에 들어 서며 몸이 부쩍 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의자등받이에 기대고 있는 실락한 몸집에 움직일 때마다 의자다리가 삐걱거렸다. 생김새며 몸집이 농민형이 아니라는 서운한 느낌이 좀 들지마는 성격이 결결하고 속생각을 있는대로 숨김없이 털어 놓는 대체로 좋은 사람이었다.

《땅을 더 맡아서 우리를 도와 주겠다는건 고맙기가 이룰데 없지만.

까놓구 말해서 지배인동무, 우린 동무들때문에 회의를 한번 가도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2~3년 가다가는 위원장이구 부위원장이구 다 자리를 내놓고 물러 왔게 될것 같단 말이외다. <도와 주러 온 동무들은 뛰는데 당신들은 왜 앉아 뭇개는가, 부위원장동무, 동문 몸이 그렇게 나더니 이젠 걸기조차 힘들어 하는게 아니요?> 하하, 아닌게 아니라 걸기조차 힘이 듭니다. 우에서 뛰 주는게 있소?

사업소동무들처럼 한다는건 천상 가야 코집이 틀렸는데 그저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도로 그치고 맙시다.》

리재만은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는듯 뼈대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일어 서더니 조성호의 손을 잡아 끝었다.

《갑시다.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어제 산에 갔던 소 한마리가 죽었는데 고기는 다 국경경비부대로 보내구 내포를 훑이면서 순대도 좀 한것 같은데 마침 오셨수다.》

좋은 말로 사양을 하고 돌아서 나오는 조성호의 마음은 어데다 터뜨려 놓을수 없는 울기로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저런 인간이 농장사람이 아니고 자기네 사람이었다면 먼 길을 숨 가빠 달린 마라손선수처럼 그 비정상상태의 비대한 몸집이 단번에 훌쩍하게 줄어 들게 백리이고 천리이고 앞세우고 뛰게 했을거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성호는 이제 한시간후에는 바로 그런 채찍을 자기 사람한테 다 들게 되리라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위색작업복에다 흙이 묻은 로동화를 신은 40쯤 되어 보이는 뚱뚱뜨레한 사나이가 훌쩍한 낡은 배낭을 한쪽 어깨에다 걸치고서 경사진 《업무도로》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 가고 있었다.

어슬어슬해 오는 저녁녘의 산골길에는 벌써 인적이 뜰 끊기였다.

인차 사나이가 걸고 있는 길옆에 《회령 24K

m》라는 리정표가 나타났다. 그 리정표앞에서 사나이는 라이타불로 자기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사나이가 회령시가지에 이른것은 새벽 1시경이었다.

밝은 투광등의 불빛속에 우렁이 드러나는 위대한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이 좀 멀리로 바라보이는 곳에서 사나이는 담배 한대를 피워 물며 한 20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산덕을 지나 얼마나 걸었을까, 뒤에서 툭툭거리며 달려 오던 트랙토르가 야밤 3경에 먼길을 가는데 한 사나이가 측은한지 스스로 떴어 서며 《어데까지 가는지 타시오.》 하였다.

《아니, 고맙소.》

사나이는 어서 가라고 손짓해 보이고는 그냥 걸었다.

《거 가공사업소 직장장동무 아니요?》

그 소리에 사나이는 전조등불빛을 손채양으로 가리며 돌아 섰다.

《웁구만.》

운전수옆좌석에 앉았던 뚱뚱한 사람이 발디디개를 헛짚을가 조심하며 차에서 내려 왔다.

관리부위원장 리재만이였다.

《아니, 이 밤에 어떻게 된거요? 차를 놓쳤소? 사업소차도 사람을 태우고 저녁에 나갔다면데.》

《담배나 좀 주시오.》

70리길을 걸다나니 담배가 다 떨어 졌는지 직장장 박동수는 담배 두대를 거퍼 말아 피우고서야 《기차두 있었구 자동차도 있었지만 밤길이 하두 좋아 걸고 있수다.》 하고 통명스레 내뻘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

《에라, 담배 한대를 얻어 피웠으니 이제 가야겠수다. 자 그럼...》

박동수는 자기들이 하는 농사를 두고 이모저모로 원새끼를 꼬는 리재만과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 났다.

《아니, 여보, 식사는 했소?》

리재만은 박동수의 신색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지 그를 잡아 끌어 앉히며 《운전수동무, 그 가방을 내려 보내오.》 하였다.

출장을 가느라 도중식사를 꾸렸던 모양인지 가방안에는 이것저것 먹을만 한것이 많았다.

리재만은 전조등앞에다 보자기를 펴놓고 음식들을 꺼내놓았다.

《어서 드우, 도대체 무슨 일이요?》

《요령주의를 하다 한방매 단단히 얻어 맞았수다. 우리 지배인한테 말이요.》

박동수는 밀빵 하나를 쥐고 천천히 씹으며 비죽히 웃었다.

《진거름에 흙을 한 절반가량 섞어서 저리 분토를 해가지고 실어 내왔는데. 한 열뒤자동차가랑 되지요. 그것이 말썽이 됐수다. 밭에다 쭉 퍼고

발갈이까지 했는데도 귀신처럼 알아 냈단 말입니다.

<흙이 없을가봐 청진에서 300리길이나 되는 여기까지 흙을 섞어 실어 왔는가? 우리가 퇴비운 반문제를 어떻게 풀자고 토론했소? <업무도로>로 제품을 싣고 가는 차는 무조건 뒤에 편걸차를 단다, 차에 싣는 퇴비는 잔돌 하나 섞이지 않은 진거름으로 한다, 그래도 충분한 답이 나오지 않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는가. 동문 8t 급, 10t 급 화물자동차 6대에 진흙을 싣고 300리길을 뛰게 한 범죄자요. 당신의 량심속에 흙이 절반나마 섞인것은 아닌가?>

그쯤 해두고 말기에 한차례 폭풍은 지나갔다 했는데 저녁에 일을 끝내고 돌아 가는 차에 오르자고 하니

<직장장동문 연유를 쓰는 자동차에 탈 면목이 못되는것 같소. 걸어 오시오. 이 회령땅이 어떤곳인지 걸어 오면서 깊이 생각해 보는것이 좋겠소.> 하고는 떠나버립디다.》 박동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여하튼 동무네 지배인은 무서운 사람ियो.》

리재만은 혀를 차며 한손을 뺨뺨 내저었다.

《사내지요.》 그 목소리에는 어쩐지 궁지 비스한것까지 느껴 지었다.

《점심때 식당에서 뭘 좀 끓였길래 식사나 한끼 같이 하자고 했더니만 그냥 가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만. 어쨌든 마침ियो. 내 지금 동농경상사루 뭘 좀 짜내보자구 가는 길ियो. 직장장동문 운전칸에 오르오. 내 밖에 타지.》

역시 호인은 호인이라 리재만은 음식가방을 챙기며 박동수를 재촉하였다.

《아니, 난 견겠수다. 어서 가시오.》

《정신 나가지 않았소? 청진이 아직 어데라구. 200리가 넘소. 하루종일 일하구 지친 그 몸으론 이들을 가도 못 가오.》

《사흘이라도 가지요.》

《진담ियो?》

리재만은 흠칫하는듯 하였다.

《좋도록 하시오. 내가 막을수는 없는 일이니까. 하여튼 이견 배낭에다 다 넣어 가지고 가오. 먼 길을 걷자면 먹어야 할테니까.》

리재만은 가방을 열고 그안에 있는 음식봉지들을 쏟아 놓듯 통채로 꺼내놓았다.

《아니,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모두가 죽을 먹고 사는 때에 이런 기름진 소순대를 먹으며 걷다가는 정말 이 길이 즐거운 산보길이 될것 같아 겁이 나서 그렇니다. 또 얼마전에 소대가리 하나를 먹었더니 힘두 나구요.》

박동수는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뭐요?!》

리재만은 황소 같은 몸집에 황소 같은 소리로 벌컥 화를 내었다.

《여보, 당신네는 어쩔 그렇게 신통히 한본새요? 지배인이란 량반두 그렇구 당신도 그렇구...》

리재만은 쓰레기를 걷어 담듯 내놓았던 음식봉지들을 와락와락 가방에다 쓸어 넣고 나서 운전칸에다 휙 던지듯 하며 애 꽃은 운전수에게 《가자》 하고 소리를 쳤다.

《알카닥》

풀이 난 운전수가 크라치를 콧 놓으며 가스변을 세팔게 밟는 바람에 차가 몽둥이에 맞은 황소처럼 정충 앞으로 내뒹였다.

차가 저만치에 갔을 때에야 박동수는 생각이 나서

《령감, 담배나 한대 더 주고 가오.》 하고 소리를 쳤다.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프락또르는 툭툭대며 점점 더 속도를 내는데 한참후에야 《였다, 콧 피워라.》 하는 볼 부은 고함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번쩍 하는것이 길바닥에 날아 와 떨어졌다.

뛰어 가서 집어 드니 고급려과담배였다.

《아까는 각쟁이처럼 마라초만 내놓더니...》

다시 두갑이 거퍼 날아 왔다.

《사흘을 간다니까 하루 한갑씩 피우라는건데... 이럴 때 보면 이쑤시개령감이 체통값을 하거든요.》

박동수는 흡족해서 웃으며 그 자리에 서서 담배 한대를 피워 물고서야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

그가 사업소정문이 저만치로 보이는 길거리에 들어 선것은 이들이 지난 아침 출근무렵이었다.

저앞에서 깔깔 웃으며 가던 두 처녀가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더니만 《애개개》 하더니 뛰기 시작하였다.

박동수도 열결에 팔소매를 쳐들어 보았다.

5분만 있으면 용수부동의 경비원령감이 내다놓았던 출근부를 걷어 들여다 지각도장을 꺾꺾 눌러 댈 시간이였다.

박동수도 거치적거리는 훌쭉한 배낭을 한손에 거머 잡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다리가 휘친거리고 눈앞에서 별찌가 일며 걸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령감, 우리 직장 그 출근부는 아직 놔두오.》

방금 출근부를 걷어 가지고 들어 가려던 경비원령감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척비척 걸어 오며 손을 내젓는 박동수를 잘 알아 보지 못했는지 《어떤 녀석인지 아침부터 술을 마신게 아니야.》 하는 눈으로 사납게 쏘아 보고 있었다.

출근부를 퍼놓는 탁에 이르러 박동수는 아뜩해지는 현기증에 한순간 출근부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고 있다가 도장을 꺼내 들고 찍었다.

그리고 돌아 서니 뒤에 출근을 하던 지배인이 불룩한 가방을 끼고서 무거운 눈으로 자기를 지

켜보며 서 있었다.

《지배인동지, 가방에 점심밥곽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는 접수실의 온돌바닥에 정신없이 쓰러져버렸다.

《비서동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두번세번 알려 주고, 그렇게 할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일군자신이 앞장에 서느라 하고 그렇게 해도 잘 따라 서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모진 행동을 하게 되는데 내가 박동수동무한테 너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부터 어서 달라기에 꺼내주었더니 두숟갈도 채 못 뜨고 쓰러지고 마는데 속이 좋지 않더군요. 내가 또 판료주의를 쓴것 같습니다.》

조성호는 피로와 하였다.

《뭐 그런 <주의>자까지 붙여 가지고 가뜩이나 언짢은 기분을 스스로 더 잡칠거야 있습니까. 우리 적당히 <일군의 요구성>이라고 해봅시다.》

한경숙은 녀성의 부드러움과 당일군으로서의 야망을 담아 조용히 미소하며 조성호의 마음을 슬쩍 능쳐 주었다.

《은 나라가 정성옥선수의 속도로 달리자고 하는 이때에 박동수동무가 속도는 좀 느려도 쓰러지지 않고 한 300리길을 달렸으면 그게 좋은 일이지 안된 일 같지는 않구만요.》

한생의 전반기를 교육자로 보내였고 후반생 20여년을 당일군으로 일해 오는 한경숙은 키도 크고 언행도 침착하고 활달하여 보통 호남아들에게 붙여 지는 《대들》이라는 인간형에 속하는 흔치 않은 녀성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짧은 말속에 깊은 뜻을 담을줄 알고 기지 있는 통담과 해학을 즐겨 상대방을 순간에 기쁘게도 노하게도 할줄 아는 나이가 많은 이 녀성당비서와 마주 하면 어느새 그가 녀성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게 되고 선배로서의 존경과 동지로서의 친근감을 품게 되는것이어서 실 없는 말을 싫어 하는 조성호도 이 녀인과는 즐겨 통담도 하고 정구체를 나누어 잡기도 하였다.

인생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40대시절에는 지방당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일하였고 지금도 범위가 넓은 관리국산하 여러 당조직들의 당사업을 맡아 보고 있는 이 녀인한테는 녀자들보다도 남자들 속에 오랜 지기들과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 어디로 회의를 가져나 아래단위로 내려갈때면 담배 한두갑은 잊지 않고 가방에다 챙겨넣곤 하는데 지금도 그 담배생각이 났는지 책상 맨아래쪽이에서 담배 한갑과 재떨이를 꺼내 조성호의 앞에다 놓아주며 《남자들은 이런 때 담배를 한대 피우면 좋다던데...》하다가 《참 지배인동무는 피우지 않으시지.》 하고는 대신 뜨거운 차 한고뿌를 따라 권하였다.

《젠장, 내 그 울컥하는 성미를 고친다 고친다 하면서도...》

허식을 모르는 녀인의 인정인가 실게 진한 향기를 내며 물물 김이 나는 차잔을 받아 들면서 조성호는 기분 좋게 웃었다.

《그러지 마시오, 지배인동무. 동무한테서 그것을 빼면야 조성호가 아니지요. 나는 이따금 분노에 푸들푸들 떠는 지배인동무를 보면서, 또 하루종일 실새없이 쿵쿵 뛰여 다니는 지배인동무를 보면서 저건 어디로 빠져 나갈지 몰라 빠질 틈새를 찾던 불 같은 정열이 급기야 터져 나오는것이 다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한경숙은 한술 더 떠서 조성호를 웃기었다.

《정말 내가 다시 일을 치는걸 보고 싶어 그럼니까. 비서동무》

《지배인동무도 언제 일을 쳤던 일이 있었던가요?》

한경숙은 어디 들어 보자는듯 조성호의 앞으로 의자를 당겨 놓아 주며 즐겁게 웃었다.

《아시면서도 뭘 그러십니까. 내 당리력문건에 다 올라 있는건데요.》

《하긴 책별란에 뭐라고 몇자 적혀 있는걸 본 생각이 납니다만 내가 여기로 오기전이니 그 내용이야 모르지요.》

《취처럼 술금술금 생산물에 손을 대는 한 녀석을 붙들어 당장 내쫓아 버렸지요. 당조직과 의논도 없이 말입니다. 머리로 좋고 기능도 높은 사람이여서 내쫓기는 아쉬웠지만 하나를 쳐서 열을 교양해야했기에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결국 <전횡>, <독단>이라는 죄목에 걸려 비판을 받게 되었는데 <잘못했습니다. > 하구 한마디 했으면 될걸 가지구 외려 내쪽에서 그런 놈이 있으면 앞으로 용서없이 내쫓아 버리겠다고 책상을 두드렸지요. 책상을 두드린 값이 그만 문건에 까만 점으로 찍혔습니다.》

19살에 입당을 하구서 30살에 지배인이 되고 보니 제 이상 없는줄 알았지요. 무서운게 없었으니까요. 하긴 그때문에 비판은 더러 받곤 했지만 그때가 좋았습니다.》

《아니, 지배인동무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무서워 하는게 없으시구요. 내 비서로서가 아니라 지배인동무를 벗으로 삼고 있는 사람으로서 권고하건데 앞으로도 변치 말고 여전하길 바랍니다.》

한경숙은 매우 기분이 좋은지 좀 큰소리로 웃었다.

《어제 아침에 리재만관리부위원장동무가 나한테 왔었습니다. 그한테서 박동수동무가 걸어 온다는것을 알았습니다. 하하, 기름진 소순대도 한토막 안들고 밀가루빵 뒤개를 집어 먹고 일어 서더니 <령감, 령감두 나하구 한 200리길 걸어 보지 않겠소? 남들처럼 달리지는 못해두 말이요. > 하더랍니다.》

생각되는게 많아서 나를 찾아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농장의 회관문

을 짝 열어 놓겠으니 우리 동무들이 와서 나팔을 불구 북을 두드려 달랍니다. 이전에는 해주자고 해도 시큰둥해서 문을 닫아 매지 않았나요.

가공사업소의 배구인지 룡구인지가 전국적으로 꼽힌다던데 자기 공장 청년들이 정신이 버쩍 들게 거기 와서 경기를 한번 조직해 달라는 말도 했고요.

지배인동무, 너무 아름차지 않겠습니까. 5정보를 더 받겠다는건...》

한경숙은 사업문제로 이야기를 돌렸다.

《아름차지요. 그래도 모두가 해보자고 합니다. 어제 하나를 했으면 오늘은 두개, 래일은 세개, 온 나라가 지금 그런 준마를 탄 기세로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걸음새에 맞춰야지요. 어머님의 고향을 돕는 일인데 더구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경숙은 조성호를 바래주려 현관문밖까지 따라나오며 《후두염을 수술했다더니 좀 어떻습니까?》 하였다. 그리고는 섬세한 녀성의 습관된 행동으로 조성호의 와이샤쓰목깃을 살짝 바로 잡아 주었다.

《경과가 좋다면 큰소리를 치지 말아야 한답니다.》

《하하, 그건 정말 지배인동무로선 좀 지키기 바쁜 조건이구만요. 아무쪼록 목건사를 잘하셔야겠습니다.》

《알지요. <웃으면서도 매우 심중하게 행동할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당비서동무.》
《<입은 노해도 눈은 웃음을 담아야 한다> 이런 말도 있지요. 지배인동무.》

마감이야기

결말이 좋으면 역경도 행복으로 생각되는 법이라고 한다.

이들한테도 바로 그런 날이 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지난 20년간 사업소앞에 나선 인민경제계획을 해마다 어김없이 수행하면서도 집단적공산주의생산로동으로 력사의 땅 회령시를 크게 도와 주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고 그들모두를 혁명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불러 주신것이였다.

그날은 새 세기 설을 하루 앞두고 사업소의 한 해사업을 총화하던 지난해 12월 마감날이였다. 쓰라린 곡절도 있었고 빛나는 위훈도 많았던 격동의 20세기를 뒤돌아 보며 설레이던 이들의 심정을 여기다 어떻게 다 적으랴.

그러면서도 그들은 바로 래일이면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는 우리 당의 자랑찬 목소리가 누리에 울려가게 되리라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바로 자기들이 《고난의 행군》의 승리자들이라는것을...

상으로 탄 부엌세간에서 명절공급물자를 한보 자기 가득 싸이고서 회관문을 나오던 한 녀성이

누구를 찾는지 두리번거리다가 맨 뒤로 나오는 지배인한테로 주춤주춤 다가갔다.

그리고는 먼저 노숙스레 웃기부터 하며 《우린 지배인동지가 영웅이 되는줄만 알고 있었는데 훈장은 아래사람들만 타구 어떻게 된겁니까?》 하였다.

언제인가 화장을 한번 해볼새 없이 이러는데도 하며 책망에 울던 처녀였다. 그이 가슴에도 국기훈장 2급이 빛나고 있었다.

《금순이가 시집을 가서, -비록 좀 늦어 가긴 했지만-아들까지 하나 낳더니 이젠 통짜배기로 구만, 영웅이라니? 영웅이 뭐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아오.》

조성호는 어이가 없어 옆에 서 있는 한경숙을 돌아 보며 허허 웃었다.

《어마나, 우린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습시다. 혹시 지배인동지가 사양한것은 아닙니까?》

이번에는 정색해서 한경숙을 바라보며 묻는 말이었다.

《하하, 사양이라니?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데 있담. 국당비서동무. 이 동무한테 정확히 말해 주시오. 내가 사양한적이 있었는가구. 하하》

조성호는 한참동안 껄껄 웃었다.

《여하튼 고맙소. 그렇게들 생각했다니... 하지만 이보라구. 영웅은 못되었지만 난 고난의 이 몇해어간에 우리 동무들이 잡곡밥이나마 끼니를 번지지 않구 모두 일터로 나와 제 맡은 일을 성실히 한데 대해 지배인으로서 긍지를 느끼오. 거기에 적으나마 내 노력도 섞었다면 말이요. 그리구 내 금순동무가 바라는데로 꼭 영웅이 되도록 노력하겠소. 사양없이 말이요.》

조성호는 미소를 짓고 있는 한경숙을 돌아 보며 다시 웃었다.

《지배인동지, 전에는 지배인동지가 관료주의를 지내 쓴다고 여겼었는데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 그랬다는 기억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구 그저 좋은 생각만 들어요. 설에 꼭 오세요. 그럼 우리 나그네가 더...》

정색해서 한 이 말이 조성호를 다시 웃겼다.

《어쨌든 나쁘다는 소리보단 듣기가 괜찮소.》

조성호는 등에 업힌 아이의 귀여운 볼을 슬쩍 건드려 주고 나서

《그거야 오늘 장군님의 감사도 받았겠다, 옥류관국수도 먹어 보게 되었겠다, 이렇게 훈장두 타구 상까지 탔으니 그런 생각이 들겠지.》 하였다.

《아닙니다.》

《아니라면 더욱 고맙소. 난 반장동무의 그 말을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라는 충고로, 새 세기로 들어 서며 다같이 정성옥처럼 힘껏 달리자는 호소로 받아 들이겠소.》

2001년 3월 회령과 청진에서

가족휴양소에서

임창순

전쟁로병이라고
마주 앉으면 휴양생젊은이들
나를 붙들고 위훈담을 자꾸 들려 달라니
이를 어쩐단 말이나
나에게는 요란한 위훈담도 바이 없는데

영웅이 된 전우들의 이야기
이제는 밀창이 다 났는데
그냥 계속 들려 달라니
이번에는 화선처녀이야기나
한마디 하자

...아마 52년도 봄이었는지
적의 유생력량 소멸하는 다섯차례 격전
밀고 당기는 공방전에서
나는 그만 부상을 당했다네

적병이 와글거리는 적구에서
자꾸만 흐려 지는 정신을 가다듬으며
남아 있는 수류탄을 지그시 거머 쥐고
마지막결단을 다짐하는데
련대군의소의 위생병처녀가
와락 나를 둘러 업고 달리었네

비발치는 총탄
간단없이 날아 와 터지는 포탄
거기다 열놈이 넘는 적의 무리가
《생포하라》 《손을 들라》 고아 대면서
우리 두 병사의 꼬리를 물었네

그래도 가쁜 숨 몰아 쉬며
두 언덕을 넘어 선 처녀
끝내 힘이 진해 쓰러지고
적병놈들 우리를 겹겹이 에워쌌네

이윽고 정신을 차린 위생병처녀

생긋 웃으며 조용히 속삭였네
-아무렴 제간놈들한테 손을 들겠나요
이제는 별수 없어요
목숨을 내대고 결판을 내자요

그는 번개같이 수류탄의 안전못을 뽑아
두손에 추켜 들고 총알처럼 웨쳤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의 전사들이다
우리 두 병사의 주먹이 펼쳐 지면
네놈들의 몸뚱이는 박산이 난다
어리석은 놈들아 살려거든 손을 들다

처녀의 눈길이 활활 불 타고
목소리는 찢릉찌릉 산울림하는데
얼이 나가 곳곳해 진 적의 무리들
한놈두놈 총을 놓고 손을 들더군

그 다음엔 적의 총 빼앗아 든 위생병처녀
열두놈의 포로를 앞세우고 뒤따르고
나는 적장교의 실박한 등에 업혀 가고...
죽음을 각오한 병사는 용사가 되고
그 용사 당할 자 세상에 없음을
새삼스레 심장으로 깊이 느꼈네...

그 처녀 지금 어디에 있는가고?
이 사람들아 안해자랑 했다고 웃지들 말게
하지만 절대비밀일세
우리 집 사람이 알면
날 내쫓자고 할테니
가족휴양 끝나는 날까지
이 약속 지켜 주게

하, 이 지곳은 친구들아
이야기도 쑥스러워 겨우 했는데
비밀담보로 독창까지 하라니 글썽
어쩐단 말이나 어쩐단 말이나

서정의 힘은 진실성에 있다

김의준

예로부터 진실성은 문학작품창작의 필수적요소로 일러 왔다.

인류의 발상과 더불어 걸음마를 댄 시창작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더듬어 보면 우리 민족문학의 보물고에는 수백 폐지에 걸쳐 복잡한 인간생활을 담은 흥미진진한 장편소설과 함께 일견 몇줄 안되는 외형상 자그마한 서정시들도 있다.

어찌하여 문학의 장구한 력사에는 가장 작은 형식인 서정시가 자기보다 몇백배나 더 큰 형식들과 어깨 나란히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얼핏 보아 손에 잡을 나위도 없는듯 몇줄뿐이고 다만 시인의 심장의 박동소리, 숨결소리만이 들려오는 서정시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서정에 있다. 서정의 진실성에 있다.

진실한 서정은 시문학의 생명이다. 서정이 없으면 시가 살고 서정이 없으면 시로 못되고 죽는다.

서정이란 진정 무엇이란 말인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시인이 체험한 생활정서를 형상으로 재현한것이다. 다시말하여 시인이 심장으로 려과시키고 열정으로 농축하여 주조해 낸 산 생활모습이고 산 인간숨결이며 산 시대의 넓이고 지향이다.

어떤 경우든지 시인은 생활에서 환기 받은 정서를 그대로 종이에 투영하지 않는다. 눈에 뜨이는것이 모두 진실일수 없고 귀에 들리는것이 모두 진실일수 없다. 시인의 심장을 통과한것만이 진실이다. 시인은 체험한 정서를 심장의 려과망으로 거른다. 이때의 려과망은 엄격하다. 생활과 시대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불순물을 모조리 제거하고 정수물만 발아 낸다. 한말의 콩에서 한병의 기름을 얻어 내는셈이다. 이 정수물을 작품의 종자에 맞게 재가공하여 서정으로, 시로 탄생시킨다.

이렇게 태어난 서정이야말로 진실한 서정으로 서 시작품의 억센 생명으로 된다.

참서정이 일렁이는 한편의 시는 능히 전장에 울리는 북소리나 진군의 나팔소리와의 같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는 위력한 전투적무기로 되며 능히 원썩을 쳐부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된다.

시인 조기천, 김상오, 리용악, 김철, 오영재의 시들이 그러하다.

이들의 시는 모두 서정이 진실하다. 그로 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민족문학사에서 길이

전해 지고 있다.

어제날에도 오늘날에도 무릇 뛰어 난 인민적시인들은 한결같이 해당 시대 인민대중의 사상적지향, 정서적지향을 진실하게 노래한 대변자들이었다.

그들의 시가 오늘까지도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것은 시가 기교적으로 완벽한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물론 시 《조선은 싸운다》(조기천),

《나의 조국》(김상오), 《평남판개시초》(리용악),

《새들은 숲으로 간다》(정문향), 《어머니》(김철),

《복수자의 선언》(오영재) 등은 시적일반화나 랑만성, 민족적특성과 시적구성, 시어구사와 운율조성과 같은 시적기교에서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시들의 생명력은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 생명력은 서정의 진실성에 있다. 만일 그 시들에서 생명으로 되는 진실한 서정을 빼놓는다면 시들은 한갓 허울만 남고 휴지장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시는 오직 서정이 진실하여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아무리 시적발견이 기발하고 시적표현이 세련되고 짜였다 하더라도 서정이 진실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 현 시기 시창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서정의 진실성문제이다. 시인의 사상적의도가 나무랄데 없는 경우에도 서정이 진실하지 못하면 독자들의 배척을 당하기마련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시문학에 있어서 진실성이란 본질상 서정의 진실성을 뜻한다.

서정의 진실성이란 시에 담겨 진 느낌이 인민대중의 느낌과 어느 정도 같은가 하는 문제이다. 시에 담겨 진 느낌이 인민대중의 느낌과 같으면 진실한 서정이고 같지 않으면 진실치 못한 서정이다. 기준은 이렇다.

참다운 시인들은 항상 자기 시대 인민대중의 사상정서적지향에 민감하였다. 그것을 진실하게 서정화하는데 온 심혼을 바쳤다. 그리하여 후세사람들은 뜨겁게 흐르는 그 서정속에서 그 시대 인간들의 넓과 맥박을 생생히 체험하게 되고 숨결과 기상을 뚜렷이 감득하게 된다. 서정이 진실하면 전투적인 주제의 시에서뿐아니라 조기천의 《휘파람》과 같이 사랑을 노래한 시에서도 당대 시대 인간의 열정적인 정신세계와 청신한 호흡을 명백히 느끼게 된다.

올해 잡지 《조선문학》 1호에 김정곤의 연시

을해 잡지 《조선문학》 1호에 김정곤의 연시

《전야의 사랑가》가 실렸다. 런시중 《이삭에게 주는 사랑가》의 서정은 류달리 깊은 감흥을 자아낸다. 시대를 안고 뒤흔치는 시인의 몸부림이 안겨 와 가슴이 후터워 진다. 한번 읽고 나니 다시 읽고 싶어 졌다. 근래에 드물게 당해 보는 견인력이다. 거듭 읽노라니 선군정치생활력의 감회가 한꺼번에 뚜렷이 되살아 나 가슴이 얼얼하고 서정적주인공-제대군인처럼 사랑하고 살고픈 충동에 북받치는 마음을 금할수 없다.

이삭아
너 아니면
내 어이 제대되어
이 별로 왔겠느냐

랑만에 찬 건설장을 옆에 두고
대학으로 가는 충계를 아니 오르고
군화에 묻은 전호의 흙을
전야에 내려 서서 털었겠느냐

시의 서정이 시작부터 퍼그나 절절하면서 폭발적이다. 논두렁에 무릎 꿇고 앉아 탐스러운 이삭을 쓰다듬으며 토로하는 시인의 마음은 사뭇 격정에 쫓긴다. 시인은 너무도 격동되어 있기때문에 미처 그 어떤 시적정황을 제시해 줄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어 서정적주인공은 조용하나 천근무게의 목소리로 제대되는 길로 벌에 달려 오지 않을수 없었던 사연을 꾸밈없이 고백한다.

중대식당군무를 서던 날 밥이 잦던 아침 중대 취사장에 들리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취사복차림의 주인공손을 잡아 주시며 수고한다고, 병사들 먹는 밥을 나도 좀 보자고, 얼른 가마뚜껑을 한번 열어 보라고 하신 감격의 순간이 노래되어 울린다.

여기서 시의 서정은 폭 넓은 강물처럼 힘 있게 들먹이며 우리의 가슴 한복판으로 육박해 들어 오기 시작한다.

시인은 추호의 머뭇거림없이 극적체험을 감각적인 표상으로 심화시키면서 서정을 떠나간다.

호박을 썰어 섞은 밥을 차마 보이기 송구스러워 젖은 손으로 취사복자락을 비틀며 어쩔줄 몰라 하는데 어서 열라고 장군님께서 독촉하시고... 끝내 가마안을 보여 드릴 때 안색을 흐리시던 영상, 뚜껑을 닫으려는 병사의 손을 잡아 멈추시고 그냥 자리 뜨지 못하시는 병사들의 아버지.

하여 해종일 병사의 마음엔 하늘이 흐리었고 그이를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일생에 한번이나 있을 자리에서조차 중대가 다 밝게 웃건만 자신만은 마음이 무거워 웃지 못하고 찍었다는 서정적주인공의 토로는 진실하다.

그래서 이삭을 불안고 서정적주인공이 터뜨리는 벌로 달려 온 사연에 대한 주정은 생생하고 뜨겁다.

이삭아
내 이 벌에 온것은
식성도 한창 왕성하여
돌도 넣으면 와작와작 소화시켜
《곱배기》란 낱말도 나온 병사들에게
호박밥을 끓이던 그 아픔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아는
첫 뎨 아이들도 포랑포랑 외우는
그때문에 실농군들 죽어서도 눈 감지 못하는
전선길에 우리 장군님 드시는
가슴 에이는 쥘기밥의 혁명일화도
종당에는 너로 하여 생긴 이야기 아니냐

너로 하여
총 잡은 사단과 련대들이 전연을 떠나
전투장구에 모줄을 휘감아 없고
벌을 향해 강행군을 하고
아이들까지 학교문을 나서서
소랭이밀굽에 구멍이 나도록 벌을 돕지 않느냐

음미할수록 시에 굽이치는 서정이 충격적으로 안겨 온다. 이삭과 얹혀 진 우리 인민의 운명관계가 진실하다. 심오하다.

어찌하여 내가 직접 체험한 느낌으로 되살아나는지... 마치도 내가 쓴 시구처럼, 내가 발표한 시출처럼 여겨 지고 아끼고 싶어 지는지... 아마도 우리모두가 체험한 그 감격, 그 목메임과 격정이 이 시행들에 그대로 옮겨 졌기때문이라.

이삭의 귀함을 늘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과 얹힌것으로 하여 그다지도 의의 큰것인가에 대해 미처 가슴하지 못하던것을 시는 깨닫게 해준다.

품위 있는 시다. 말하려는 과녁이 명백해서 좋다. 느낌이 가까와서 좋다. 절절해서 좋고 참신해서 좋다. 하지만 보다 좋은것은 진실한것이다.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다. 이삭과 운명적으로 얹혀 진 관계에 대한 서정적주인공의 느낌, 평가, 주장은 우리 인민의 느낌, 평가, 주장 그대로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도에는 여러 가닥이 있을수 있겠으나 가장 확실성 있고 빠른것은 진실을 털어 놓는것이다. 시의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진실한 서정만이 몇줄 안되는 시구로 사람들을 울리고 일생동안 사색하게 한다.

이삭을 아름답게 그리안고 가슴 들먹이며 터뜨리는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은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 격렬해 진다.

이삭아 이삭아
 그때문에
 내 목숨 같은 총을 놓고
 너와 인연을 맺었으니
 너는 나의 억만자루 총!
 참호에서 총알을 세이듯
 이제는 하나, 둘... 열... 열둘...
 포기를 세이며 너를 키우련다

두엄을 주고
 체온을 주고
 펄펄 끓는 가슴에
 너를 싸안으며
 아껴 아껴 입김을 불며 너를 가꿀테다

이삭아
 땀을 달라면 짱그리 땀을 줄테다
 살점을 달라면 살을 떼줄테다
 갓서른 오르도록 입밖에도 못내본
 사랑! 그 사랑이 필요하다면 사랑을 줄테다
 지어 목숨을 내라면 목숨까지도 바칠테다

이 시련들에서는 선군정치시대인간의 아름다움이 짙게 풍긴다. 진실한 서정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새삼스레 깨닫게 된다. 그리고 깊이 사색하게 된다. 목숨 같은 총을 놓고 이삭과 인연 맺은 서정적주인공-제대군인의 정신적높이와 감정세계를 두고 자신들을 깊이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 자기가 맡은 혁명임무를 두고, 거기에 쏟아 부은 헌신의 폭과 깊이를 두고, 열정의 량과 질을 두고 심각히 총화해 보게 된다. 여기서는 노동자도 농민도 병사도 과학자도 그리고 남자도 녀자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시의 서정세계에 끌려들어 갈수록 그가 누구든 서정적주인공의 주정의 진실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된다.

바치는 사랑은 무거이 감아 싣고 땅밑에선 동이같은 감자를 캐내고 땅우에선 2모작, 3모작 알찬 오곡을 거두어 쌀소나기를 찰-찰- 쏟아 붓자는 서정적주인공의 주장은 생활의 서정으로 울린다. 전연중대 쌀창고가 넘치게, 집집의 쌀독이 터지게, 려관집 상다리가 부러지게, 국수집 사리가 몇지 않게 쌀을 쏟아 붓자는 생활적형상은 우리 인민의 의지를 담은 진실한 서정이다. 안으로 뚫어가던 혁띠구멍이 밖으로 나오며 뚫어 지게, 허리띠 조이며 숨겨 둔 주름들이 다림질한듯 매끈하게 펴이게, 아이들 앵두불이 광-광- 소리나게 쌀을 쏟아 붓자는 생활적노래는 우리 인민의 량만을 담은 진실한 서정이다.

시는 이삭에 사랑을 주어 쌀을 쏟아 낼 사상감을 노래하였지만 단순히 물질적풍족을 노린 사랑가가 아니라 수령관에 기초한 숭고한 사랑가, 원수를 전륜케 할 멸적의 사랑가로 승화시켜 서정이 더욱 진실하다.

우리 장군님 수없이 만나시는
 병사들과 어린이들
 노동자들과 과학자들
 너무도 싱싱 혈액이 좋아
 마주하시면 만족하게 웃으시게

너인들 치렁치렁한 머리끝에
 꽃수건이 춤을 추며 훑날리게
 봉쇄환의 독뱀을 감던 악종들
 녀을 잃고 죽어 자빠지게

이런 뜨거운 열망이 있어 목숨 같은 총을 초소에 두고 이삭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서정적주인공의 주정토로가 진실한가? 진실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서정의 진실성이란 구경 시인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의 진실성이다.

이로부터 서정의 진실성문제는 시인의 량심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로 논의된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수 있고 진실한 시인만이 진실한 서정을 펼칠수 있다. 시대의 량심을 대변하여 대중을 감화시킬만 한 량심을 못 가진 시인은 반드시 거짓과 가식, 허위와 위선으로 《서정》을 꾸민다. 손끝으로 꾸며 낸 《서정》은 사람들로부터 혐오감, 환멸감만 자아낼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품들을 보면서 가끔 서정이 진실치 못한 시를 보게 된다.

잡지 《조선문학》의 같은 호에는 《6시》(리성혁)를 비롯한 서정이 진실치 못한 시들도 있다.

이런 시들은 너무도 손 쉽게 탐구없이 경박하게 씌여 졌다는 느낌이 든다. 이런 시작품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현실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서정의 진실성을 결정적으로 높일것을 요구한다.

다시 부언컨대 서정의 힘은 진실성에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기대를 안고 육신의 피 한방울한방울을 모조리 불 태워 애오라지 장군님께 기쁨 드릴 진실한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시문학의 예리하고 진실한 필봉으로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진군운동을 선도하는 우리 시인의 사명은 얼마나 무거운가.

만아들의 목소리

전승일

어머니는 이 아들을
고이 업어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으로 후더워 진
포근한 그 잔등에 업히워
이 아들은 자랐습니다

강가에 빨래를 행굴적에도
그 잔등우에서 이 아들은 웃었습니다
나를 업고 자장가 부르며 새벽을 맞을 때도
그 잔등우에서 이 아들은
고운 단꿈을 꾸었습니다

그처럼 나를 품 안고
조국은 넓은 발을 갈았습니다
다 자란 이 아들을 무겁게 업고
그 어머니는 궁전의 은빛지붕도 씌웠습니다
대언제의 몰탈도 다지고
세기의 기념비들로 이 땅을 채웠습니다

사납게 파몰아 쳐 온 준엄한 세월
나 몰래 흘린 어머니의 그 눈물이
나를 자래웠습니다
허리띠를 조이며 입술을 깨물던
그 아픈 잔등에 업혀
이 아들은 대장부로 자랐습니다

이렇게 피와 땀을 고여
그대는 수천만 아들딸들을
틈틈한 자식으로
이 땅우에 업어 키웠나니

누가 그 잔등에 도랑처럼 흐르던
진한 땀을 잊겠습니까
그 누가 비 오고 눈 와도
따스하기만 하던 그 잔등을
목숨처럼 안고 살지 않겠습니까

허나 어머니 마음속에 고괘치는 갈망과
어머니 가슴속에 꿰고 있는 소원을
수천도 쇠물이 제일 잘 알고
그 쇠물만이 후련토록 풀어 드릴수 있기에
이 아들은 불덩어리 강철로에 심장을 잠근
용해공사나이가 되었습니다

아, 조국이여 어머니이시여
수천만 충직한 아들딸들이
어깨를 내대고 어머니를 부르지만
부디 용해공 이 잔등우에 업고 싶나이다
그대가 수천날을 나를 업고 키웠다면
이 아들은 수백, 수천년을 길이 업고
이 세월 끝까지 내달려 가렵니다

최내 배인 이 용해공의 든든한 잔등에서
그대의 만아들이 되고 싶은 산악 같은 이 잔등
에서
어릴적 나처럼
만시름 잊고 단잠에 드실수는 없습니까
업혀서만 결코 부를수 없는
이 만이는 목 메어 부릅니다
어머니!-

판문점

(총련)강명숙

모를 일이에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을 북이라 하고
여기서부터 왼쪽을 남이라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돌아 서면
오른쪽이 남이고 왼쪽이 북인걸요

어떻게 가르나요
어디서부터가 북쪽 하늘이고
어디서부터가 남쪽 하늘인가요
바라보면 가없이 파아란 하늘
어디에 건너 간 군사분계선이 있나요

달리 들리나요?
어느것이 북쪽 새의 지저귀이고
어느것이 남쪽 새의 지저귀인가요

아무리 귀담아 들어 봐도
하나의 노래만 부르는것 같은걸요

정말 모를 일이에요
하늘의 구름도 부는 바람도
흐르는 강물마저 저렇게 자유로운데
우리만이 우리만이
여기를 오고 가면 죄가 되는것이

가르쳐 주세요
대답을 주세요
무서운 얼굴 해가지고 《서계시는》
멀리 외국에서 《오셨다는》
총을 멘 《군대아저씨》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와 여성형상

김영금(중국)

사랑과 행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이다.

그리하여 우수한 문학작품들, 세계적인 명작들에는 대개가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기 마련이다.

사랑과 행복에 대한 인류의 추구는 대체로 비슷하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구방식은 시대에 따라, 민족에 따라, 계급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된다. 사랑과 행복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생활에서 보다 중요한 지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여성들의 알뜰한 손길과 잇닿아 있다. 그래서 조선인민은 《녀성은 꽃이라네》라는 노래까지 지어부르게 된것이 아닐까.

해방후 조선문학작품들에서는 녀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나 녀성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은 작품이나를 막론하고 녀성들이 등장한 작품들은 거의다 각이한 각도에서 녀성들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문제를 설정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해결하고 있다.

사랑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동무에 대한 사랑, 애인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 등 여러가지가 있다.

그중에서도 남녀간의 사랑은 가장 기초적인 사랑으로써 그 누구나 일생에 꼭 겪어 보게 되며 따라서 가장 보편적인 화제로 되는 사랑이다.

특히 녀성들에게 있어서 애인(남편)에 대한 사랑은 가장 현실적이고 절실한것이며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이라 할수 있다.

물론 사회적인간으로서 녀성들도 조국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동무에 대한 사랑 등 보다 큰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오는 거대한 행복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녀성들의 행복은 많이는 애인(남편)과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밀접히 련결되어 있다.

가정의 사랑을 받는 녀성은 행복한 녀성이고 가정을 사랑하는 녀성도 행복한 녀성이다.

사랑하게 된다는것은 상대방에게서 그럴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거기에 매혹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랑의 밑바탕으로 되는 아름다움이라는것은 력사적시대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를뿐아니라 매 계급에 따라 평가의 척도가 달라진다.

행복에 대한 리해 역시 사회계급성, 시대성을 띤다. 시대, 민족, 사회와 계급이 다름에 따라 사랑의 방식이 다르게 되고 추구하는 행복의 내용이 달라 지게 된다.

조선녀성들에게 있어서도 사랑과 행복에 대한 추구는 시대와 사회제도가 달라 지는데 따라 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평등권법령의 제정과 그 실현은 해방후 조선녀성들의 지위와 역할, 성격에서 새로운 질적변화를 가져 왔으며 따라서 녀성들의 사랑관, 행복관도 달라 졌다.

이 글에서는 애인(남편)에 대한 사랑, 자식에 대한 사랑과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보다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과 행복의 각도에서 해방후 조선녀성형상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하여 조선녀성들이 어떠한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저 한다.

그러면 그들의 조국애, 동지애와 행복관도 함께 엿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모성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 없는 사랑은 없을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 없는 사랑, 그 대가를 모르는 사랑, 세상에 모성애만큼 뜨거운 사랑은 없다. 그만큼 녀성들의 사랑에서 가장 사심 없고 변함 없는 사랑은 모성애이다.

조선녀성들의 모성애는 자식에 대한 눈먼 사랑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참된 아들딸로 키우려는 대바르고 엄격한 사랑이다.

장편소설 《축원》에서 주인공인 어머니 한씨는 영예군인인 아들이 당의 축산정책을 잘 모르다 나니 축산을 하려고 애 쓰는 형수가 동네사람들의 말밥에 오른다고 좋지 않게 생각할 때 자기가 아들을 똑똑히 이끌어 주지 못했다고 깊이 자책하면서 당의 정책을 알도록 하기 위해 밤새워 잔 무명을 팔아 라지오를 사준다. 그리고 애인때문에 일시 생활의 희망을 잃고 정서가 저락되었을 때에도 전선에서 역세여 진 정신으로 살아 가라고 고무격려한다. 나라를 위해 눈을 잃었을망정 눈을 잃으면서까지 싸운 그 정신을 높이 살줄 모르는 처녀이라면 그런 처녀의 사랑은 구걸할 필요도 없다면서 아들에게 대쪽 같은 마음을 심어준다.

이처럼 조선녀성들의 모성애는 본능에 기초한

단순한 모성애가 아니라 의로운 행동을 자랑스럽고 긍지스럽게 생각하는 모성관에 기초한 참된 어머니의 혁명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조선여성들의 모성애는 의로운 행동으로 나타나며 어머니로서의 조선여성들은 강의한 모습으로 형상된다.

참으로 조선의 어머니들은 강의하다.

조기천의 서정시 《조선의 어머니》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세 아들을 모두 전선으로, 인민군대로 떠나보내면서도 눈물을 모르는 어머니의 강의한 모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

왜 이 나라의 어머니들은
눈물없이 아들을 싸움터로 보내노?
거리들이 마을들이 불속에 묻히었거니
묻지 말라 오 묻지 말라 어머니의 마음을
원췌에게 향한 그 증오를 그 저주를!

다만 전쟁이 끝났을제야
마을젊은이들이 전선에서 돌아 올제야
어머니는 이 동쪽에 나와서
눈물로써 그들을 맞으리다
아들 삼형제 돌아 오려니
저 푸른 고개를 바라보시리다

...

어머니의 정성이 뻗치고 있는 푸른 고개로 기어코 아들이 돌아 올 때 어머니는 흰옷 고이 입고 이 동쪽에서 눈물로써 그들을 맞으리라는 시적묘사는 소박하고 깨끗하며 강의한 조선의 어머니의 모습을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고 있다.

흰 옷 입은 어머니, 벌써 그 모습에서부터 조선의 어머니에 대한 생동한 외적표상이 민족적인 정서로 안겨 오며 그 순결미에 강의한 어머니의 마음이 비껴 있다. 눈물없이 아들을 떠나보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눈물로써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으리라는 시적표현은 또 얼마나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인가.

조선문학작품들에서는 또한 조선여성들의 희생적인 모성애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행복은 중요하지만 조국과 혁명을 위해서는 그 모든것을 희생할수 있는것이 조선여성들이다. 여기에 조선여성들의 남다른 미덕이 있다.

조선여성들의 희생적인 모성애는 자식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데서뿐아니라 필요하다면 자기자식을 바치는데서도 나타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에서 혁명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귀엽고 사랑스러운 막내아들을남이를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던 주인공어머니의 정신적높이는 해방후 여성들의 형상에서도 찾아 볼수 있다.

서정시 《소녀》(박인서)에서 놈들에게 체포된 7살난 소녀 속이는 현물세쌀을 감춘 곳을 대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떼뻗한 최후를 마친다.

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7살난 소녀의 영웅적인 희생정신을 노래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자기는 물론 딸까지 희생시키면서도 끝내 비밀을 불지 않는 어머니의 억센 기상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 어머니는 딸에게 이야기했으리라. 현물세쌀움에 마지막잔디를 덮을 때 멀리서 망을 본 딸이었기에 놈들에게 그 일을 절대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만약 그 비밀을 말한다면 그들 모녀의 운명이 달라 질수도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도 중했지만 조직의 비밀이 더 귀중했고 고향과 조국이 더 귀중했던것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뜨거울수록 원췌에 대한 증오가 천백배로 피 끓는 조선의 어머니들.

그 무엇으로써도 그 누구도 보상할수 없는 희생으로 자기 하나만의 자식이 아니라 수천수만의 아들딸들, 조국의 미래를 지켜 내는 조선의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그 어느 나라 녀성들에게서도 쉽게 찾아 볼수 없는것이다.

이처럼 해방후 조선문학작품들에 형상된 조선의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인간적미를 가장 뚜렷이 드러내는 숭고한 모성애이다.

2. 사랑의 대상

로동당시대 조선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바꾸어 말하면 해방후 조선문학작품들에서 어떤 남성이 녀성들의 존경과 사랑의 대상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편소설 《진숙이의 편지》에서 주인공 오봉철은 잘 생긴 미남자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흠잡을데 없는 호남아도 아니다.

그는 남들처럼 사랑을 살뜰하게 속삭일줄도 모르고 자기 감정을 부드럽게 나타낼줄도 모른다. 어떤 때는 자기 감정을 성급하게 로출시켜 사람들의 눈밖에 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그의 심장은 불보다 뜨겁다.

마음이 진실하고 생활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열정적인 사람, 조국앞에 누구보다도 깨끗한 량심과 불 같은 의리를 지니고 사는 사람, 조국이 부르고 조국이 요구한다면 자기의 생명도 청춘의 귀중한 모든것도 아낌없이 바칠 사람.

녀주인공 진숙에게는 바로 이런 사람이 시대의 미남자로 안겨 든다.

장편소설 《야금기지》에서 혜영이는 평범하게 보아 오던 청년 강기석에게서 제강소와 나라의 야금공업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웅심 깊은 마음을 보았고 그의 재능과 진실성 그리고 높은 리념과 열렬한 심장을 사랑하게 된다.

또한 연구사 원옥희는 이름 없는 로동청년 강기석을 자기보다 훨씬 높이 추켜 올리는, 평소에는 거만하게만 보이던 연구사 박성국에게로 끌리는 자기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다.

자기 희생의 몸부림속에서 울려 나온 그 의로운 목소리는 불신과 반감으로 그늘져 있던 인간을 억세게 드러내 보였고 진실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던 처녀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 인간을 가리우고 있던 결함과 부족점들도 지성과 존엄이 뚜렷이 두드러지는 조화의 미를 손상시키지 못했고 처녀의 가슴속에서 눈 뜬 깨끗한련모의 정을 흐리게 할수는 없었다.

원옥회는 박성국이 기혼자였다는 사정에도 그에게 어린애가 있다는 사실에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세속적인 관념에 사로 잡혀 망설이기에는 자기 감정에 너무나도 충실했고 인간자체를 귀중하게 보려는 지향이 너무도 강했던것이다.

이처럼 해방후 조선문학작품들에 형성된 조선녀성들은 훌륭한 인간을 사랑한다.

그들은 외모보다도, 성격보다도 마음을 사랑한다. 특히 나라를 위해 참되게 살며 일하는 큰 사람을 사랑한다. 시대가 바라는 훌륭한 인간이야말로 조선녀성들의 심장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새 시대 조선녀성들의 사랑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을 지향하는 고상한 사랑이다.

그들은 직업, 재산, 인물에 대한 세속적인 타산이 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인물이면 동경하고 사랑하는것이다.

3. 사랑의 폭과 깊이

남편(애인)에 대한 조선녀성들의 사랑은 어느만큼 넓고 어느만큼 깊은것인가.

해방후 조선문학작품들에 형성된 조선녀성들의 사랑의 폭과 깊이를 재여 보자.

희생성과 헌신성. 이것은 그 끝을 가늠할수 없는 사랑의 폭과 깊이의 표현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녀성들은 사랑에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꽃다운 청춘도 생명까지도 웃으며 바칠줄 아는것이 조선녀성이다.

조선녀성들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우선 가정에서 남편의 사업을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데서 나타난다.

장편소설 《백금산》에서 함순화는 애오라지 남편이 잘되기를 바라며 그한테 모든 정성을 기울인다. 그는 남편에게 구명탄 한번 찍게 하지 않으며 지어는 벽이 떨어 지고 부뚜막이 내려 앉아도 다 제손으로 고쳐 놓기에 애 썼다.

남편이 일체 집걱정을 모르고 생산에만 전념하게 하느라 모든것을 다해 왔다. 그래서 남편은 광구에서는 물론 광산적으로도 해마다 제일 먼저 계획을 해내는 혁신자가 된다. 그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런 불만도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마 조선녀성들은 천성적으로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인가 싶다.

현실생활에서 영예군인청년들의 눈이 되고 손

발이 되는 조선녀성들의 아름다운 품모는 문학작품들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편소설 《들장미》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경찰분대장으로 싸우다가 한다리를 잃은, 영예군인의 안해 숙임이, 단편소설 《이 나라 녀인들》에서 한다리를 잃고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나타난 애인의 품에 뜨겁게 안기는 주인공 심유순 등의 성격을 파고 들면 아름다운 조선녀성들의 품모가 생동하게 안겨 온다.

조선녀성들의 사랑은 또한 속 깊은 사랑이다.

장편소설 《백금산》에서 강정식(그는 본의 아니게 나라에 큰 해를 준 인물이다.)의 안해는 남편이 로동당원이 되기를 열렬히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에게 입당과 관련한 말을 묻거나 내비치지 않는다.

모두가 당원들인 처가집에 발걸음을 끊은 남편의 심중을 이해하며 남편을 괴롭힐가보아 자기도 오빠나 언니네 집들에 갈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당원증주머니를 몰래 만들어 놓는다.

그런가 하면 주인공의 안해인 순화는 남편이 일하러 나가는 아침에 대접하려고 새벽에 떡쌀을 가마에 안치였는데 떡살이 다 익어 절구에 쳐야 될 시각까지 남편이 깨여 나지 않자 국수분들로 찰떡을 만들어 상우에 올려 놓는다.

절구소리를 내면 남편이 잠을 설칠것 같아서였다. 이처럼 남편(애인)에 대한 조선녀성들의 사랑은 희생성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둔 폭 넓고 깊이는 사심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이름할수 없는 거대한 힘으로 전환된다.

4. 사랑의 힘

조선녀성들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거대한 힘이 되어 남성들에게 끝 없는 힘과 신심을 안겨 주며 존엄 있고 긍지높이 살수 있도록 고무해준다.

단편소설 《애착》에서 림선옥은 자기 직업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던 남편 박상수가 운전사라는 직업에 애착을 가지도록 사랑으로 감화시킨다.

선옥은 밤을 새우며 남편의 차를 알뜰알뜰하게 닦아 놓고 차장 한쪽에 《무사고》라는 글도 따붙인다. 뽕통 사납고 우둘렁거리기 잘하는 상수는 차츰 안해의 이 지성, 남편이 차관리를 잘하고 사고도 내지 않는 모범운전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박한 소원을 풀어 줄 결심을 가지게 되며 드디어 5만km무사고 주행표식인 붉은 별을 탄다.

붉은별을 탄 날 상수는 일부러 차를 집앞에 가져다 세워 놓는다. 그때 안해의 눈에서 눈물과 함께 반짝이는 기쁨을 본 순간 그는 남편으로서 안해를 저처럼 기쁘게 해주지 못하고 속만 태워 준것을 가슴 저리도록 후회하며 나라의 수송을 맡아 지키는 긍지와 훌륭한 안해를 둔 행복을 느

킨다. 결국 안해의 사랑의 힘이 남편의 심장을 움직였던 것이다.

그 누군가는 여성을 하나의 학교라고 하였다.

사랑의 힘으로 남성들을 개변시키고 큰 일을 하게 하는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다. 남성들을 보다 강하고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사회에 내 세워 주는 조선여성들이야말로 명실공히 하나의 학교라고 해야겠다.

조선여성들의 사랑의 힘은 그들이 지닌 고유한 미, 외유내강의 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선여성들의 사랑의 힘, 외유내강의 미는 조선에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벌리던 시기에 가정의 꽃, 나라의 꽃, 행복의 꽃으로 억세게 피어난 여성들의 형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정치사상적으로, 경제군사적으로 조선을 고립압살시키려고 책동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공세앞에서 조선인민은 산악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 따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한생이 어려 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추켜 든 조선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그 누구보다 피눈물을 많이 흘린것은 여성들이었으리라.

생활은 언제나 구체적이다.

쌀 한알, 강냉이 한알로부터 시작되는것이 생활이다. 흰 김이 무럭무럭 나는 먹음직한 흰 쌀밥을 듬뿍듬뿍 담아 주며 미소를 지어야 할 녀인들이 멀건 죽물을 국자로 퍼담고 통강냉이알을 세여담으며 눈물을 흠치는 모습을 아마도 세상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그 멀건 죽물마저 차례지지 않을 때도 있었건만 녀인들은 이겨 냈다.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피로움과 아픔을.

...

부엌에서 남 몰래 찬물 한그릇 마시고는 먼저 한술 들었다며

더운김 피여 오르는 식탁에

산나물 한접시라도 더 놓아 주고

감자 한알이라도 더 없어 주고야

행주치마에 젖은 손 닦으며

식탁에 앉을 땐

자기앞의 국은 그만 다 식어

오, 한겨울에도 더운 음식 차려 주고

차거운 죽을 드는 녀인들

《고난의 행군》길에 제일 수고로운

혁명작식대원들이여!

...

(서사시 《조선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조선여성들은 《고난의 행군》시기에 혁명군대의 작식대원들처럼 살았다.

거기에는 자식과 남편, 온 가정에 부어 주는 어머니와 안해의 사랑, 딸과 며느리의 지성이 깃들었고 미래를 띠고 있는 불굴의 기상이 담겨 저

있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겪으며 식탁 하나 푸짐히 차려 주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 질수록 복수의 무서운 힘이 천백배로 강해졌다.

조선 여성의 사랑의 힘이 미제를 복수할 무적의 힘으로 된다는것을 우리는 이 시기의 생활을 반영한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통하여 보게 된다.

시인의 귀중한 생활체험이 담겨진 시초 《시련과 녀인》(렴형미)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한송이 들꽃을 쥐고도 좋아라 뛰는 아들애손에 무언가 듬뿍 들려 주고 싶어, 밤일 가는 남편의 밥상에 진수성찬 고일수 없어 행주치마 매만지며 떨리는 서정적주인공의 손이다.

...

오, 불끈 주먹이 쥐여 지노라

미국! 네놈을 굶겨 봤으면

너의 새끼를

너의 에미를 사흘만 굶겨 봤으면

무서워 하라

네놈이 보복을 받는 그날을

이 나라의 사나이들보다

녀인들을 천백배 무서워 하라

죽가마 저으며 떨리는 이 손

총창을 잡는 그날엔

총창을 잡는 그날엔

단 한번도 떨리지 않으리라!

(《떨리는 손》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 안해의 마음 다 고이지 못하는 것만 같은 죄스러움으로 떨리던 녀인의 손이었다.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삼키는 온몸의 떨림이었다. 허나 떨리는 녀인의 손은 가냘프고 힘 없는 손이 아니었다. 그 손은 무쇠주먹으로 되어 원쑤의 머리에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리라.

사랑과 동정에 울다가도 원쑤와 맞다들 때에는 추호도 양보를 모르는 조선여성들의 무적의 힘, 그 힘이 녀인의 손에 형상되어 있다.

5. 행복은 어디에?

행복이란 무엇인가, 조선여성들은 무엇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가.

행복은 인류가 갈망하는 모든 생활의 목표이기도 하고 지향점이기도 하다.

인간은 살아도 행복하게 살것을 원한다.

그러나 행복에 대한 견해는 각이하다.

단편소설 《행복》(석윤기)에서 범속한 표현을 빈다면 옥주는 꽃다운 한평생을 불구가 된 사람을 위하여 고스란히 희생하다싶이 한다.

하지만 옥주와 승재는 서로의 아름다움에 황홀히 취해 있고 행복속에 잠겨 있다.

그들의 사랑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높고 깨끗한 사랑이다.

육주는 동정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심장의 충동으로부터 진심으로 승재를 사랑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 어떤 범속한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쾌감이 아니다.

어제도 조국을 위해 한몸을 바쳤고 오늘도 래일도 조국을 위해 밤낮없이 보람 있게 사는데 그들의 행복이 있는것이 아닌가.

장편소설 《너당원》에서 리성찬의 안해이며 유치원 교양원인 로동애는 남편이 집안일을 자기에 맡기고 밖에 나가 직장일을 잘하기를 바란다.

동애는 남편의 손발이 되는것을 달가와 하며 그러한 뒤받침으로 남편이 맡은 일을 잘해 나가는것을 안해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조선녀성들은 많이는 남편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는다.

그러나 조선녀성들의 행복은 단란한 가정생활에만 매여 있지는 않다.

새 시대 조선녀성들에게 있어서 가정도 남편도 귀중하지만 재능껏 일할수 있는 일터 역시 귀중하다. 그들은 일터에서 한몫 담당함으로써 사회적인간으로서의 값 높은 행복을 느낀다.

인류가 도달할수 있는 행복의 한계는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약되어 있지만 세월과 함께 그

행복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 지고 확대되는것이다.

그러나 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로동당시대는 선행한 어떤 력사적시기와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고도로 성숙된 행복한 시대이다.

특히 조선녀성들에게 있어서 새 시대는 더없이 행복한 시대이다.

약자의 상징으로만 치부되어 오던 조선녀성들은 해방후 전변된 새로운 현실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 마음껏 행복을 창조해 나갈수 있게 되었다.

장편소설 《너당원》과 《빈터우에서》 주인공 주용녀, 중편소설 《생활의 언덕》의 주인공 정춘애가 그러하다. 과거 조선녀성들의 행복은 남성들에게 달려 있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는것이 조선녀성들의 운명이였다.

오늘날 조선녀성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더는 피동적으로 주어 지는것이 아니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되는것이다.

그들은 남성들과 똑같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가고 있을뿐아니라 자기 행복의 주인이 되어 오늘도 행복을 창조해 나가고 있다.

정

송명근

새 솜동복을 모두 펼쳐 입은 날
사관장은 노상 벋글웃음이었습시다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어때?》 하고 몇번이나 물으며

새 솜동복을 입고 근무 나가는 날
초소에 온 장령동지도
내 잔등을 만져 보고 끌어 보았습시다
앞뒤로 흐뭇이 돌려 세워 보며

물랐습시다
고지의 솟눈길 헤쳐 오신 장군님
새 동복 입은 저를 가까이 불러 주시고
앞자락을 몇번이나 뒤집어 보실줄

물랐습시다
솜동복 안설테
장군님 손을 넣어 보실줄은!
피를 준 정만이 미칠수 있는 여기...
친어버이 정만이 닿을수 있는 여기...

정녕 몰랐습시다
그 누구의 손도 미친적 없는
새 솜동복 안설테에서
우리 장군님
슴새는 한가닥 랭기를 잡아 내실줄이야

《351고지 눈바람을 막기엔
숨이 아직 얹구만, 얹아...》
하시며 동무들도 다
여기 한번 손을 넣어 보라고...

아, 그 얼마 숨의 두터이면
이 정에 닿겠습니까
고지의 눈보라는 귀전에 우는데
내 마음은 정에 울고...

어버이장군님 보내주신
더 두터운 솜옷을 받았습시다
내 언제면 다 알수 있을가요
모든 사람 근심이 끝나는 곳에
깊어 지는 걱정이 장군님정 아닙니까

시를 통해 본 성삼문의 절개와 의리

김세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문학사나 예술사에서 취급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작가, 예술인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우리 문학사와 예술사에도 당대 문학예술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는것을 알려 줌으로써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 주는 동시에 지난 날의 력사에서 경험과 교훈을 찾게 하자는데 있다.》

성삼문(1418~1456)은 15세기 훈민정음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집현전의 이름 있는 학자의 한사람이다.

성삼문이 력사적으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 지게 된데는 그가 훈민정음창제에 참가한 학자의 한사람이었다는데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가 선대 임금들인 세종이나 문종과 맺었던 의리를 지켜 자기의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죽은 사육신의 한사람이었다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성삼문은 평생에 그리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충절과 의리를 심정 그대로 시에 담은 특색 있는 충절시들을 여러편 창작하였다.

성삼문이 쓴 시작품들과 의리를 지켜 끝까지 싸우다 죽은 그의 실천행동으로 볼 때 그는 평생에 의리와 지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긴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의 호를 《매죽헌》이라고 하였다. 참대와 매화는 곧고 굳세며 역경속에서도 변치 않는 인간의 상징으로 예로부터 사람들속에서 선망되어왔다.

곧은 절개의 변치 않음이어

네 뛰여 난 기상 아직도 지냈구나

청백을 지켜 변할줄 모르니

이 바로 군자가 따를바일세

《매죽헌부》라는 그의 이 시는 아마 자기의 호를 《매죽헌》이라고 달게 된 이유를 시로 써놓은것이 분명하다.

성삼문이 사람의 인격적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굳센 지조와 변함 없는 절개를 제일 중요시했다는것은 역시 굳센 지조와 깨끗한 절개의 상징인 소나무와 참대, 흰 눈과 달을 노래한 《송죽석월송》(소나무, 참대, 눈, 달을 찬양하여)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평온한 나날에 씌여 졌을 이런 시들은 그가 일상적으로 굳센 지조와 절개, 의리를 지키는것을 사람의 첫째가는 인격기준으로 여겨 왔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그의 이 인생관은 수양대군(세조)에 의한 횡포한 왕위찬탈을 계기로 그대로 현실화되였다.

세조를 몰아 내고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한 사건은 성삼문이 주동이 되여 일으킨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성격으로 볼 때 선대 임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한 의리에 바탕을 두고 일어 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이 사건은 말 그대로 한 나라 임금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는 《대업》인것만큼 생사의 대결장이 되지 않을수 없다.

단종복위거사에 립한 성삼문의 각오와 결심은 이 거사가 한창 준비되던 때에 씌여 진것으로 보여 지는 다음의 시조에 잘 나타나 있다.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숙제 한하노라

끓주려 죽을진대 고사리를 캐먹다니

비록 풀이라 한들 그 뉘의 땅에 난것이나

시조에서 보여 주고 있는바와 같이 성삼문은 력사에서 만대의 충절의사로 찬양되여 온 중국의 백이와 숙제의 절개를 비난하고 있다.

력사에 널리 알려 진 일이지만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굽어 죽은 사람들이다.

백이, 숙제는 은나라를 치러 가는 주무왕의 말고삐를 잡고 만류했으나 주무왕이 끝내 은나라를 쳐서 멸망시키자 은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 주나라의 곡식을 사양하고 수양산(산서성에 있는 산)에 들어 가 고사리를 캐먹으며 은둔생활을 하다가 굽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당시에 있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행동은 대단한 의리, 대단한 지조가 아닐수 없다.

하기에 중국의 력사가 사마천은 《사기》 렬전의 첫 머리에 이들의 행적을 올리고 만대를 두고 레찬될 충절의사의 상징으로 격찬했던것이다.

그런데 이 상징적인물들의 《의로운 절개》가 성삼문에게는 오히려 부끄럽게 여겨 진것이다.

단종복위가 실패하여 모진 악형끝에 죽는 그 시각에까지 자기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세조와 대결한 성삼문의 지조로 보아 그가 백이, 숙제를 부끄럽게 여긴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였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외롭지 못한 주무왕을 반대하여 생사의 대결을 하지 못한 비겁함과 생명이 아까와 처참하게 고사리까지 뜯어 먹다 죽겠느냐 하는것이다.

성삼문의 경우 의리를 지키지 못할바엔 차라리 죽어야 한다는것이 이 시조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지인것이다.

이것은 시조를 지을 때의 성삼문의 각오와 결

심이 이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절대적계선에 이른 상태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성삼문의 이런 의리, 이런 지조는 고사리를 뜯어 먹다 굶어 죽은 백이, 숙제의 의리와 절개에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의리이고 지조인 것이다.

시조에 어린 그 어조의 당당함으로 보아 작자는 이 시조를 쓸 때 벌써 의리를 위한 일에서 생사의 계선을 넘지 못하여 굶어 죽지 않으면 안되었던 백이, 숙제와의 대결에서 자신감에 차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고사리를 뜯어 먹은 백이, 숙제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성삼문의 장담이 결코 흰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은 그 후 죽음으로써 보여 준 그의 결연한 행동이 웅변적으로 잘 실증해 주고 있다.

백이, 숙제에 대한 그의 이러한 비판적 태도와 자신감은 그가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백이, 숙제의 묘를 지나면서 지었다는 시 《백이, 숙제의 묘를 지나며》에서 《그대의 수양산 고사리를 내 부끄럽게 여기노라》라고 한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우연한 일치이지만 성삼문이 수양산의 고사리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한 말에는 당시 세조(수양대군)가 그에게 준 량식을 먹지 않고 쌓아 두고 있었던 사실을 련상시킨다.

이것 역시 의리를 위한 길에서 성삼문이 보여 준 지조의 견결함이 백이, 숙제에는 비길바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성삼문이 단종복위거사를 준비하던 시기에 씌여졌을 우의 시조와 한시의 내용을 음미해 보면 단종복위가 거의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리를 지키다가 죽은 백이, 숙제에 대한 상념이 성삼문의 온 정신을 지배하면서 백이, 숙제와 자기의 지조를 비기면서 더 굳센 각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이 각오와 결심은 그가 모친 악형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전의 엄혹한 현실에 접하여 쓴 한자절명시와 시조에 잘 반영되어 있다.

북소리 뚝뚝 울려 죽기를 재촉하는데
서풍은 불어 오고 해는 저물어 가네
황천길에 주막이 없으려니

오늘 밤은 뉘 집에서 묵어 갈고

이 한시는 죽음앞에 나선 성삼문의 사나이다운 기개와 담력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 준 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그의 무관심성과 락관이다.

성삼문도 사람이니 생에 대한 애착이 없었을 수는 없으며 자기 때문에 죽고 고통 당해야 할 부모처자에 대한 련민의 정이 없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그런 감상적인 색채나 절통감이 전혀 느껴 지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성

삼문자신의 안도감이 강하게 느껴 지고 있다.

당장 목이 잘리우게 될 엄혹한 시각에 그는 자기가 잠시 후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는 근심보다도 황천에서 목을 잡자리, 그것도 길 가는 나그네들이 목어 가는 주막집걱정을 하고 있다.

작자의 체념에는 죽음이라는 비극적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육체가 공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저세상으로 자리를 옮겨 가며 사는 것으로밖에 느껴 지지 않고 있다.

성삼문이 죽음앞에서 이처럼 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의리를 위한 길에서는 결코 죽음도 두렵지 않으며 의리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죽음으로 서만이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 온 《매죽헌》의 인생관에 기초를 두고 다져진 마음의 준비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이 곧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확신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죽음까지도 웃으며 맞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시에서는 《의리》나 《절개》, 《송죽》이나 《일편단심》과 같은 직선적인 토로는 없지만 의리의 길을 뚝뚝이 가는 작자의 사나이다운 모습이 석연히 안겨 오고 있다.

성삼문이 지녔던 의리와 절개가 어떤 것이었고 그가 얼마나 의리와 절개를 소중히 여겨 온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역시 죽음의 시각에 읊었다고 하는 다음의 시조에서 최절정을 이루고 있다.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장송 되어서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 시조는 그 내용으로 보아 앞에서 본 한자절명시에 뒤이어 그의 련속편처럼 씌여진 것 같은 작품이다.

그것은 앞의 한자절명시에서는 황천으로 가는 도중에서의 잡자리걱정을 하고 있지만 이 시조에서는 죽은 다음 저승에서의 삶이 확신성 있게 노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시조에서 성삼문의 기개는 도고하기 이룰데 없다.

그 주제사상적면에서 볼 때 이 시조는 고려말기의 정몽주가 이 몸이 열백번 죽어 백골이 진로 되어도 님 향한 일편단심은 변할 수 없다고 한 《단심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정몽주는 변함 없는 고려왕조에 대한 의리를 노래한 이 《단심가》 한수로 하여 력사에 이름난 충절로 찬양 받고 있다.

성삼문의 시조는 의리와 절개를 노래한 시조로서 그 시적형상의 폭과 현실반영의 철학적깊이에 있어서 정몽주의 《단심가》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시조라고 말할 수 있다.

정몽주의 《단심가》는 견결한 의지표명과 운률조성의 효과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시조이지만 그 시의 형상적측면에서 볼 때 비극적인 죽음만이 표면적으로 강조된 시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삼문의 시조에서는 죽음앞에 서 있는

작자의 결연한 자세와 변함 없는 의지가 뚜렷이 표명되고 있을뿐아니라 비극적인 죽음의 세계와는 배치되게 새로운 삶의 세계로서 《봉래산》이요, 《락락장송》이요 하는 외부세계에까지 시야를 넓혀 굴함없이 굳센 자기의 모습을 형상적으로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적인 정황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의 굴함없이 깨끗한 절개를 이렇게 생활적으로 형상하고 있다는것은 죽음도 기꺼이 받아 들일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것을 말해 준다.

이 시조에서도 역시 앞의 시에서처럼 그 첫 시작이 비극적현실에 대한 표면상의 무관심성에 기초한 죽은후의 삶에 대한것으로 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무관심성이나 현실의 부정은 외롭지 못한 현실과는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항거하며 선대 왕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며 《매죽현》의 인격적가치를 지키겠다는 그의 자세의 직접적인 발로이며 현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한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시조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세상과 다름없는 저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와 다름 없는 굳세고 깨끗한 자기의 삶에 대해서만이 관심사로 되고 있다.

《락락장송》이나 《독야청청하리라》와 같은 표현은 그자체가 평생 자기가 추구한 인생의 삶을 죽어 다시 태어나서도 잃지 않고 변함없이 지켜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것으로서 세조와의 대결에서 굽힘 없는 자기의 의지를 다시한번 과시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시조에서 봉래산의 제일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한 곳으로 노래되었다.

봉래산이 구체적으로 금강산의 별칭이든, 아니면 삼신산의 하나로서 전설적인 산이든 관계없이 봉래산의 제일봉은 온 세상을 뒤덮는 백설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높이에 솟아 있는 최상의 경지이다.

작자는 바로 이 절대적경지에서 푸르싱싱 역세게 자라나는 락락장송이 되겠다는것이다.

락락장송은 계절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사시절 항상 푸르싱싱 자라는 변함 없는 굳센 절개의 상징이다.

여름에는 온갖 초목들도 이 락락장송처럼 푸르싱싱 자라나 자기의 아름다움으로 사람을 현혹시킨다.

인간의 절개는 온갖 초목이 푸르싱싱 자라는 햇빛이 화창한 온화하고 평화로운 시기에는 가려보기 어렵다.

시조에 노래된 락락장송의 참된 가치와 변함 없는 역센 기상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 추위에 만생명이 죽어 버리고 흰 눈에 온 세상이 묻혀 지는 시기에 가야 알수 있다.

흰 눈 역시 깨끗함의 상징이다.

봉래산 제일봉의 락락장송은 이 세상 추한 모

든것을 모두 매장하는 흰 눈까지도 땅바닥 멀리에 밀어 버리며 홀로 푸르청청 솟겠다는것이니 죽음앞에 선 성삼문의 기개는 고사리나 뜯어 먹다 죽은 백이, 숙제의 절개로써는 도저히 미칠수 없는 절대적높이에 있는 기개인것이다.

이 세상 모든것이 추위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눈속에 묻혀 버리지만 우뚝한 봉우리우의 굳센 비위에 뿌리 박고 자라는 락락장송은 어떤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묻혀 지지도 죽지도 않는 불사신의 상징이고 보면 시조에 형상된 성삼문의 의리나 충절 역시 죽어서나 살아서나 변함 없는 불사신의 절개이고 충절의리라고 볼수 있다.

참다운 의리나 참다운 절개의 생명력은 영원하다.

이 세상 모든 추한것이 다 죽어도 홀로 푸르청청하겠다는 락락장송의 형상은 부정의가 살판치는 사회는 가고 의로운 사회가 다시 오리라는 굳은 확신에 넘친 형상이기도 하다.

성삼문은 이런 확신으로 변절을 강요하는 세조에게 항거함으로써 현실에서의 자기의 의지와 모습을 재확인했고 자기와 의리를 지킨것이다.

시조에 형상된 저승의 성삼문은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 서 있는 자기자신의 모습인것이다.

아마 이 시조의 예술적형상의 우수성이 여기에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봉건유학자였던 성삼문이 이와 같은 불굴의 의리와 지조를 지닐수 있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이 봉건유교적인 도덕관에 근본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성삼문이 의리와 절개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게 된데는 선대 임금들인 세조이나 문종과 맺었던 인간관계, 의리관계가 역시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할수 있다.

문헌기록들을 살펴 보면 성삼문은 세종과 문종의 각별한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였다.

레하면 세종 24년 세종왕은 집현전 학사들중 성삼문, 박팽년, 리개 등을 뽑아 삼각산 진관사에 들어 가 학업을 런마하도록 하였고 말년에는 병치료를 위하여 여러차례 온양에 행차했을 때에도 성삼문, 리개 등을 반드시 데리고 다닐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였다.

또 어느 때인가는 어린 단종을 안고 집현전 뜰을 거닐면서 성삼문, 박팽년 등에게 자기가 죽은 뒤에 단종의 장례를 당부한적도 있었다.

문종 역시 성삼문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가지고 왕래하였고 그 말년에는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학사들에게 세자를 부탁한 다음 하사주를 내오게 하여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허물없이 취하도록 마시기까지 하였다.

성삼문의 변심 없는 의리와 굴함 없는 지조가 반영되어 있는 그의 시작품들은 그 의리, 그 지조 그대로 실천행동으로 립증된 가식 없는 의리와 지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시작품으로서 일정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으로 되고 있다.

주체 89(2000)년 《조선문학지상축전》 당선결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창간호를 보아 주시면서 높이 평가해 주신 7월호 편집을 계기로 해마다 《조선문학지상축전》을 진행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높은 창작실적으로 보답하려는 불 타는 열의에 충만한 작가들속에서 지난해에도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7월호를 성과적으로 편집발행하도록 하였다.

축전에 당선되어 상장과 메달이 수여된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 《따뜻한 눈》 최영학

(조선작가동맹 남포시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지워 지지 않는 글》 최성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

○단편소설 《푸른 잎》 송병준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위원장)

○서정시 《머리 들자 나의 북이여》 리범수

(조선인민군출판사 작가)

○서정시 《수령님은 오늘도 벌에 계신다》 김

충기

(조선작가동맹 황해남도위원회 작가)

○서정시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최창만

(평양시 현직작가)

○서정시 《내 영원히 백두산에 서 있으리》 김

윤호

(총련 작가)

○서정시 《흙》 김옥

(중국 작가)

○서정시 《우리도 이 땅의 주인입니다》 리준

식

(제도이켈란드)

자료

주체 89(2000)년 노벨문학상을 둘러 싸고

중국문학계는 지금껏 노벨문학상수여에 편견이 있다고 제일 많은 비난을 해왔다. 그리고 주체 89(2000)년 노벨문학상을 쟁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맥락속에 미국에서는 년초에 중국작가들과의 미국친선협회의 주최 밑에 노벨문학상 중국작가추천위원회가 성립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노벨문학상평가위원회에 중국작가들이 쓴 100편의 소설을 추천해서 보냈다. 그러나 중국문학계의 희망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주체 89(2000)년 10월 12일 스웨리에국왕이 주체 89(2000)년 노벨문학상을 프랑스국적을 가진 중국인 고행건에게 수여하였다.

고행건은 주체 29(1940)년에 중국의 강서성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체 76(1987)년에 외국으로 간후 프랑스국적을 가졌다.

주체 89(2000)년 노벨문학상수여와 관련하여 중국작가협회는 신화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중국에는 세계적으로 손 꼽힐만한 우수한 작품들과 작가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노벨문학상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해 료해하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노벨문학상수여가 문학의 각도가 아니라 정치적각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자기의 권위를 잃어 버렸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체 88(1999)년도 노벨문학상수상자는 도이켈란드의 귄터 그라스이다.